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1 4 Vol. 232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사랑의 콘서트
천원의 행복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5월의 합창 축제



2011. 5. 17(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011. 5. 19(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코리아 브라스 콰이어의 천원의 행복



2011. 5. 7(토) 오후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1. 5. 12(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향 레이디 필 앙상블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즐거워 나의 집




2011. 5. 18(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11. 5. 20(금)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국악의 향기속으로



2011. 5. 19(목) 오후 7:30 부산북구문화방상센터 공연장

입 장 권
전석 1,000원

- 주최 : 부산광역시
- 주관 : 부산문화회관, 각 區문화회관
-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공/연/과 (051) 607-605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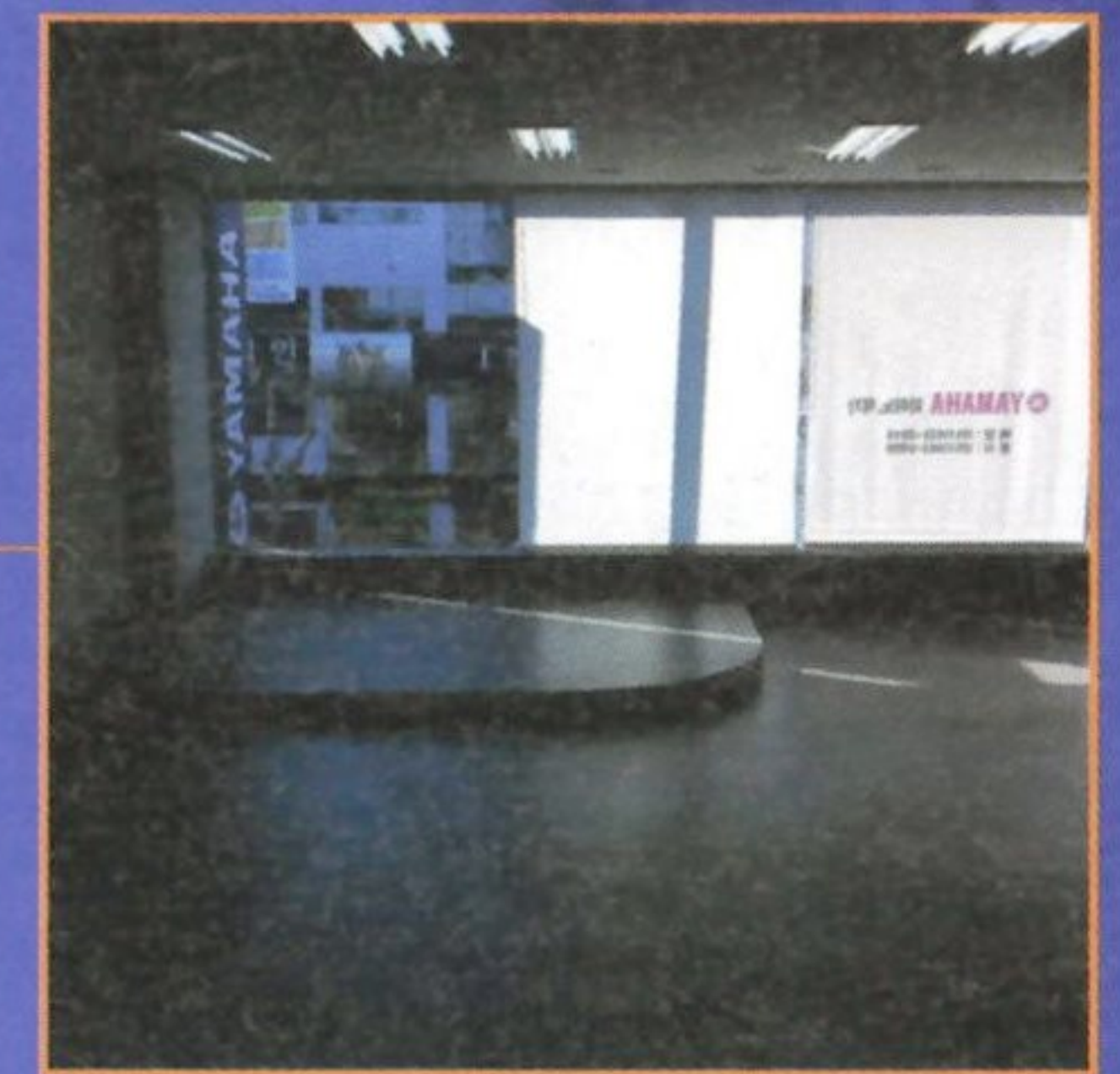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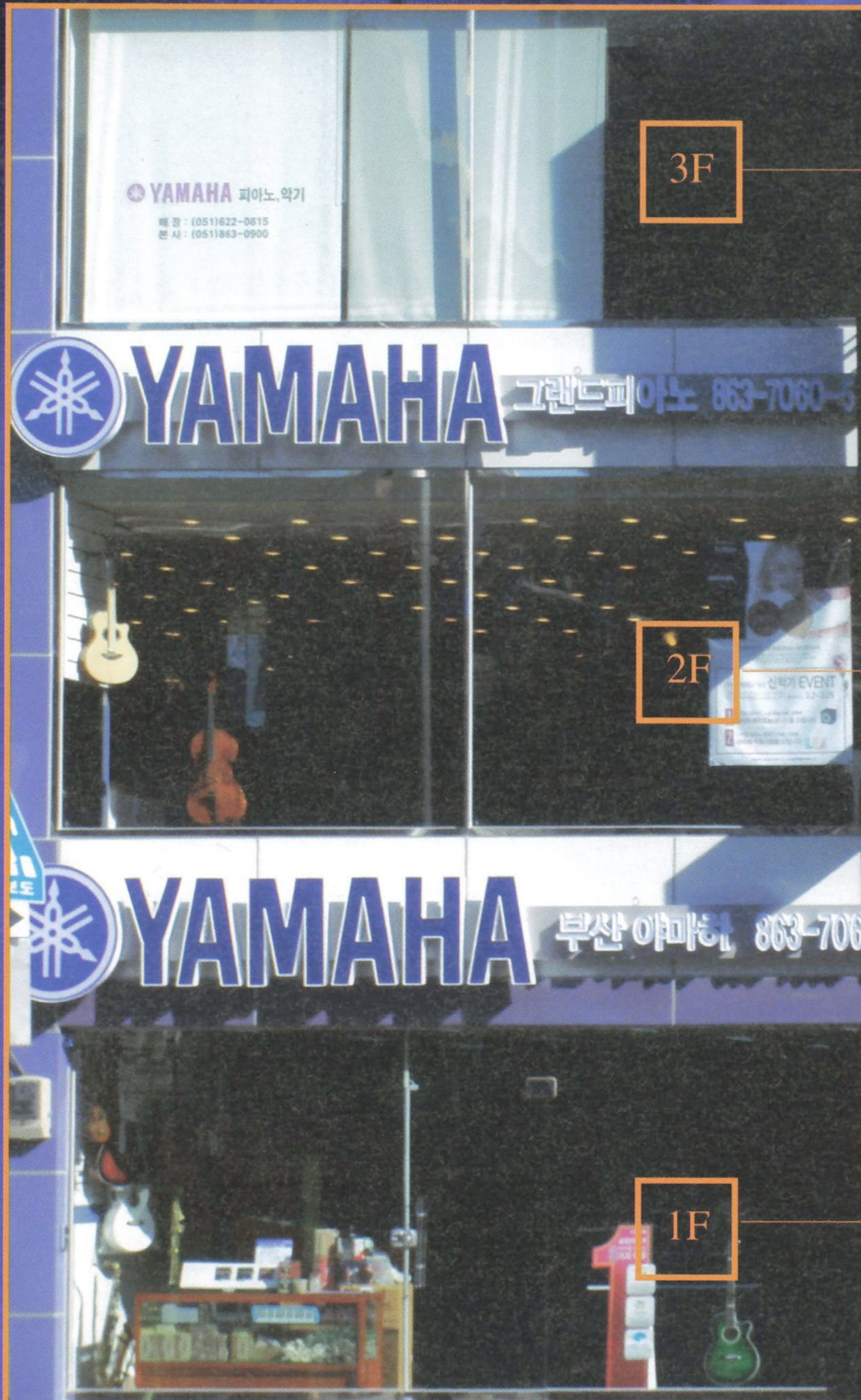
마당출판 '평강과 온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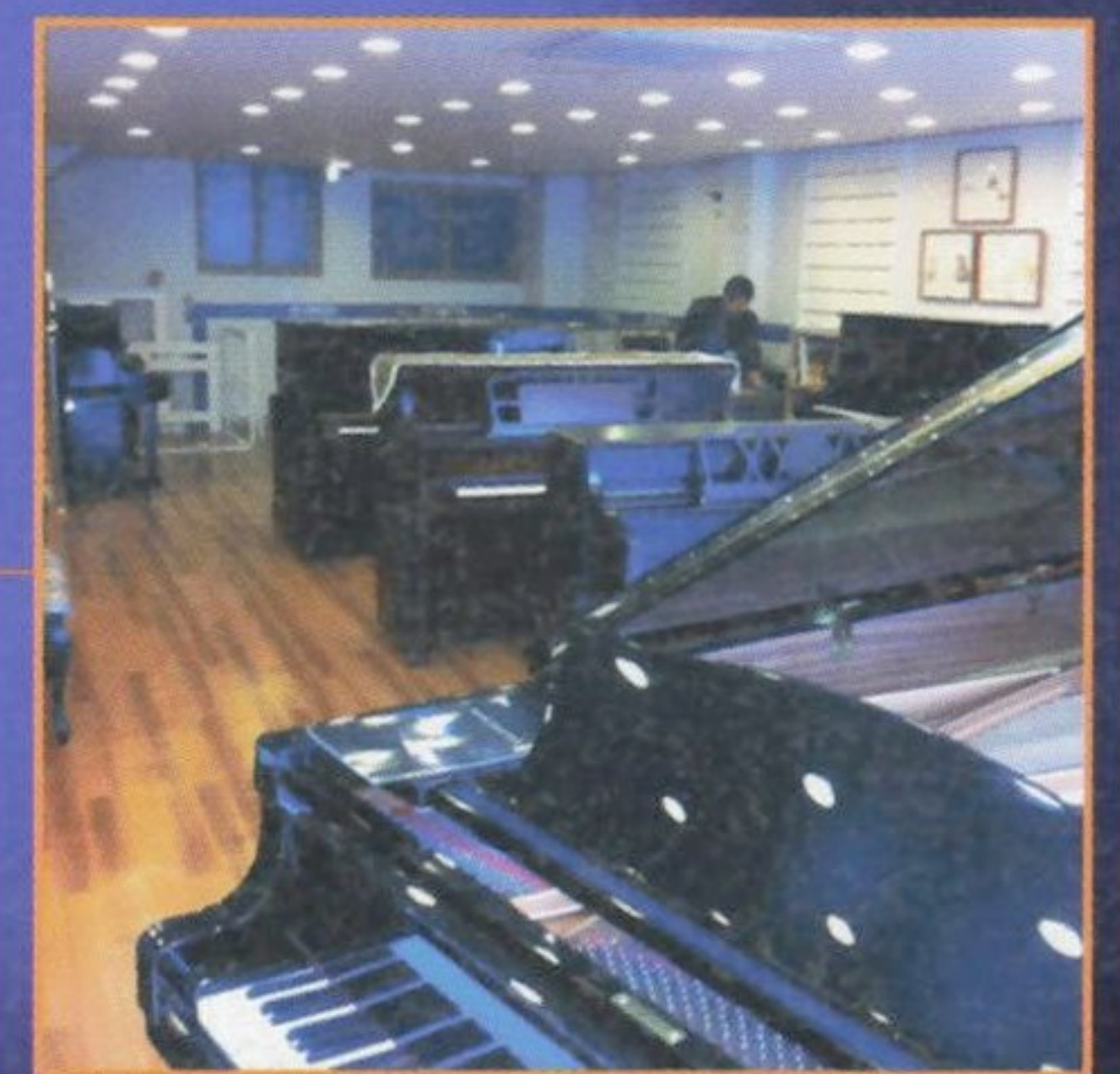
2011. 5. 31(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야마하 피아노사 양정 신제품관 새단장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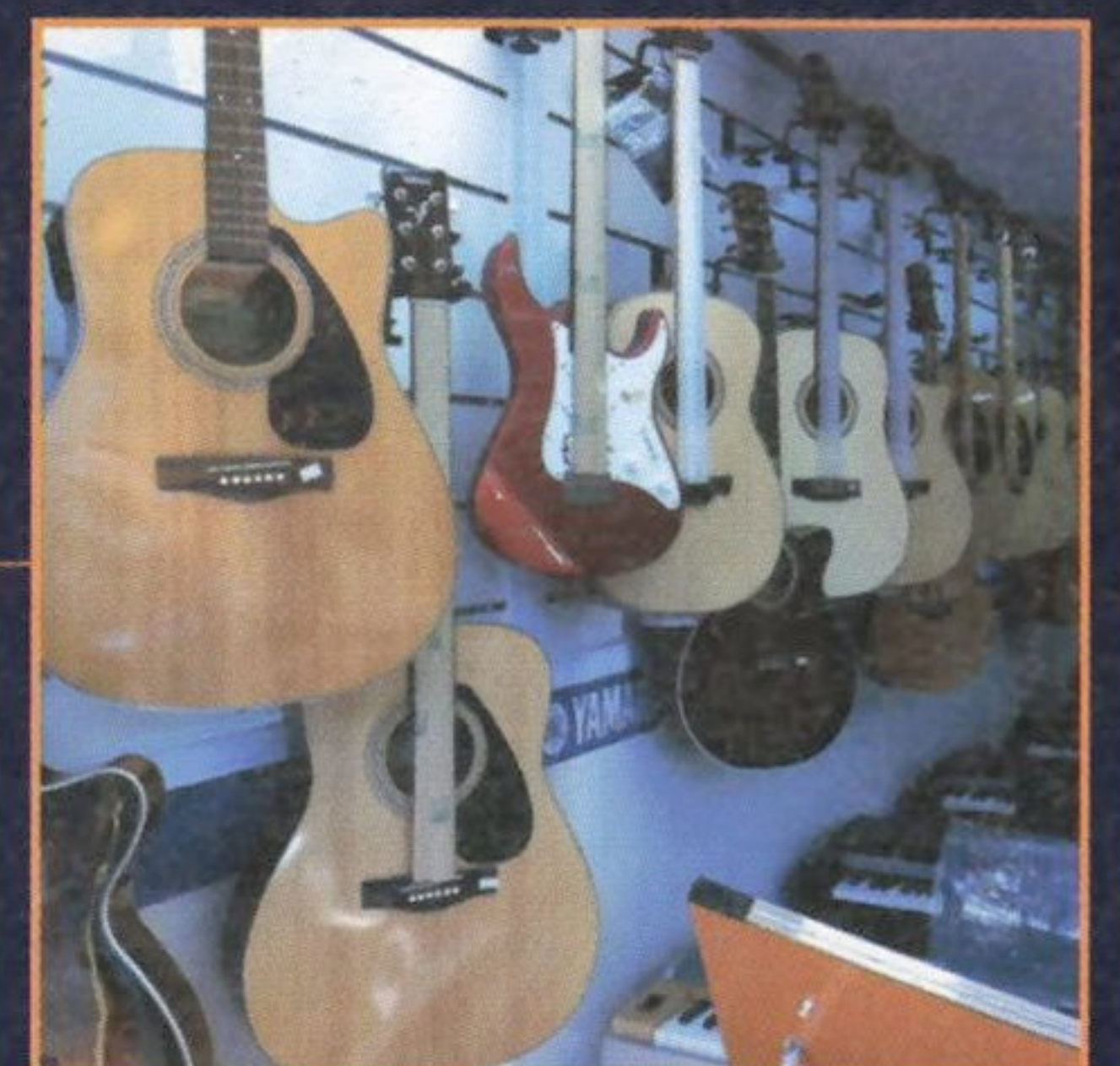
오픈기념 특별 할인판매 - 건반악기 · 관악기 · 교재용악기



3층 관악기 및 밴드 연습실



2층 업라이트 그랜드피아노 전시관



1층 관현악기 디지털피아노 전시관

2011년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여 부산야마하 피아노 새단장 공사를 마치고 새로이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기에 인사 올리며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2011년 4월 이상근 외 직원일동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From 라틴 아메리카 & Missa Criolla

아미엘 라미레즈(1921~2010)



지휘/ 김강규

피아노/ 이승윤, 이경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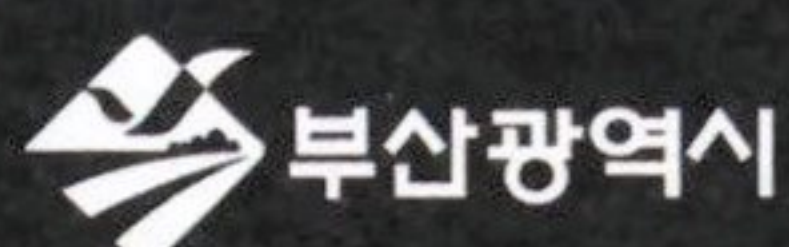
기타/ 고충진

2011.4.19(화)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_



주관_



입장료_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_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www.bschorus.or.kr

예매_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C/O/N/T/E/N/T/S

08 커버스토리

제 8회 부산국제연극제 '사랑, 그리고 조화'

10 프리뷰

14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음악협회 신임 회장 최삼화

16 은현리 풍경에서 시를 읽다 ①

보리가 주는 푸른 희망이 있어 | 정일근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그림 같은 춤, 춤 같은 그림-

화가 세라 올슨과 안무가 코리 크레스그의 만남 | 장은혜

22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①

레드 바이올린 | 이동신

24 불멸의 거장, 리스트 ②

젊은 날의 영광, 좌절, 방황, 탐구, 그리고 사랑 | 황윤하

26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②

단원도(檀園圖) | 변광석

28 그곳에 가면

거제조선해양문화관

30 우리는 문화가족

부산콘서트콰이어

32 리뷰

창극의 재발견 창극 '청' | 신설령

겨울에 만난 독립영화들 | 김희진

34 프로그램 가이드

52 나의 애청음반

로시니의 천재성과 치밀한 앙상블의 만남

'Une larme' | 김희성

53 부산문화회관 소식

54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1년 4월호 통권 232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1년 3월 25일

인쇄처 | 소문출판인쇄사 Tel. 051-256-2301~3 / Fax. 051-248-7960

04 April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
5/1

MON

TUE

3

4

5

대 | 부산원로교향악단 제 4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 · 1만원 · 3천원
부산원로교향악단(010-7661-5285)

중 | 제 29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누리에 '여자 이발사' 19:30
균일 1만 2천원/극단 누리에(621-3573)

중 | 제 29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누리에 '여자 이발사' 19:30
균일 1만 2천원/극단 누리에(621-3573)

소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제 4회 부산시민연극제 14: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10

11

12

중 |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모리문화예술원 '희망콘서트-놀이'
17:00 균일 1만 2천원/
모리문화예술원(010-4036-6454)

소 |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그라찌에 뽀빠' 18:00
균일 1만 2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대 | 창단 10주년 기념 아마빌레 색소폰
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아마빌레색소폰오케스트라(011-9044-7576)

중 | 카메라타 합창단 창단연주회 '포레 레퀴엠'
19:30 균일 1만원/전대예(010-5637-7114)
권영옥(010-4702-4392)

소 | 김영근 독창회-봄, 그리고 그리움
19:30 무료/김영근(010-3567-3723)

17

18

19

중 | 제 6회 메조소프라노 손자경 독창회
19:30 균일 1만원/우리아트(070-8247-3825)

중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From
라틴 아메리카 & 'Missa Criolla'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24

대 | 제 82회 부산, 영남 무용예술제 09:00
정성철(02-866-8880, 011-284-8880)

25

대 | 부산 YMCA 네오피로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5만원 · 3만원 · 1만원
부산 YMCA 네오피로케스트라(440-3372)

중 | 부산 피아노듀오협회 제 41회 정기연주회
-정희경, 김선화 피아노 듀오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진희(010-9928-3733)

26

대 |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 날 봉축기념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010-7576-4110)

중 | 부산 피아노듀오협회 제 41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듀오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진희(010-9928-3733)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WED

THU

FRI

SAT

6

소 |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그라찌에 뽀뽀'
19:30 균일 1만 2천원/몽키프로젝트(070-4069-7100)

13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8회 정기연주회
'4월의 환상과 서정'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 부산콘서트라이어 제 12회 정기연주회
'그리움..., 베이스 김홍진을 기리며'
19:30 균일 2만원/우리아트(070-8247-3825)

20

중 | 제 11회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정기연주회 19:30
초대/정년경(017-563-5301)

27

7

대 | 프랑스 최고의 상송 뮤지션
'무룡 초청 콘서트'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문화(633-8990)

중 | 제 29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의 시대' 19:30
균일 1만 2천원/극단 바문사(010-6519-1683)

소 |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그라찌에 뽀뽀'
19:30 균일 1만 2천원/몽키프로젝트(070-4069-7100)

14

대 | 제 1120회 MBC목요음악회
부산메트로폴리탄오케스트라 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강순보(010-7774-8179)

중 | 부산음악사랑회 제 6회 정기연주회 '오케
스트라와 함께하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균일 2만원/지민경(010-8533-4630)

소 | 소프라노 유승연 독창회 19:30
균일 2만원/유승연(010-8505-0113)

21

대 | 데이드림과 함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사랑의 음악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
박성은(010-4569-5400)

중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7회
정기연주회 '전원'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 | 춤패 연분 홍의 2011년 첫번째 공연
'조희정의 Walk and Walk!!' 20:00
1만원 · 7천원/정경은(010-6711-3922)

28

중 |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클래식이 보인다II-그림 속의 클래식, 그
림으로 보는 음악사, 음악으로 듣는 미술사'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

소 | 허아람의 꿈꾸는 책방 낭독회 19:30
균일 3만원/인디고 서원(628-2897,
010-7773-3316)

8

중 | 제 29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의 시대' 19:30
균일 1만 2천원/극단 바문사(010-6519-1683)

소 |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그라찌에 뽀뽀'
19:30 균일 1만 2천원/몽키프로젝트(070-4069-7100)

15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19 '가을방학'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22

소 | Jan Volger Quintet 내한공연 19:30
초대/스테이지원(02-780-5014)

29

대 | 푸치니 갈라 오페라 '토스카' 19:30
15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

중 | 제 22회 경성대학교 현악합주 정기연주회
19:30 전석무료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663-4918)

9

대 | 2011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17:00
12만원 · 10만원 · 7만원 · 4만원 · 3만원
공연기획 예성(582-2026)

소 |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그라찌에 뽀뽀'
18:00 균일 1만 2천원/몽키프로젝트(070-4069-7100)

16

중 | 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해설과 함께 떠나는
오페라여행 'Cosi fan tutte(코지 판
투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사)아지무스오페라단(632-4649, 070-7522-4649)

소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7:3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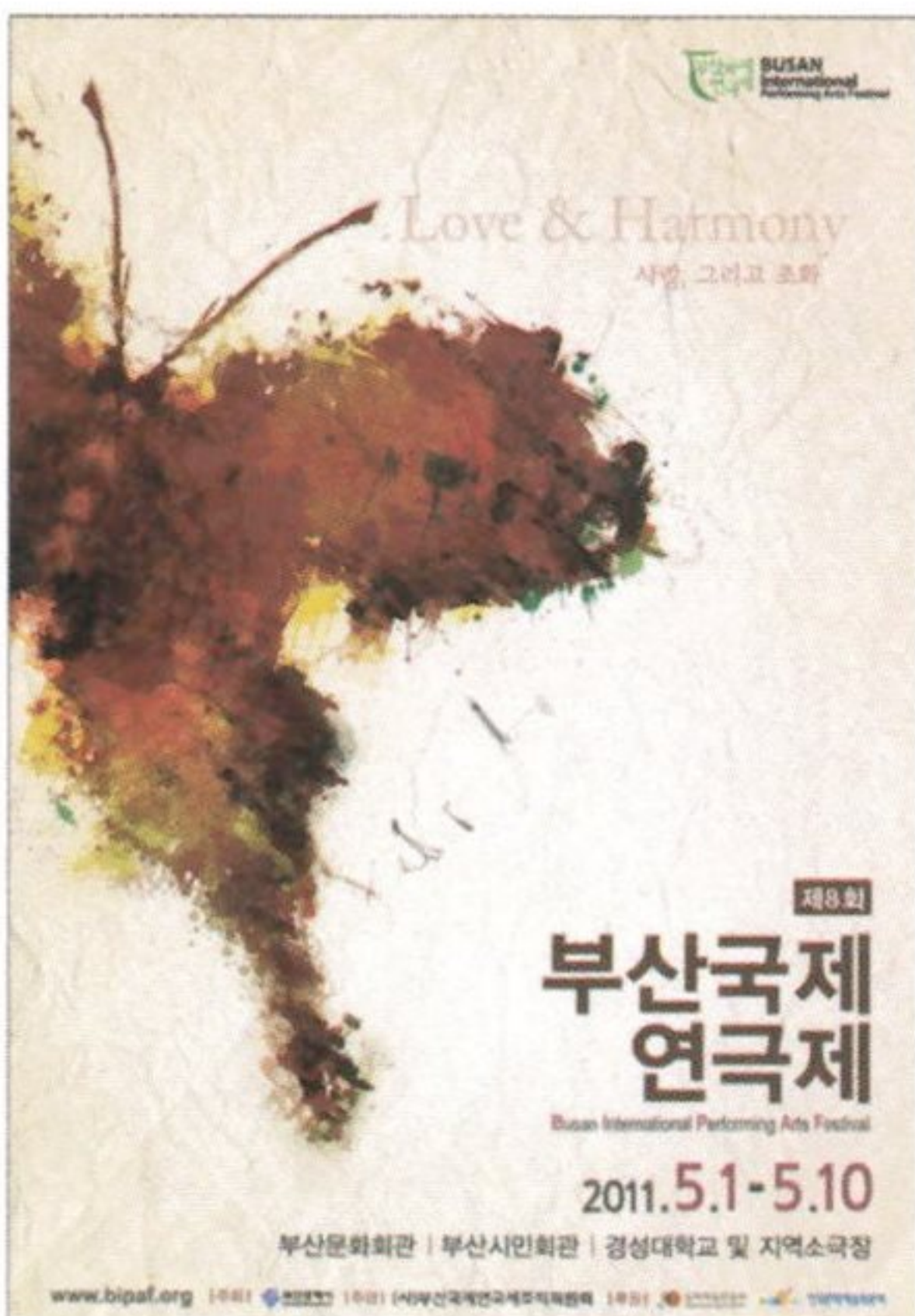
대 | 제 14회 매일클래식 16:00 균일 3만원
예인예술기획(02-586-0945, 011-772-0945)

소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17:3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30



작품 속에 표현된 인생과 사랑이 만들어내는 조화 제 8회 부산국제연극제 사랑, 그리고 조화 (Love & Harmony)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시작이자 끝이다. 5월 1일 제 8회 부산국제연극제가 '사랑, 그리고 조화(Love & Harmony)'를 컨셉으로 막이 오른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부산국제연극제는 매년 컨셉을 달리하며 국내외 화제의 작품을 초청, 부산에서 펼치는 연극축제로 부산 연극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2011년 부산국제연극제는 공연의 형식을 떠나 예술작품의 영원한 주제에 눈을 돌려 '사랑, 그리고 조화'를 컨셉으로 프랑스, 브라질, 일본 등 세계 7개국에서 19개의 작품을 초청했다. 우리가 항상 추구하지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그래서 예술 작품의 영원한 주제가 되어 버린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과 '조화'로운 세계를 위한 해결 방법을 관객들과 함께 찾아본다.

개막작은 프랑스 극단 'L'homme de l'Atlantique'가 '프랭크 시나트라 음악과 사랑'을 무대 위에 풀어낸다. 'L'homme de l'Atlantique'는 Culture France(프랑스 정부예술경영지원)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안무가이자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인 'Comedy'의 안무가 나세르 마르탱 고세와 함께 가장 활동적이고 창의력 있는 안무가로 주목받는 '올리비에 드부야'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위대한 예술가 프랭크 시나트라를 '전설의 목소리'로 추켜세우며 그 사람의 일대기를 자신만의 무대언어로 소화해 낸 작품이다. '프랭크 시나트라 음악과 사랑'은 프랑스 리옹 페스티벌의 포커스 댄스 부분에서 유일하게 기립박수를 받았다.

폐막작으로는 브라질 극단 'Dos à Deux'의 'Fragments du désir(욕망의 조각들)'이 부산국제연극제 대미를 장식한다. 'Fragments du désir(욕망의 조각들)'은 2009년 제 6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극단 Dos à Deux가 새롭게 선보인 화제작이다.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 전개와 끊임없는 탄성을 자아내는 무대 장치들로 관객들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까지 사로 잡을, 2011년 초청 작품 중 가장 충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성애를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자칫 민망하고 외설논란에 빠질 수 있는 민감한 요소들을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무대 연출과 배우들의 명품연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fragments du désir(욕망의 조각들)'을 탄생시켰다. 두 명의 연출가 Artur RIBERO와 André URTI는 등장인물들의 욕망과 사랑을 매우 흥미적이고 세밀하게 신체극으로 표현해냈다. 2010년 프랑스 최대의 축제 아비뇽OFF에서 성공적으로 초연된 'fragments du désir(욕망의 조각들)'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shell의 2011년 단독 신체극 특별상 수상 및 2010년 브라질 신문 Carioca지와 O GLOBO 방송의 비평가와 시청자가 뽑은 최고 2010년 10대 공연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 외에 체코 극단 Skutr이 펼치는 말이 필요 없는 시적(poetic) 신체극 'La Petite Mort', 소설과 현실 속 이야기간의 역할 차이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연기하는 중국 극단 'Z film & drama company'의 '상하이 랩소디', 부산역 앞에서 이름 없는 노숙자로 쓰러져간 엄마, 정숙이의 꿈을 그린 관객 참여형 로드 플레이 한국 운(雲)프로젝트 그룹의 '우리엄마, 정숙이, 차여사', 현대사회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함께 있어도 소통할 수 없는 관계의 허무함을 국적과 문화를 초월하는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한 극단 몸짚의 '허기진 휴식' 등 다양한 BIPAF Concept 작품이 부산에서 펼쳐진다.

BIPAF Concept 작품 이외 오픈 스테이지에서는 컨셉과 형식, 장르에 제한 없이 작품성과 탁월한 기량을 갖춘 해외 및 국내 우수초청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올해는 극단 마루 '이별의 부산정거장', 극단 사계 '자-살+자', 극단 맥 '들판에서', 예술무대 산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몽(夢)', TPS, 극단 청우의 '계와 그녀와 이웃 일본인', 스페인 Catalan Company의 'HUMORTAL(못말리는 장의사)'와 'COPS(캡스)', 자과리 연구소 '할머니의 낡은 창고', 현대인형극회 '띠용이와 떠나는 환경캠프', 춤패 연분 흥 '칸타빌레', 극단 연 '진작 말을 하지 그랬니?' 등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중 초청된 작품 가운데 예술성과 대중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BIPAF TOUR를 갖는다. '2011 BIPAF TOUR'는 자과리 연구소의 '할머니의 낡은 창고'와 극단 사계의 '자-살+자'가 영도문화예술회관과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부산국제연극제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쇼케이스 공연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광복동 야외무대, 센텀 롯데백화점 옥상 공원, 광복동 거리, 연산동 지하철 등 부산전역에서 게릴라성 이벤트로 펼쳐진다. 올해 초청극단 뿐 아니라 B-BOY공연, 락 및 어쿠스틱 밴드 등의 공연으로 흥겨운 연극세상을 만난다.

■ 문의 :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www.bipaf.org)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초대 이벤트 : 관람을 희망하는 초청공연을 4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8회 정기연주회

4월의 환상과 서정

4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완연한 봄의 정취를 담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8회 정기연주회 '4월의 환상과 서정'이 4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천재적 감각과 신선한 열정으로 인상 깊은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인 연주로 호평받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영이 협연하는 '4월의 환상과 서정' 레퍼토리는 베를리오즈의 화려하면서도 환상적인 대작 '이탈리아의 해롤드', 라흐마니노프 최고의 서정미를 자랑하는 '교향곡 2번'. 김가영이 협연하는 베를리오즈 '이탈리아의 해롤드(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작품 16은 베를리오즈가 31세 때인 1834년에 작곡되었다.

원래 이 곡은 바이올린의 대가 파가니니가 자신의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비올라로 연주할 비올라 협주곡 작품으로 의뢰한 것인데, 강렬한 환상적 성격의 소유자인 베를리오즈가 순수한 협주곡에 지나친 감정들을 표현해 파가니니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어, 본래 독주 비올라를 마치 인물처럼 다룬 표제적인 내용의 작품으로 작곡하였다. 베를리오즈는 '해롤드'란 청년이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랑하면서 그 고장의 풍경과 인정을 그려 역사와 사회에 대한 감상을 쓴 작품에서 힌트를 얻어 이탈리아의 풍경을 묘사하였는데, 제 3악장에서 아브루치 산지(로마 동쪽의 산악지대)의 분위기가 소박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비롯하여, 그가 예전에 이탈리아에 머물 때의 인상이 투영되어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리 신차오



비올리스트 김가영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비올리스트 김가영은 카네기 홀 독주회, 금호 초청 독주회(아름다운 목요일 시리즈) 등 독주회와 코리안 심포니, 부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마산시립교향악단, 제주시립교향악단, K.N.U.A 오케스트라, 서울 튜터 앙상블, Ola viola sound 등 협연 무대를 통해 음악애호가들과 만났다. KBS 열린음악회, 예술TV아르떼 생방송 공연, KBS 클래식오디세이, EBS 공감 등에 출연해 대중과도 친숙한 김가영은 2009년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크로스오버 앨범 가영 1집 'Flor de Tango'를 발매했고 2011년 5월 'Tango de Carmen' 가영 2집 발매를 앞두고 있다.

2부를 장식하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 2번'은 라흐마니노프가 1897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교향곡 1번' 초연에서 심한 혹평을 받고 한 참 뒤인 1906년 가을부터 1907년 봄에 걸쳐서 완성한 곡이다. 러시아의 전통을 충실히 지키려는 그의 보수적 경향이 엿보이며,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로서의 음악성을 강하게 내세워 풍부한 서정성의 색채가 느껴지는 라흐마니노프다운 작품이 특징적이다. 특히 이 곡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러시아 음악의 특성을 분명히 제시해 준 작품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곡이 완성된 다음 해인 1908년 1월 27일, 페테르스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에서 지로티의 지휘로 초연되었고, 다시 2월 2일, 모스크바 음악원 홀에서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연주되었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2011 교향악축제 피날레 장식



비올리스트 장중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4월 20일 우리나라 음악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의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1 교향악축제 피날레 무대를 장식한다.

1988년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교향악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축제로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2011 교향악축제>는 전국 18개 교향악단이 감동과 화합의 클래식 향연을 펼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13일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제 468회 정기연주회를 부산에서 가진 뒤 정기연주회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2011 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교향악축제에서는 비올리스트 장중진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육영공쿠르에서의 우승을 통해, 12세의 나이에 서울시향과 협연하며 데뷔 무대를 가진 장중진은 2006년 4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수석 비올리스트로 임명되었다. 연주자로서뿐만 아니라 바이올린과 비올라 파트의 명 교수로서도 인정받고 있는 장중진은 현재 미국 럿거스 대학교의 메이슨 그로스 예술학교와 템플대학교 음악대학 예비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From 라틴 아메리카 & 'Missa Criolla'

4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인 2색 무대로 2011년 첫 무대를 연 부산시립합창단이 4월 라틴 아메리카의 낭만과 열정을 담은 'From 라틴 아메리카 & Missa Criolla'로 음악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기존의 정통 클래식 범주를 넘어 리듬과 화려한 박자들이 어우러지는 남미 음악여행을 떠나는 이번 무대는 1부에서는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의 노래들을, 2부에서는 클래식 기타와 타악기가 어우러지는 '미사 크리오야'가 무대에 올려진다.

1963년 현대작곡가 아리엘 라미레즈가 작곡한 '미사 크리오야'는 아르헨티나 민속음악, 히스패닉계 아메리칸 토속 형식과 리듬 등이 잘 조화된 곡으로 짧은 시간에 제 3세계 미사의 대표작으로 부상한 곡이다.

제목에 사용된 '크리올'이란 백인과 흑인의 혼혈을 뜻한다. 합창단, 독창자, 오르간 혹은 피아노, 다양한 라틴 아메리카 타악기로 연주

되는 이 곡은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 데이 등 미사의 전통적 구성을 따르면서도 안데스 민속음악, 고원지대의 인디오 춤곡, 아르헨티나 민속음악 등을 채택했다. 원래 아르헨티나 여가수 메르세데스 소사의 노래로 유명했는데 호세 카레라스가 부르면서 클래식의 영역에서도 큰 환영을 받게 되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웅장한 합창과 단원들의 솔로로 '미사 크리오야'와 라틴 아메리카의 흥겨움이 묻어나는 남미 음악여행을 떠난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이재원의 솔로,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콘트라베이스 주자 박성진, 타악기 주자 이준희, 이성은, 박계리가 '미사 크리오야'의 감동을 함께 전한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1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클래식이 보인다 II - 그림 속의 클래식

그림으로 보는 음악사, 음악으로 듣는 미술사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이동신



정준호



백재진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한낮의 음악선물 웰빙콘서트 2011년 무대 클래식이 보인다 II - 그림 속의 클래식 '그림으로 보는 음악사, 음악으로 듣는 미술사'가 4월 2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미술 관련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악 칼럼니스트 정준호의 해설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미술사와 음악사를 비교하면서 시대 및 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별한 무대이다.

해설자 정준호는 2007년 4월부터 KBS 클래식FM 'FM실황음악' 진행자로 활동해 클래식 음악팬들과는 친숙하다. 2010 KBS '바른 언어상'을 수상하기도 한 정준호는 '말이 먼저 음악이 먼저' '스트라빈스키-현대 음악의 차르' '이젠하임 가는 길'을 출간하고 '정준호의 클래식 순례' 시리즈를 진행 중이다.

첫 무대는 샤르팡티에의 유명한 '테 데움'으로 연다. '테 데움(Te Deum)'이란 '주여, 우리는 당신을 찬미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가장 오래된 찬미가 중 하나다. 샤르팡티에는 모두 4개의 테 데움을 작곡했는데, 이 곡은 전곡을 통해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고 트럼펫과 팀파니가 불러일으키는 힘과 박력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무

대에서는 1692년 프랑스가 독일군을 상대로 한 슈타인부르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곡되었다고 전해지는 전주곡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천부적인 멜로디 감각과 화려한 음악언어를 가지고 새로운 형식의 영국 오라토리오에 도전한 헨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3막 중에 나오는 유명한 기악곡 '시바 여왕의 도착'. 오라토리오 '솔로몬'은 현재 거의 연주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바 여왕의 도착을 묘사한 이 음악은 독립된 소품으로 편곡되어 자주 연주되고 있다.

이어 교향곡 44번 슬픔, 45번 고별, 48번 마리아 테레지아와 함께 하이든의 질풍노도 교향곡으로 격정과 우수를 충실하게 담아낸 하이든 교향곡 제 49번 '수난', 모차르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을 위한 협주교향곡'과 베토벤 '바이올린을 위한 로망스 제 2번', 브람스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내림나장조'로 동시대를 반영한 그림 속의 클래식 음악을 만난다.

특히 파리풍의 우아하고 풍성한 울림으로 가득 찬 모차르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을 위한 협주교향곡'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류재환, 정우영, 윤태준, 막심 멜니코프 등 수석, 부수석 단원들이 협연자로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준다.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특징을 살린 베토벤 '바이올린을 위한 로망스 제 2번'은 풍부한 감성과 학구적인 연구자세로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의대학교 백재진의 교수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 입장권 |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음악이 흐르는 문화예술도시 부산을 꿈꾼다 부산음악협회 신임 회장 최삼화

“1,100여명의 회원을 둔 부산음악협회 회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회장직을 맡으면서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부산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음악협회에서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대학교 최삼화 교수가 지난 1월 부산의 음악인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이하 부산음악협회)’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어 제 13대 회장으로 취임해 분주한 봄을 맞았다.

2011년은 최삼화 회장이 몸담고 있는 동의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장의 보직을 맡아 이래저래 일복이 많은 해다. 3월 부산음악협회가 주최하는 '신춘음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면서 최삼화 회장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음악협회는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타악, 작곡, 국악, 음악학술, 비평, 지휘, 합창, 사회 음악 등 11개 분야에 분과를 두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각 단위 분과와 회원들 간의 정보공유와 권익신장, 유대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작곡가협회와 부산음악교육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최삼화 회장은 부산 음악계 사정에 누구보다 밝다.

최삼화 회장은 3년 임기 중 모든 회원의 역량을 모아 창작음악의 행사(가칭:부산음악제)를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다. “음악에 있어서 창작이란 장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양음악의 역사가 창작음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 2의 도시라는 부산에서 내어 놓을만한 창작음악 행사 상품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삼화 회장은 이러한 창작음악 행사가 성악, 기악, 관현악 등 음악의 모든 파트 공연 문화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음악제' 개최에 기대가 크다. 특히 음악의 창작활동은 문학, 그림이라는 장르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의 종합체'라고 강조하는 최삼화 회장은 부산이라는 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 상품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음악제 구상이 한창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만큼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특색 있는 음악제의 출발은 문화도시 부산을 가꾸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삼화 회장은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굳이 '국제'적인 행사로 출발하지 않더라도 세계가 주목하는 음악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산음악제 구상 외 기존 부산음악협회 2011년 사업은 예년과 같이 진행된다. 전체 사업의 정신과 방향성은 부산 시민에 초점을 맞추어 부산음악협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사로 꾸려 나갈 예정이다. 올해 이루어지는 협회 행사들은 기획, 평가팀을 구성, 자체 평가와 분석을 거쳐 행사의 변혁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음악협회의 모든 행사들은 모든 음악인들이 하나가 되는 결집을 통해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부산음악협회가 모태가 되어 시작된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모든 음악인들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 음악예술의 방향성이 회원들을 통해 나오는 만큼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최삼화 회장은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지난 3월 부산 문화 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부산예술회관이 준공되면서 부산음악협회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기게 되어 협회의 분위기도 한결 새로워졌다.

예술회관 내에 공연장이 생겨 문화예술인의 한사람으로 무척 기쁘다는 최삼화 회장은 현재의 공연장이 음악공연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음악공연 환경을 조성해 부산예술회관의 특성을 살려 순수 예술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음악협회 전 회원들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도시 부산'을 일구어가는 데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2011년 새롭게 출범하는 최삼화 號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새로운 봄의 기운이 음악과 함께 널리 퍼지기를 소망하는 최삼화 회장. 그의 열정과 소망을 담은 향긋한 봄바람이 모두를 즐겁게 한다.

보리가 주는 푸른 희망이 있어

글·사진 정일근_시인, 경남대학교 교수



4월로 난 은현리 보리밭을 걸어갑니다.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뉘이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로 시작되는 가곡 ‘보리밭’을 흥얼거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오래지 않아 청보리가 바람에 넘실거리고 보리누름 시절이 올 것이라 생각하면 가슴이 뻘뻘하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리밭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언제부터 보릿고개를 다 넘어버려 쌀도 남아도는 이 나라에서 보리밭은 이제는 보기 힘든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리밭을 보면 보리라는 말에 담긴 뜻을 생각합니다. 보리를 뜻하는 한자는 麥(맥)이지만 저는 보리를 범어(梵語)인 보리(菩提)로 생각합니다.

불교용어인 보리는 ‘불교에서 수행 결과 얻어지는 깨달음의 지혜 또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수도 과정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보리는 각(覺)·지(智)·지(知)·도(道)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달마대사는 보리달마라도 불립니다.

그러니 보리밭은 부처를 모신 가람(절)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싼 땅에 돈이 안 되는 보리를 심는 일은 절 한 채를 지어 공양하는 일이며 또한 자비입니다. 보리를 심는 일, 정말 큰 발심이 아닙니다.

저는 보리밭에 나오는 보리는 보리쌀이 아니라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보리는 보리살타(菩提薩陀)의 준말입니다. 보살은 불타정각의 지혜를 말하는 무상보리를 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보리밭은 부처를 모신 가람이고, 보리는 깨달음이며, 그 씨앗은 보살입니다. 물론 저의 억지해석이지만 보리밭이 그만큼 소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현리에서도 보리밭 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러다 다음 세대에는 보리가 귀한 곡식이 아니라 청보리밭 축제에서 보는 푸른 것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리밭이 없으면 겨울에 푸르게 살아있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나무도 꽃도 긴 겨울잠을 잘 때 그 축고 언 땅에서 생명의 힘을 보리는 보여줍니다. 그 힘이 겨울이 나게 하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보리밭기를 하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여 퐁퐁 언 보리밭을 밟았습니다. 겨울 보리는 밟아줘야 힘차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고난스럽다 해도 보리를 생각하십시오. 그 고난을 당신이 밟고 일어서 푸른 청보리밭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보리, 인간이 절해야 하는 희망의 이름입니다.

보리가 넘실거릴 때 당신을 모셔 '보리밭'을 힘차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보리부처

정일근

보리밭 같은 좋은 가람伽藍이 있으라
이제는 금싸라기가 된 귀한 땅에
보리씨 뿌리는 손도 거룩한 손이지만
망종芒種 무렵 스스로 익어가는 황금보리를 보면
나는 저 보리부처에게 오체투지 올린다
추운 겨울 언 땅에 묻혀서
얼음 열고 눈 덮이는 혹독한 시간에 싹 피워
겨울 이기고 봄을 몰고 오는 푸른 보리
세상 모든 것이 먹지 못하는 어린 풋것일 때
가난한 흥부네 집에 배고픈 뒤주 텅텅 비었을 때
봄 햇살 불러 제 살에 붙 놓아 피와 뼈까지 태워
그 몸 다 내어주는 황금보리
좋은 시간에 찾아오는 다른 씨앗을 위해
제 영토 다 내주고 뿌리는 거름되는 저 보리菩提
땅값 올라 배부른 나라의 백성은
쌀도 귀찮고 보리는 벌써 잊어버렸는데
땅 놀리는 일이 죄인 것을 아는 자비의 손이 있어
한 마지기 반 마지기 공양한 가람을 만나면
절도 중도 다 떠나고 부처만 남은 보리밭을 만나면
보리심菩提心 보리심 무릎 꿇고 절을 올린다



그림 같은 춤, 춤 같은 그림
화가 세라 올슨과
안무가 코리 크레스그의 만남

장은혜_뉴욕통신원, Brough of Manhattan Community College Theater Major

부산에는 이제 봄 소식이 한창일 텐데, 지난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는 생각이 든다. 봄맞이 준비를 하면서 겨울에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중 이곳 뉴욕에 와서 처음으로 접한 특별한 무용공연이 있어 소개한다.

2010년 마지막 겨울과 2011년 시작의 겨울은 유난히 많이 내린 눈 때문에 한 달 넘게 뉴욕 전체가 온통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2010년 겨울 한 달간을 공연 때문에 따뜻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내다 다시 뉴욕에서 2011년 겨울을 시작하려 하니 눈길 위를 넘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걷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학교도 방학이고 일도 느슨하게 하고 있는 터라 집에만 틀어박혀 뒹굴 거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였다. 아침부터 요란한 문자소리가 마시던 커피 잔을 내려놓게 만든다. 공연초대 문자이다. 분명 단체문자이다. 하지만 인터넷도 느려지고 공연소식용 신문을 구하러 맨하탄 나가기가 귀찮았던 나에게는 은근히 반가운 문자였다.

한편으로는 눈발을 헤치며 언제 올지 모르는 지하철, 그리고 언제 몇 시간씩 지하철에서 갇혀있게 될지 모르는 뉴욕의 폭설이 나의 행동을 아주 신중하게 하였다. 공연에 초대해주신 고마운 분께 직접 전화를 걸어 공연에 대해 간단히 물어보니 퍼포먼스 장소는 갤러리이고 무용가가 춤을 추는 동안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아니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무용가가 춤을 춘다고 해야 하나? 어쨌던 다른 분야의 두 명의 아티스트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춤을 그림처럼, 그림을 춤처럼 만드는 것 같아 폭설로 인한 예상치 못할 사고를 각오하며 몇 시간 일찍 서둘러 공연장인 갤러리로 갔다.

갤러리는 정사각형이었고 4개의 벽에는 사진, 그림 조각 등 이것저것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퍼포먼스와는 그다지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공연을 보는 관객은 일반적인 프레임 무대를 보는 것처럼 모두들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무대라기보다는 30센티미터 높이, 가로 10미터 정도 되는 단상 위에서 무용수가 아닌 화가 세라 올슨이 그림을 그리고 무용수이자 안무자인 코리 크레스그는 관객과 같은 바닥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무용수를 위한 관객과 그녀의 공간은 야광색 테이프로 잘 그어져 있었지만 무용수는 그 선을 넘어 여기저기 바닥에 앉아있던 관객들 사이사이를 종횡무진하면서 춤을 추었다. 그녀 춤의 디렉션에 의해 관객석은 다시 만들어지는 듯 했다. 유난히 가까웠던 무용수 코리와 관객의 거리는 공연예술의 특징인



시간과 공간 예술에 대해 한 번 더 느끼게 해주었다. 이번 공연 중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그림을 시공간 예술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작가가 그림을 마친 뒤에는 그림만 덩그러니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그림 외에 그들이 그려왔던 공간이나 시간이 예술이 되기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세라의 하얀 도화지는 무용의 움직임과 함께 시작하여 무용의 움직임과 끝난다. 기존의 그림 과정과는 다르지만 그림에 관심이 많은 필자로서는 흥미 있는 발견이 아닐 수 없다. 낙서와도 같은 그녀의 그림은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인식시키면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그려졌던 그림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른다. 무용과 그림 둘 다 시각예술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용은 몸속에 흔적이 남고 그림은 종이에 흔적이 남는데 남는 형태는 다르다. 그림을 무용처럼 관객들과 시공간을 함께 한 것은 새로운 장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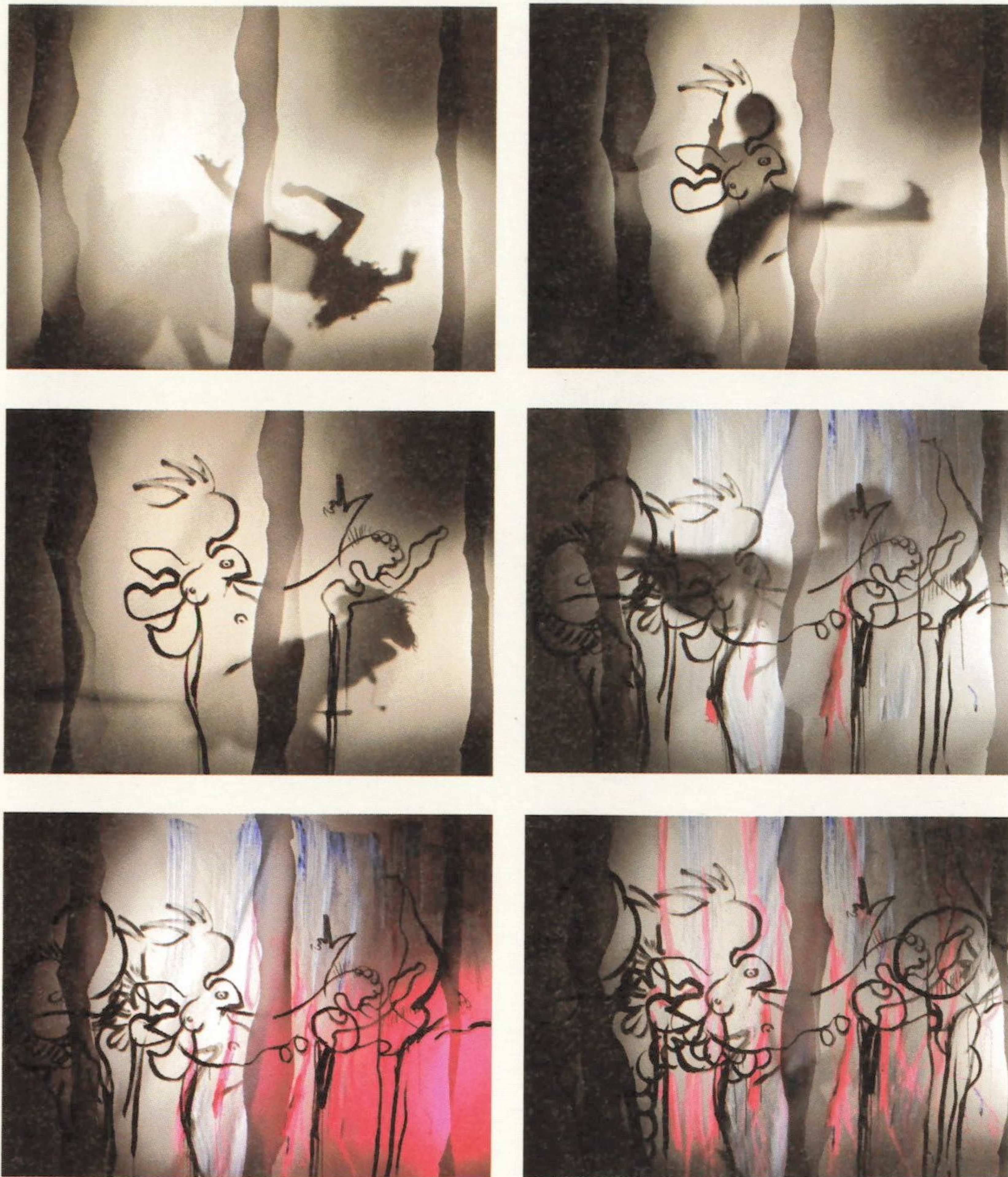


만들기 위한 실험공연이기보다 기존 장르에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실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표현형식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번 공연은 소극장도 아닌 대극장도 아닌 맨하탄 중심가 '24 da 갤러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은 여기저기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그림 같은 춤, 춤 같은 그림을 자기의 방식대로 관람하는 듯했다.

화폭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무대와 빛과 색채로 번져나가는 동안 몽환적인 데이비드 브랏의 음악과 거기에 나뭇잎처럼 춤추는 무용수, 그리고 릭 멘지의 동화와의 같은 나레이션은 마치 한낮에 꿈을 꾸는 듯한 퍼포먼스로 색과 형태로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술과 춤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역동, 언어가 없는 문학으로 도시인의 소외와 일그러진 문명의 비판, 허무한 세대로서의 자연의 회귀를 새로운 형태의 공연 예술로 훌륭히 표현하였다 할 수 있겠다. 세라 올슨과 코리 크레스그는 그들의 공동 작품을 많은 호응과 갈채로 전시회이자 실험 공연이기도 한 이날의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다.

그저 하얗기만 한 하얀 큰 도화지 위에다 비주얼 아티스트 세라는 코리의 동작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선을 만들어 냈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그림들은 마치 내 어릴 적 나쁜 어른을 보고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 형태이기도 했다. 정면의 모습보단 머리가 크고 코도 크고 머리에 삐죽거리는 듯 한 큰 뿔들... 그리고 그림의 배경인 여러 선들. 선들은 아래에서 위로 거칠게 내려갔고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다가 부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고 다시 부드럽게 그어졌다.

이쯤에서 코리의 안무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안무가 코리의 전반적인 동작들은 마치 파괴되고 있는 자연에서 동물들의 고통스러워하고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듯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였다. 시원스럽게 들어 올리지만 구부러져 있는 무릎은 마치 야생말이 무언가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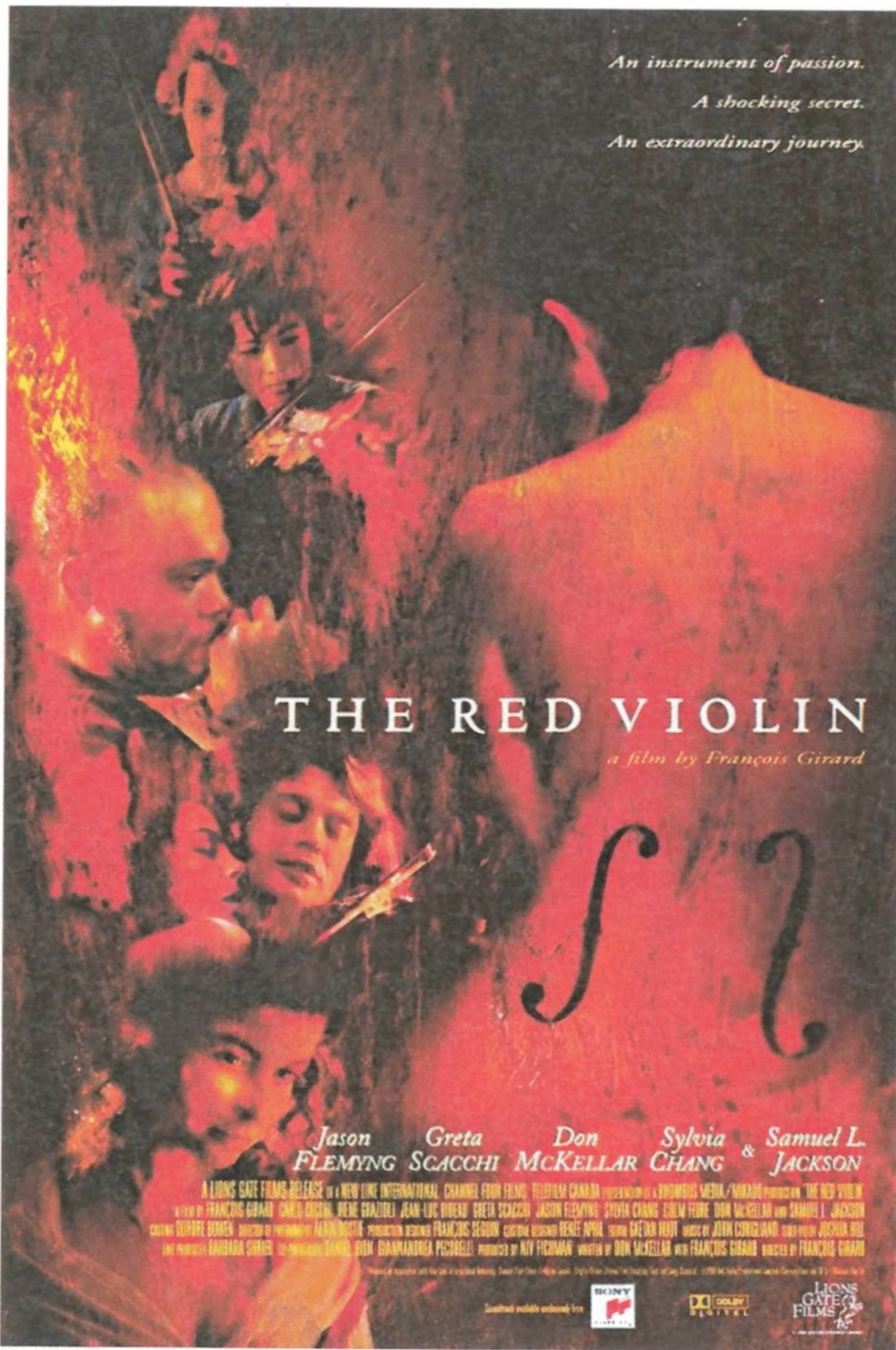
고 놀라는 듯 하고 하늘위로 치켜들면서 꼬아 올린 팔, 그리고 바닥에 붙여져 있는 머리와 상체는 죽어가는 곤충들을 연상하게 하였다. 그녀는 춤을 추는 내내 가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관객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칠고 힘든 소리를 내뿜었다. 마치 죽어가는 생명체처럼... 그 마스크는 인간과 동물들이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생존의 본능을 표현하는 듯 했다. 발레와 현대무용의 테크닉을 응용하였지만 발레처럼 너무 아름답지도 일반 현대무용처럼 너무 추상적이지도 너무 표현적이지도 않은 안무였다.

이 흥미로운 가스 마스크는 새의 깃털과 가죽으로 제작된 곤충의 머리처럼 보이는 가스 마스크로 가혹한 도시환경과 대중의 폭력,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절규를 유머러스하게 역설적 해석을 제시해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을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없는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실험적이고 참신한 이들 젊은 작가들의 조용하지만 적나라한 시대 비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안이 없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연약하지만 본능적인 생명력으로 극복하려는 개인을 회화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세대를 사는 모든 이에게 '무엇을 위해' 라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레드 바이올린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장인의 손에 의해 제작된 붉은색 바이올린과 연결된 사람들의 운명과 사랑, 그리고 비밀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펼쳐지는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 '레드 바이올린'

영화 <레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 주인공인 영화이다. 어느 장인의 손에 의해 제작되어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친 붉은색 바이올린의 일대기이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바이올린을 매개로 연결된 사람들의 삶이 다섯 개의 에피소드로 꾸며진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이다. '레드 바이올린' 과 연결된 사람들의 운명과 사랑, 그리고 비밀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펼쳐지는 이색적인 작품이다.

17세기 이탈리아의 크레모나. 바이올린 장인 니콜로 부조티는 필생의 역작을 만들고 그것을 곧 태어날 아기에게 선물하고 싶어 하지만 아내인 안나는 불안에 사로잡혀있다. 만삭의 몸으로 점쟁이로부터 자신의 운명에 대한 끔찍한 예언을 들은 것이다. 결국 아내와 아이는 산고 끝에 죽고 부조티는 절망 속에서 아내의 혼을 담아 '레드 바이올린' 을 완성한다. 그리고 '레드 바이올린' 의 긴 여정이 시작된다.

알프스 아래 자리한 수도원. 레드 바이올린은 병약한 열 살 소년 캐스퍼에게 맡겨진다. 그는 놀라운 재능으로 인해 궁정에 불려가게 되지만 오디션 도중에 갑작스런 심장발작으로 죽는다. 수도사들은 캐스퍼가 끔찍하게도 아끼던 바이올린을 무덤에 함께 묻어준다.

무덤에서 파헤쳐져 다시 세상으로 나온 레드 바이올린은 열정적이며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포프의 손에 들어간다. 그러나 포프의 외도를 목격한 그의 아내는 바이올린을 훼손하고 포프는 자살한다. 이제 레드 바이올린은 그의 시종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간다.

서양사상을 배운 사람은 숙청을 당하고 서양악기들은 불태워지던 20세기 중국의 문화혁명기. 상 페이는 바이올리니스트인 어머니에게서 레드 바이올린을 선물 받지만 혁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음악 선생에게 맡긴다. 그리고 몇 십 년 후 바이올린이 가득한 다락방에서 음악 선생은 숨을 거두고 그가 간직했던 바이올린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1999년 몬트리올의 한 경매장에 중국에서 의뢰한 바이올린들이 들



어온다. 감정인 찰스는 그 중에서 부조티의 작품으로 보이는 레드 바이올린을 발견한다. 치밀한 감정 끝에 찰스는 그 바이올린이 진품임을 알게 된다. 레드 바이올린의 완벽함에 감명을 받은 찰스는 그 완벽함의 비밀을 캐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의뢰하는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

제 11회 동경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과 제 72회 아카데미상 작곡상 수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레드 바이올린과 부조티, 그의 아내 안나, 점쟁이의 예언, 그리고 300년간의 세월동안 바이올린을 거쳐 간 사람들의 삶이 잘 어우러져있다. 에피소드 중간에 안나의 운명에 대한 점쟁이의 말이 들어가면서 바이올린은 그녀의 삶을 상징한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악기 감정인이 '레드 바이올린'을 훔쳐 자신의 딸에게 준다는 설정은 영화의 도입부에서 태어날 아이에게 주기위해 바이올린을 만든 부조티와 안나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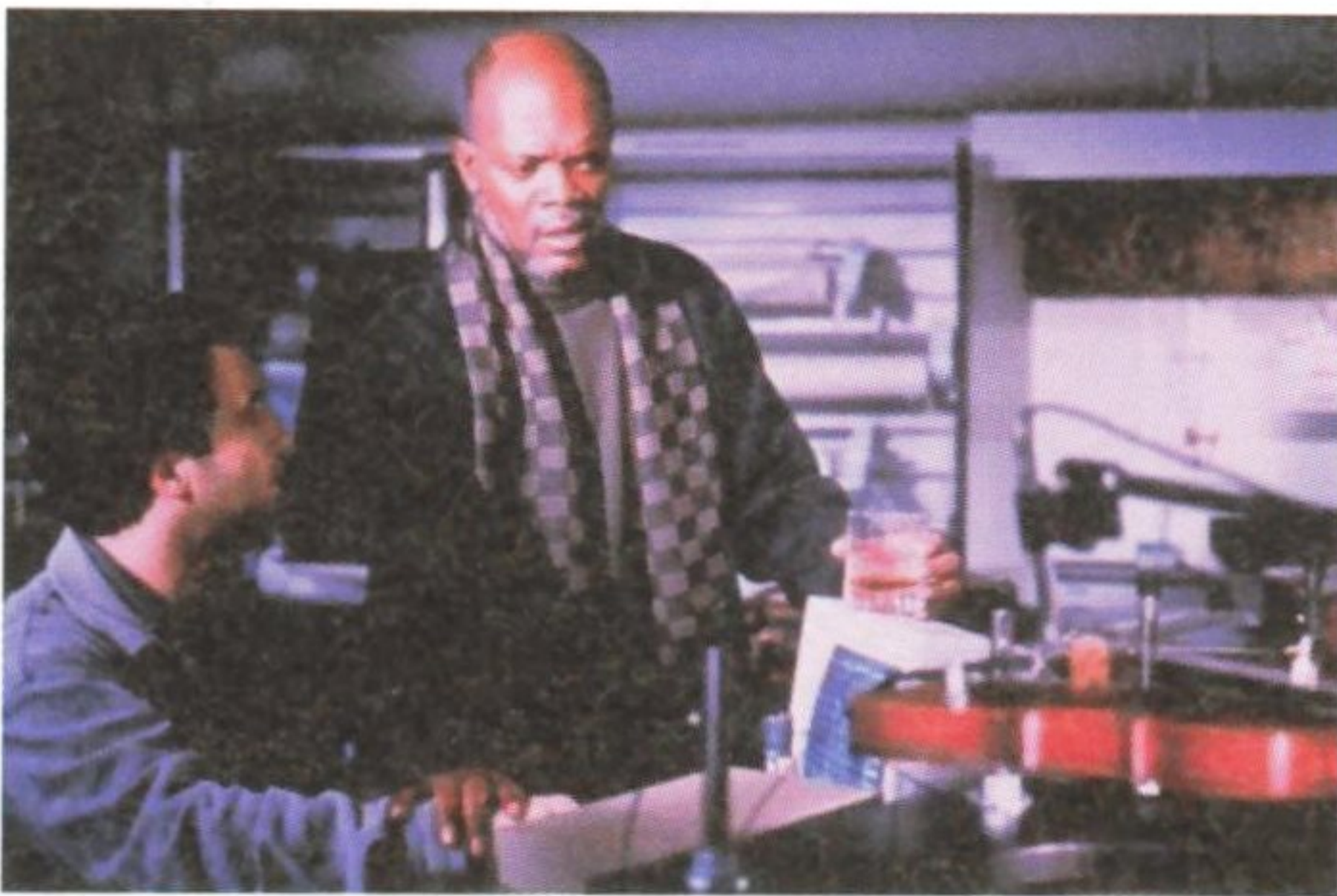
각 에피소드 속에서 바이올린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는다. 캐스퍼에게 바이올린은 만난 적도 없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며, 포프한테 그것은 쾌락과 정열을 발산하는 도구이고 샹 페이에게는 혁명의 광기 속에서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데뷔작 <글렌 굴드에 대한 32개의 이야기>로 클래식 음악과 연주가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준 캐나다 출신의 감독 프랑소와 지라

르가 연출했으며 바이올린의 여정을 따라 캐나다에서 시작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중국의 5개국에서 2년 6개월 동안 제작하여 세트에서는 결코 표현해 낼 수 없는 각 나라의 분위기와 문화적인 영향력을 고스란히 살려낸다. 감독과 연출자들은 각각의 인물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언어들 이 영화에서 그대로 표현되길 원했다고 한다. 감독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영화는 시간과 공간의 여행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의 여행이다. 영국에서 영화를 모두 촬영하고 영어를 쓰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언어와 장소는 문화에 결정적인 것이다. 그 문화권의 언어만이 영화의 분위기를 살리기에 가장 적합하고 그 문화의 분위기는 몇 세기가 흘렀건 그 문화권에서 가장 잘 살아난다고 판단했고 그것은 적중했다.”

‘레드 바이올린’이라는 상상의 걸작에서 출발해 3세기에 걸친 스펙터클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감독은 재료, 원리, 역사 등 바이올린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공부했으며 전 세계에 산재해있는 음악에 관한 일화들을 수집했고 잃어버린 악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긁어모아 영화의 오락성과 작품성을 높였다. 또한 세계적인 작곡가 존 코릴리아노가 음악을 작곡했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연주를 맡아 음악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완성도를 성취한 불만한 음악영화이다.



‘레드 바이올린’은 세계적인 작곡가 존 코릴리아노가 작곡했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연주를 맡아 음악적으로 매우 뛰어난 완성도를 성취한 음악영화이다.



리스트의 유 · 청년기 젊은 날의 영광 좌절 · 방황 · 탐구 그리고 사랑

황윤하_한국리스트협회 회장

리스트는 1811년 헝가리에서 에스텔하지 후작에게 토지(재산) 관리인으로 종사하던 아담 리스트의 아들로 태어났다. 에스텔하지 후작은 예술 애호가로서 궁에 음악인들을 많이 초 대하였고 하이든이 전속 작곡가로 종사한 적도 있다. 아버지는 아마추어 음악인으로 후작 의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했었고 피아노를 잘 쳤다. 아버지는 자신이 젊은 시절 수 습 수도사로 2년간 헌신한 적이 있을 정도로 종교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생 음악 을 동경하고 음악인으로 불리기를 희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리스트는 6세경부터 아버지의 피아노 연주에 관심을 보였으며 헝가리 집시음악과 종교음악에 흥미를 보였다. 평생 계속되었던 리스트의 강한 종교적 감 성이 이때부터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리스트는 7세부터 아버지로부터 피아노 교습을 받게 되었는데 곧 눈부신 발전을 보여 8세에는 간단한 곡을 작곡하기 시작하였고 연주회 도 하였다.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어린 리스트의 연주를 들은 헝가리의 지방 유력 인사들이 이 천재 소년의 음악교육을 위해 유학 자금으로 상당한 금액의 장학금을 마련해 주었다.

1821년 리스트는 오스트리아의 비인으로 가서 체르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당시 궁정 약장이었던 살리에리에게 작곡을 배웠다. 1822년 성공적인 연주회를 가진 후 비인의 귀족 사교계에 소개 된 리스트는 여기에서 베토벤과 슈베르트를 만난다. 1823년 4월 비인에서 2번째 연주회를 하였는데 이때 베토벤이 리스트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고 한다. 훗날 그는 이 일을 예술적인 세례를 받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1823년 그의 나이 12세 때 파리로 이주하게 된다. 파리 음악원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었으나 라이하(Reicha)로부터 음악 이론과 파에르(Paer)로부터 작곡을 수 업했다. 1826년 당시에도 영국 방문을 비롯해 프랑스의 여러 지방에서 연주회를 성공적으 로 가졌다.

1827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리스트는 연주 여행을 접고 파리로 돌아와 어머니 와 함께 가계를 꾸리게 된다. 파리에서는 생계로 피아노 교습을 하였는데 리스트의 제자 중 카롤린 생크릭이란 동년배의 귀족 여학생과 사랑에 빠졌으나 학생의 아버지 생크릭 백 작의 반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1828). 두 젊은 남녀는 심한 열병을 앓게 되는데 리스트 는 의욕을 잃고 두문불출하는가 하면 성당에서 살다시피 하며 차가운 돌바닥에 장시간 엎 드려 있곤 하였다. 파리의 신문에 '젊은 신동 피아니스트 리스트 사망하다' 라는 오보기사 가 나올 정도였다. 리스트는 이때 사제가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보이나 고해를 받았던 바르딘 신부와 어머니의 설득으로 포기하게 된다.

당시 성당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던 벨지움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우르한을 만나 교류하 게 되는데 그는 그때까지 비인 고전주의 영향 하에 있던 리스트에게 낭만주의 음악의 성향 을 전해 주었으며 슈베르트 음악의 숭배자로서 많은 슈베르트의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한

동안 리스트는 공상적 사회주의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생시몽주의자들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기도 한다. 또 리스트는 당시 프랑스에서 활발한 저술 활동과 개혁 운동을 하던 라메네즈 신부를 만나는데 1834년 여름 대부분을 그가 은퇴하여 거주하고 있던 브레타뉴의 저택에 머물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영적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라메네즈 신부는 리스트의 정신적 지도자로 계속 관계를 맺는다. 이 시기 리스트는 종교, 문학, 예술 등 많은 분야의 책에 탐닉하였으며 파리를 근거로 활동하던 위고, 라마르틴, 하이네, 상드 등 유명 낭만주의 문인, 예술가들과 교류하였다. 젊은 날 리스트의 이러한 끊임없는 탐구와 많은 독서, 문학인, 예술인들과의 교류는 리스트의 폭넓은 음악세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작품들은 이제 화려한 피아니스트이자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10대 소년의 창작물들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 음악인들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1830년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발표 전후로 베를리오즈를 만나 강한 인상을 받았다. 리스트의 피아노 작품 <오베르만의 계곡> 최초 형태들이나 <단테 소나타> 등에서 볼 수 있는 악마적 성향의 표현에서도 그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20세경(1831년) 바이올린의 명인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게 되는데 이때 그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초절적 기교 연주에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에서 보여주는 환상적인 명인 기교 효과를 피아노에도 적용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미 완벽한 피아노 기교를 갖춘 그였지만 새로운 표현과 음향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기교를 연구하고 장시간 연습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6곡의 <파가니니 대연습곡집(1838)> 초판이나 12곡의 <초절기교 연습곡집(1838)> 2판을 작곡하였는데 처음 이 곡들은 기교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오직 리스트만이 연주해낼 수 있었고 당대의 최상급 피아니스트들도 연주할 수 없었다고 한다. 훗날 리스트는 40세경(1851)에 이 작품들을 대폭 단순화하여 오늘날 연주되는 형태의 개정판으로 만든다. 또 리스트는 쇼팽의 전기를 쓸 정도로 쇼팽의 음악과 연주에 대해 항상 존경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며 그의 영향으로 시적이고 낭만적인 성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1834년 <시적이고 종교적인 선율(Harmonies poetiques et religieuses, 훗날 같은 이름의 모음곡이 아닌 단일곡)>과 환영(Apparitions)을 썼는데 이 두곡 모두 시적이고 한층 성숙되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이전의 작품들(환상곡들)에서 볼 수 있었던 화려함과 대비된다.

1833년 프랑스의 살롱 사교계에서 조르주 상드, 마리 다구 백작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21세의 리스트는 곧 재기 넘치고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6세 연상의 다구 부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급기야 1835년 다구 백작부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과 가족을 떠나 스위스 제네바로 가 리스트와 동거에 들어간다. 그해 12월 첫째 딸 블란딘이 태어나고 이들 사이에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게 된다. 이후 약 4년간 이들은 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에 거주하며 이따금씩 파리에 들러 연주를 하기도 하였다. 다구 부인과 함께 스위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지내며 풍경과 문화를 담아 리스트는 연작 피아노곡인 <순례연보 1년 스위스>와 <순례연보 2년 이탈리아>를 작곡하고 이어 <베네치아와 나폴리>를 작곡한다.

많은 곡을 작곡한 리스트의 작품목록에 있는 700여곡들(실제로는 두 배 이상 작곡) 중 절반 이상이 피아노곡들인데, 초년기에는 거의 피아노곡들을 작곡했다.



마리 다구 백작부인

단원도(檀園圖)

변광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단원도〉그림(전체)

멀리서 보면 소담스런 초옥에 소나무·개오동나무·버들로 둘러싸인 정갈한 곳이 한눈에 보인다. 마당 안을 들여다 보니 연꽃이 활짝핀 연못과 아름다운 괴석이 있고, 옆에는 처진 고목가지를 받치기 위해 나무기둥을 운치있게 세워놓았다. 마치 고찰의 활주 같다. 문밖에는 노새를 세워놓고 마부가 앉아 기다리고 있다. 그림 위쪽 제화시(題畫詩) 첫구절의 ‘금성동반혈건려(錦城東畔歇蹇驢: 금성산 동쪽물가에 지친 노새를 쉬게하고)’에서 보듯이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금성산 일대임을 알 수 있다. 금성산은 요즘 도심공동체로 주목받고 있는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미산의 원래 이름인데, 마치 산이 성(城)같이 둘러있어 줄여서 성산이라고도 이름 붙여졌다. 겸재(謙齋) 정선(鄭敼:1676~1759)의 작품에도 한강 모래벌을 그린 금성평사(錦城平沙) 그림이 있다.

마루에는 사람들이 우아한 모임을 하고있다. 세명의 선비와 지필묵 및 거문고와 술이 보인다. 옆에는 심부름을 기다리는 아이가 서있다. 문인화풍이 느껴지는 단원의 작품이다. “때는 1781년 4월 1일. 뜰의 나무에 햇살이 따스하고 만물이 화창하니 나는 거문고를 타고 경운(강희언의 자)은 술잔을 권하며 선생께서 어른이 되어 주도하심으로써 진솔한 모임이 되었네.”(時辛丑之淸和節也 日暖園林 萬化方暢 余鳴琴 姜澹拙景運佐酒 先生登壇執耳 因成真率會)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시를 읊조리는 선생이 창해(滄海) 정란(鄭瀾:1725~1791)이다. 앞부분의 제화시를 썼다. 시조에 맞추어 단원이 거문고를 타고 있다. 창해에게 눈과 귀를 맞기고는 그윽하게 가락을 통긴다. 마침이 순간에 학이 날아와 마당에 내렸다. 뒤쪽에 기대앉아 부채를 들고 넉넉히 감상하고 있는 사람은 그림으로 뜻을 같이하는 담拙(澹拙) 강희언(姜熙彦:1738~1782)이다. 그는 역관신분으로 통신사행의 일원이 되어 일본에 다녀온 여행시인 완암(浣巖) 정내교(鄭來僑:1681~1757)의 외손이며, 단원과 함께 여러 화가들을 집에 초청하여 자주 그림을 그린 바 있다.

〈단원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안엔 서책이 쌓여있고 옆에는 화병, 벽에는 비파(琵琶)가 걸려 있다. 평소 단원이 가까이 두던 소품들이다. 단원의 자화상인 〈포의풍류도〉에 보면 자신이 비파를 연주하고 방바닥에 생황(笙簧)이 놓여있는 장면이 있으며, 또 자신이 생황을 부는 그림도 있다. 이로보아 단원에게는 음악도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였다.

단원은 왕명으로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은 정조의 어진을 그린 공로로 1783년에 경상도 안기찰방(安奇察訪)이 되었다. 찰방은 각도의 역참(驛站)을 관리

하는 종6품의 지방관 벼슬이다. 역리(驛吏)를 비롯한 역민의 관리, 역마보급, 사신접대 등 역참의 정무책임자로서 정조가 중인신분인 화원에게 내린 파격적 대우였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청성(靑城) 성대중(成大中:1732~1809)의 <청량산기(靑涼山記)>(청성집(靑城集)권6)에 보면 단원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다.

1784년 가을 경상감사 이병모(李秉模:1742~1806)가 흥해군수 성대중을 비롯한 봉화·영양 등 고을현감들을 불러 영남의 명산인 청량산에서 풍류모임을 열었다. 인근에 근무하던 단원도 초대받았다. 산은 고요하며 달밝은 밤이었다. 바위에 앉아 통소를 잘 부는 단원에게 한 곡조 청하여 불기 시작했다. 그 곡조가 맑고 소리가 높아 숲의 가지끝을 흔드는데, 모든 소리가 숨죽이고 여운이 날아 오르는 듯하여 멀리서 들으면 반드시 신선이 학을 타고 내려온다고 할 것이다. 멀리서는 신선이요, 가까이서는 인간이라. 옛날의 신선이 바로 그를 두고 하는 말이였다.

(甲辰仲秋 按使李公行部入山 遂往從之 至靑涼寺 奉化沈倅公著 英陽金倅明鎭 河陽任倅希澤 安奇金丞弘道并來 沈倅吾久要也 金丞以國畫名 山靜月朗 散坐溪石 金丞善簫 勸之一弄 聲調靑越 上振林杪 衆籟俱息 餘韻猶颺 遠而聆之 必謂之笙鶴降也 夫惟遠之則仙 近之則人 古之所謂仙者 不過如是而已)

이렇게 최고화가 단원은 악기연주에도 그야말로 수준급이었으니 우아한 모임을 할 때마다 그의 손길에 따라 거문고 소리가 학을 부르고, 통소소리에 숲속 자연이 춤을 추는 신선세계가 펼쳐졌다.

그림속 단원의 집에서 시조를 읊던 창해는 펍 재미있는 사람이다. 단원의 제화시에 보면 창해가 백두산에 올라 변방까지 갔다가 다시 금강산에서 자신의 누추한 초옥까지 찾아왔다고 했다. 일찍이 그는 뛰어난 문장가 청천(靑泉) 신유한(申維翰:1681~1752) 문하에서 배우다가 스승이 죽자 공부를 접고 산천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자연을 배우기 시작했다. 출세와 부귀를 좇는 일반 무리와는 다른 길을 갔다. 특히 산에 오르는데 일생을 바친 여행매니아였다. 나이 서른부터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 대동강, 낙동강, 지리산까지 조선 팔도를 오르고 건너던 그였다.

문장가 혜환(惠賔) 이용휴(李用休:1708~1782)는 백두산에 오르



〈단원도〉그림(세부)

는 그를 절세의 용맹함을 가지고 단칼에 세상의 그물을 끊은 위인이라 칭찬했고, 그의 유람기에 제발(題跋)을 써주는 정성도 잊지 않았다. 또 문신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1720~1799)은 그가 세상에 구속이 없는 사람으로 천하만물이라도 여행의 즐거움과는 바꾸지 않을 사람이라고 논평했다. 결국 그는 여행을 통해 남이 얻지 못했던 또다른 삶의 의미와 자연의 이치를 터득한 인물이었다. 창해같이 무애로운 사람이 과연 지금은 있을까.

금성산 단원의 집에서 우아한 모임을 가진 지 5년째(星霜五易)가 되었다. 단원의 제화시 끝에는 1784년 12월이라 기록되어 있다. 1781년에 모인 해를 시작하여 4년째 되지만 입춘 절기를 이틀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甲辰十二月立春後二日 檀園主人金士能畫) 부채를 들고 감상하던 담졸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고, 어느 추운 겨울날 산골 누추한 안기역 객관에 단원을 만나러 홀연히 창해가 찾아왔다. 얼마나 반가운가. 단원이 보기엔 창해가 그동안 수염, 눈썹, 머리가 구름같이 하얗게 새버렸지만 그 정력은 늙었어도 쇠하지는 않아 보였다. 그런데 그 나이에 올봄엔 제주 한라산에 오르겠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장하신 일이었다. 함께 다섯 밤낮을 실컷 마시고 담소를 즐기면서 예전처럼 회포를 풀었더니 약간 슬픈 느낌을 짐짓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금성산에서의 우아한 모임을 한폭 그려서 창해선생에게 드렸다. 바로 이 <단원도>이다. 창해를 위한 그림이었다.

정말 20년의 나이를 뛰어넘어 예술을 논하며 풍류를 즐기고 자연을 닦아가는 이렇게 우아한 모임이 또 어디 있으랴.

해양도시 거제를 만날 수 있는 해양전시관

거제조선해양문화관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과 더욱 가까워진 한려수도의 중심 거제도. 거가대교 개통으로 2시간 넘게 걸리던 거제도를 이제는 50분만에 갈 수 있게 되면서 거제도를 찾는 부산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빼어난 자연절경 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 현대사의 비극을 간직한 거제포로수용소 등 역사적인 유적지가 가득한 거제도는 가족 여행지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거제도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 중심지라는 사실. 이런 해양도시 거제의 또다른 모습을 만나고 싶다면 지세포 바닷가에 자리한 거제조선해양문화관을 방문해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해양도시 거제도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조명하기 위해 문을 연 거제조선해양문화관은 우리나라 어업변천사에서부터 선박의 역사, 조선기술, 해양미래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과 체험장으로 관람객을 맞고 있다.

거제조선해양문화관은 거제어촌민속전시관과 조선해양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03년 먼저 문을 연 거제어촌민속전시관은 어촌전통과 생활, 부흥과 체험이라는 4가지 테마로,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과 영상실, 체험공간, 수족관이 들어서 있다. 우선 전시관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거제의 역사와 수산업, 사라져가는 거제의 전통민요와 설화를 소개하고 있는 '전통의 바다'와 옛 어촌의 유물 및 전통어선의 변천과정, 어촌의 하루 등을 보여주는 '생활의 바다', 가상수족관을 통한 바다의 모습과 미래형 바다도시를 보여주는 '부흥의 바다', 3D입체영상물 상영과 원형수족관을

통해 해양수산생물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바다’ 등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거제어촌민속전시관에서는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잊혀져 가는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촌의 전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촌민속 체험학교’는 어촌풍경 그리기, 전통낚시, 전통어선 모형만들기, 양식장 견학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어촌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갯벌생태학교’는 어촌가옥 만들기, 갯벌생태학습 및 체험, 전통어구 ‘지인망’ 체험 등을 통해 현대사회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자연생태체험과 더불어 우리 조상의 지혜를 배워볼 수 있다.

지난 2009년 7월 개관한 조선해양전시관은 선박의 역사에서부터 세계적인 조선기술, 해양도시로서의 발전방향 등을 보여주는 과학관으로, 선박역사관과 조선기술관, 해양미래관, 어린이조선실과 국내 최대 규모의 4D영상탐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던 배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선박전시관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배 파피루스선, 가죽배 등 사람에 의해 움직였던 선사시대부터 오늘날 동력선까지 배의 역사가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목선인 ‘창녕군 비봉리 목선’을 통해 역사적으로도 뛰어났던 우리 조선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기술관’에서는 조선소의 입지여건에서부터 시설 및 건조방식, 그리고 선박의 설계에서부터 진수까지 전 과정을 영상과 모형들 통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첨단기술인 조선산업의 모든 것을 재조명하고 있다. ‘해양미래관’에서는 미래해양도시와 해양탐사기지 건설, 해양자원 개발 등 해양의 무한한 가치를 개발, 해양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해양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4D 영상탐험관’. 국내 유일의 4D 시뮬레이터인 ‘4D 영상탐험관’에서는 위그선을 타고 거제도의 해저를 탐험하는 4D 애니메이션이 상영중이다. 직접 해저를 탐험하는 듯한 짜릿함을 실제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어린이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밖에 어린이 조선소에서는 해양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배의 기본원리와 만들기 등을 통해 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실을 마련하고 있다.

● 문 의 | 거제조선해양문화관(055-639-3410, fishing.geoje.go.kr)



‘생활의 바다’ 전시실(거제어촌민속전시관)



원형수족관(거제어촌민속전시관)



조선기술관(조선해양전시관)



4D 영상탐험관(조선해양전시관)



오랜 전통 속에 음악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콘서트 콰이어

1990년 창단 후 올해로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콘서트콰이어.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층도, 직업도 다양하지만 단원들은 노래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쳤다.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연습실이 있는 초량교회로 단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초량교회 연습실에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꽃을 피운다.

남녀 혼성합창단인 부산콘서트콰이어는 현재 3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초대지휘자 이광신 씨의 뒤를 이어 1999년부터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전상철 씨가 부산콘서트콰이어의 지휘를 맡아오고 있다.

시작은 순수 아마추어합창단에서 출발했지만 합창단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성악을 공부한 전공자들도 배출되면서 지금은 전공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은태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산콘서트콰이어 단원으로 활동한 최장수 단원이다. 그외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구명금, 최춘식, 양산시립합창단 단원 조은아, 마산시립합창단 이현지 씨 역시 부산



부산콘서트콰이어는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불우한 이웃돕기' '사랑의 나눔음악회' 등 다양한 타이틀로 매년 자선음악회를 열어왔다.



콘서트콰이어 회원이다.

부산콘서트콰이어는 요즘 4월 13일 정기연주회를 바로 앞두고 연습에 분주하다. 12회를 맞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지난해 타계한 성악가 故 김흥진 선생을 기리는 추모음악회 '그리움'으로 마련된다. 부산지역 1세대 성악가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한 김흥진 선생의 1주기를 기리는 무대로, 부산콘서트콰이어 단원들 뿐 아니라 김흥진 선생의 제자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

추모음악회는 이번 무대가 처음이 아니다. 부산콘서트콰이어를 창단했던 원년멤버이자 공연기획자로 부산음악계에 발자취를 남겼던 故 김석형 선생을 추모하는 음악회를 1주기가 되던 해인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김석형 추모음악회'는 2008년부터 잠시 중단됐으나 내년부터 다시 열 계획이다. 앞으로도 부산음악계에 흔적을 남긴 지역음악인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작업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이다.

부산콘서트콰이어는 음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합창단으로 유명하다.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불우한 이웃돕기' '사랑의 나눔음악회' 등 다양한 타이틀로 자선음악회를 가져온 부산콘서트콰이어는 공연의 수익금을 전액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화명종합복지관에서 가진 정기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복지관 무료급식소에 기부하기도 했다.

지난 2003년에는 부산의 민간합창단으로서는 최초로 오페라 '아말과 크리스마스의 밤'을 무대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메노티의 오페라 '아말과 크리스마스의 밤'은 아기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그린 성탄 오페라로, 크리스마스의 감동을 살린 작품이다. 당시에 공연의 수익금 전액을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에 전달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오페라 '아말과 크리스마스의 밤'은 지난 2005년에 크리스마스 기간에 한차례 더 공연을 가졌는데 역시 공연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내놓았다. 특히 당시 민간 합창단으로서는 어려운 오페라 제작으로 지역 음악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부산콘서트콰이어는 오는 8월 해운대문화회관 초청공연으로 두 번째 창작 오페라를 무대에 올린다.

부산콘서트콰이어는 그 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해설음악회, 세계평화 기원음악회, 여름밤의 음악여행 등 다양한 기획무대와 함께 MBC 목요일음악회, 부산합창제, 금정문화회관 수요일음악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무대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합창은 타인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어우러질 때 가장 감동적'이라는 전상철 지휘자와 부산콘서트콰이어 단원들. 2011년 지난 첫 무대의 감동을 되새기며 새로운 20년을 향한 출발선에 다시 선다.

● 문 의 | 부산콘서트콰이어(오반석 010-5555-3825, cafe.daum.net/pusancc)



창극의 재발견 창극 청

신설령_음악평론가

3월 공연소식을 살피다가 <국립창극단>의 창극 '청' 공연이 눈에 들어왔다. 공연을 택할 때 필자는 국립창극단의 창극 '청'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었다. 그러나 1930년대 조선성악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활발하게 공연되다 레퍼토리의 한계와 판소리 창자의 질적 저하로 사양길에 들어섰던 창극의 역사적 과정을 알고 있었던 터라 그 창극이 오늘날 어떻게 연행되는지 궁금했다.

전통음악에 대한 소박한 호기심으로 부산문화회관을 찾았는데, 공연을 본 소감은 한 마디로 '감동'이었다. 그 감동을 이끌어 낸 것은 음악과 아울러 각색, 무대 장치, 연출, 안무 등 모든 분야에서 문화 한류라 부를만한 문화적 내공이 쌓여 이루어낸 결과일 것이다.

창극의 시작은 오페라 공연 시 오케스트라의 서곡처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서곡이 열었다. 재미있는 것은 국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첼로와 더블베이스다. 파사칼리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저음 현악기는 때로는 피치카토도 사용하면서 리듬도 잡아주고 그렇게 국악기와 어울리고 있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언급했듯이 모든 문화의 역사는 문화적 차용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오페라 양식도, 뮤지컬의 한 요소도 우리 문화의 한 부분으로 수용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문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식 극장이 들어서고 무대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판소리가 창극으로 나아가고, 청중은 이제는 분리된 공간에서 서양 예술음악을 감상하듯 숨죽이며 감상하게 된다. 창극의 스토리 흐름을 안내하는 도창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심청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슬슬 빠져들다가, 청이 엄마 곱씨 부인의 죽

음에 이어지는 상여 행렬에 울려 나오는 소리들에 매료된다. 아내를 보내는 심봉사의 애절한 심정은 청중에게 그대로 감정 이입되어 장내는 숙연해진다. 창극 '청'에서 가장 집중도 높은 부분은 심청이 인당수 제수로 자신을 물 속에 던지는 부분일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무대는 큰 원으로 비스듬히 회전하기 시작하고 뱃사공들의 노 젓는 모습과 함께 풍랑 속의 배를 묘사하는 데서는 환상적인 장면을 보여준다. 청이 물로 뛰어들고 객석은 훌쩍거리는 소리로 화답하고 1부가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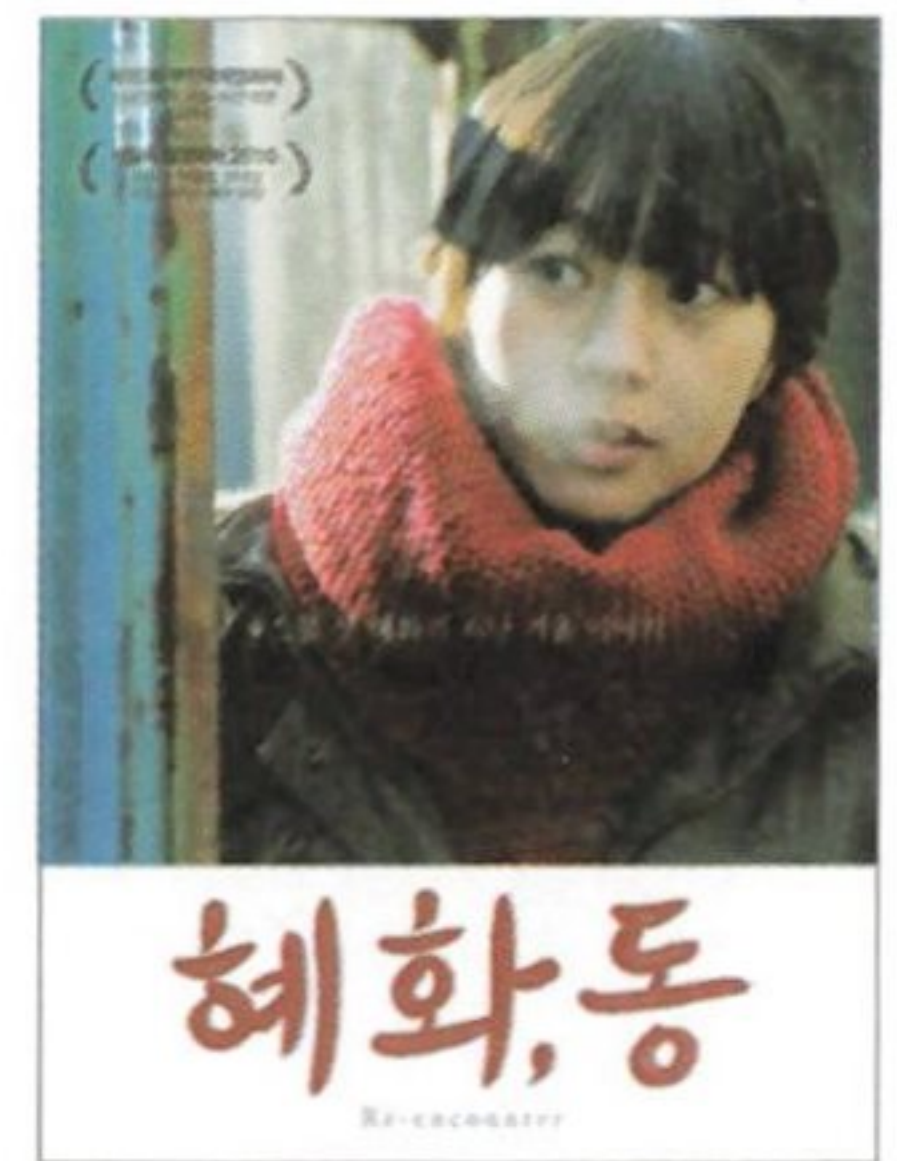
그런데 휴식시간 후 제 2부에서는 웬지 흐름이 느슨해진다. 용궁도 나오고, 임금님도 등장하고, 뺨덕 어미도 제 몫을 십이분 발휘하는데도 집중도가 떨어진다. 1부에서의 비장미에 버금가는 해학미도 부족하다. 맹인들의 장기자랑이라는 장치를 두었지만 역부족인 듯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으로 인해 창극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무엇보다 판소리 창자들에게서 비롯된 특유의 '소리'가 심금을 울린다.

뱃사공들이 부르는 '뱃노래'를 들으며 서양음악에 익숙한 필자는 러시아 남성합창단이 부르는 '불가강의 뱃노래'가 떠올랐다. 그런데 그 노래보다 이날의 뱃노래가 훨씬 강렬하다. 청이 인당수에 뛰어들기 전 부르는 노래는 오페라 자니스키키의 '오, 그리운 아버지여'보다 훨씬 더 절절하다. 아이돌 가수도 없고, 백댄서들의 화려한 춤이 없어도 청중은 몰입하고 감동한다. 합창단의 노래는 화음이 없고 유니슨으로 부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새롭게 다가온 창극의 부활에 박수를 보내며 다음 작품을 기대한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겨울에 만난 독립영화들

김희진_영화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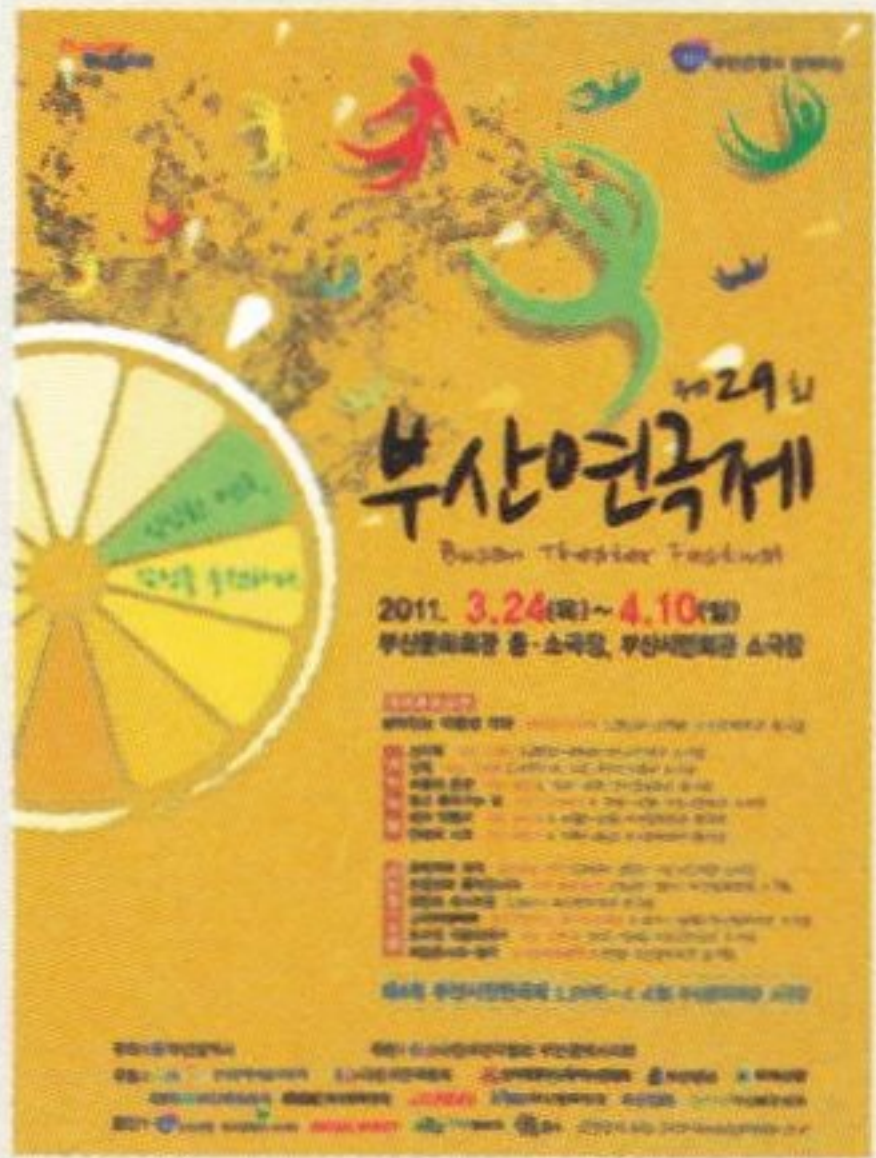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보내며 영원히 이 추위가 계속되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잊혀 간다. 혹자는 겨울이 있기에 따뜻한 봄이 반가운 것이라고 한다. 인생이란 불행과 행복의 연속, 좌절과 극복의 반복, 실패와 성공의 줄다리기를 계절이 일깨워주기에 유난한 추위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 진리인 것 같다.

독립영화 속의 겨울은 더 고통스러워 보인다. 독립영화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에 더 냉기가 돌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다 깊이 접근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힘겹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가 영화로 드러나 관객과 만날 때 희한하게도 그들의 아픔과 힘겨움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한다. 아파본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치유를 모색하듯 독립영화가 보여주는 세상은 아픔에서 출발해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보여준다. 민용근 감독의 <혜화,동>은 장편 데뷔작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제목에서 '동'은 겨울, 움직임, 화합, 변화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화의 배경인 겨울은 무채색의 풍경으로 가득하다. 5년의 시간을 반복하며 주인공들이 겪는 상실의 아픔은 메워질 수 없는 균열처럼 보인다. 생의 출발 지점에서부터 상실을 안고 살아온 아이의 삶은 상실로만 이어지는 것일까. 영화는 이 상실을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안고 극복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작별들>, 제목부터가 밝지 않은 이야기임을 암시한다. 김백준 감독이 올 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이 영화는 조선족인 어린 남매의 힘겨운 세상살이를 보여준다. 아버지를 찾으러 중국으로 가버린 어머니를 기다리며 어린 남매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공항에서

가방 속 금품을 훔치는 일이다. 여기에 산동네 이웃 오빠는 이들에게까지 돈을 뺏는다. 들관에 버려진 냉장고 속에서 죽어가는 동생과 늙고 같은 개흙을 헤쳐 나가야하는 누나의 마지막 모습은 이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작별이 찾아올지를 예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겨울의 몫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겨울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타인의 아픔들과의 작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다. 올 해 겨울 거리에서 갈 곳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이라도 보내고 싶어 제작중인 영화 <미스 진은 예쁘다>가 현재 후반작업 중이다. 장희철 감독은 노숙자들의 황량한 삶에 근심과 우려 보다는 기본적인 사람의 정을 찾아내어 그것을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 간이역에 자리를 잡은 노숙자 미스 진과 꼬맹이는 모녀 사이가 아니다. 사망자로 처리되어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동진 역시 이들과 아무런 연고가 없다. 철도 건널목을 지키는 수동은 이 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떠나버린 가족과 함께 잃어버린 유대감을 되찾는다. 삭막한 삶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관심과 애정이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듯이 이들의 행동은 모두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낙관적이다. 특히 미스 진의 건강한 삶의 태도는 노숙자가 결코 삶의 낙오자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세상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고 눈가에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영화 <미스 진은 예쁘다>는 조금 낭만적이지만 그 낭만이 겨울과 같은 현실에선 필요함을 가르쳐준다.

세 편의 겨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모두 불확실하지만 행복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인물들을 보여 주고 있다. <혜화,동>과 <미스 진은 예쁘다>의 희망과 <작별들>의 절망이 겨울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되어 우리 삶과 어우러지길 바란다.

'싱싱한 연극 감성을 충전하다'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3월 25일(금)-4월 10일(일)
>>> **중극장, 소극장, 야외무대**



부산연극인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6개 극단의 경연작품, 5개 극단의 자유 참가작품 공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 4회 부산시민연극제가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등에서 펼쳐진다.

■경연 작품

극단 세진 '여름의 문장'

4월 1일-2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모함으로 죽음을 맞게 된 주인공 허균이 겪는 부조리한 세상과의 불화를 극단적인 시각화를 통해 표현한 극단 세진의 경연 참가작 '여름의 문장'.

지난해 부산연극협회 제3회 전국창작희곡 공모전 대상작인 '여름의 문장'은 사회 개혁을 꿈꾼 허균의 생애를 마당극과 꼭두놀음으로 조화시킨 독특한 구조로 호평 받았다.

- 작/이원희 • 연출/김세진
- 출연/백길성, 정애경, 유재명, 양기원, 신동훈, 장승현, 김정원, 장민, 이현정, 이현남, 이은주 외

극단 누리에 '여자 이발사'

4월 4일-5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자신의 삶을 새로이 개척하려고 했으나 척박한 현실로 인해 이국의 갯벌에 묻히게 된 일본인 여성 에이코의 순수한 사랑과 인생에 대한 개척의지를 그린 극단 누리에 '여자 이발사'.

이데올로기를 떠나 보편적인 가치로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과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 작/김경미 • 연출/강성우
- 출연/최성희, 이창환, 김부성, 최현경, 박빈, 강봉금, 이지혜, 안재홍, 우영태, 황유나, 황정미 외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의 시대'

4월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자유연애와 사랑이 유행처럼 퍼지던 1920년대, 주체적으로 사랑과 자아를 찾기 시작하던 시대 사람들의 사랑,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그린 '연애의 시대'는 우리들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숙된 자아를 그린 작품이다. 신여성과의 연애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서울에 상경하게 된 '나'는 남녀 모두의 불꽃이 사랑이며, 모두의 불행이 사랑임을 느끼며 혼란에 빠진다.

- 작/최은영 • 연출/김지용
- 출연/최은영, 엄준필, 송준승 외

■자유참가작품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그라찌에 빠빠'

4월 6일-10일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16:00 소극장**



아버지의 큰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창작극 연구소 몽키프로젝트 뮤지컬 '그라찌에 빠빠'.

1997년 칸느그랑프리에 빛나는 이탈리아의 천재감독 로베르토 베니니의 수작 '인생은 아름다워'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어느 유대인 가장의 아들을 위한 눈물겨운 사투를 담았다.

- 작, 연출/이준하
- 출연/김효영, 임진유, 유윤주, 이지욱, 김병국, 조지혜, 박정상, 전자연, 안진희, 김다혜, 백승희, 임신호, 정상일 외

모리문화예술원 '희망콘서트-놀이'

4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관객, 무대연희자, 한국사람, 일본사람, 모두가 하나되어 진정한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희망콘서트-놀이. 100명의 난타공연, 우리나라 최고의 놀이 판굿, 피아노 연주회, 춤으로 관객과 하나되는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를 펼친다.

- 연출/정동훈
- 출연/박홍의, 전미경, 천행지, 류지연, 이나영 외

■부대행사

2011 제4회 부산시민연극제

3월 31일(목)-4월 4일(월) **오후 2:00, 3:00, 4:00**
소극장

부산 시민에게 연극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부산시민연극제.

교육기관 교사 및 학부모관련단체, 각 복지관, 시민단체, 직장 및 대학 연극관련 동아리 등 비영리 순수 아마추어 단체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 :: **관람료** 경연, 자유참가작 **균일 12,000원**
(부산시민연극제는 무료)
- ::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해외선교 후원을 위한
기드온콰이어 제 13회 정기연주회**
4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 대극장**



1994년 창단된 교회음악 전문연주단체 기드온콰이어 제 13회 정기연주회.

60여명의 남성단원들로 구성된 기드온콰이어는 그동안 미주지역 4회의 순회연주와 국내 750여회의 초청 연주회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주기도문,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 우릴 사용하소서, 마지막 날에 등 수곡

- 지휘/연명희(소명교회 음악목사)
- 반주/박정호(충렬고등학교 음악교사)
- 특별출연/소프라노 배수진,
CTS콰이어(지휘/이영임)

- :: **관람료** 초대
- :: **문의** 기드온콰이어사무국(502-7104), 정봉기단장(011-589-1107)

부산원로교향악단 제 4회 정기연주회

4월 4일 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지휘 한병함

2008년 부산 클래식 음악의 초석을 다져왔던 제 1세대 음악인과 부산시립교향악단 퇴직 단원 등 부산 지역 원로음악인들로 결성된 부산원로교향악단이 작곡가 노상현의 가곡, 베토벤 합창교향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노상현/초혼, 경주 청유기, 뱃노래

베토벤/교향곡 제 9번 '합창'

• 지휘/한병함 • 작곡/노상현

• 협연/테너 양승엽

• 솔리스트/소프라노 김현숙,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한남식, 바리톤 이득수

• 합창단/남부민중앙교회 시온찬양대, 덕천교회 연합

찬양대, 부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 관람료 일반 R석 30,000원 · S석 10,000원

학생 3,000원

:: 문의 부산원로교향악단(010-7661-5285)

프랑스 최고의 상송 뮤지션 무롱(MOURON) 초청 콘서트

4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섬세하면서도 독창적인 연주를 선보이는 프랑스 최고의 싱어송 라이터 무롱(MOURON) 초청 콘서트.

오페라 단원인 아버지와 작곡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무롱은 17세에 미셸 뤼갱(Michel Fugain)이 이끄

는 빅 바자르(BigBazar) 그룹의 막내로 음악활동을 시작, 각종 리사이틀, 국내외 각종 페스티벌, 해외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프랑스 최고의 상송 뮤지션으로 사랑 받아왔다.

'사랑스러운 무롱(Mouron' amour)', '파랑 검정 빨강(bleunoirrouge)', '사랑의 찬가(Hymnesà' amour)' 등 앨범을 발표한 무롱은 최고의 앨범상인 샤를르 크로스 아카데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프로그램

마들렌느, 마주보고, 아코디언 연주자, 사랑밖에는 없을 때, 파리의 청춘, 장미 빛 인생, 봄, 라 자바네즈, 사막에서의 디저트, 군중, 고엽, 사랑의 찬가 등 수곡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633-8990)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4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 대극장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2011년 리사이틀.

작곡가의 인생과 철학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연구하고 그 음악의 뜻을 청중들에게 진솔하게 전해온 건반위의 시인 백건우는 1960년 미국국제음악 경연대회 1등을 시작으로 리움버그콩쿠르 우승, 부조니국제피아노콩쿠르 금상 등을 수상하고 베를린 페스티벌에서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라벨 전곡을 연주하여 라벨 음악 해석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

현재 파리에 거주하며 에메랄드 코스트 음악축제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백건우는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기사훈장>을, 지난해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 프로그램

라벨/거울-나방, 슬픈 새, 바다위의 작은배,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종의 골짜기

리스트/오베르만의 계곡

라벨/고풍스런 미뉴엣 작품 7, 프렐류드,

죽은왕녀를 위한 파반느

리스트/페트라르카의 소네트, 메피스토 왈츠

:: 관람료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A석 40,000원

B석 30,000원

:: 문의 전자랜드(02-587-7082)

공연기획예성(582-2026)

창단 10주년 기념 아마빌레색소폰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4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2002년 창단된 색소폰 오케스트라 '아마빌레색소폰오케스트라'의 창단 10주년 기념연주회.

'사랑스럽게'를 뜻하는 음악용어 '아마빌레(Amabile)'라는 단체명처럼 인생을 사랑스럽게 만들어가는 40여명의 색소폰 주자들이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팝, 민요,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음악을 선사해왔다.

:: 프로그램

도티/이쉬타의 개선

윌리엄스(편곡)/카르멘 하이라이트

영화음악/모정, 브라질

동요 & 만화영화주제곡/숲속을 걸어요, 솜사탕, 아기염

소, 즐거운 소풍길, 하늘나라 동화, 노을

로드리게스/라 콤파르시다 등 수곡

• 지휘/이수영(상임지휘자) • 사회/최용심

• 특별출연/동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민수연),

한국교원 댄스스포츠(포유라모)

Program

부산문화회관 공 / 연 / 안 / 내

- 특별단원양상블/강종태, 강종길, 이점찬, 차덕준, 김화남, 임재근, 이영웅
- ::관람료 초대
- ::문 의 아마빌레색소폰오케스트라 (011-9044-7576)

까메라타 합창단 창단연주회 '포레 레퀴엠' 4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2010년 5월 합창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혼성합창단으로 출발한 까메라타 합창단의 창단연주회.

'카메라타 향기를 온 세상에, 합창으로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다양한 연령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까메라타 합창단은 지난해 12월 가톨릭센터 월요음악회에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번 창단 무대에서는 포레가 그의 부친을 기리기 위하여 작곡한 우아하고 서정적인 포레 레퀴엠을 들려준다.

- 지휘/권영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전대의(010-5637-7114)

김영근 독창회-봄, 그리고 그리움 4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 소극장



엄정행 성악연구소 소속 좋은 아버지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성악가 김영근 독창회.

- ::프로그램 김순애/사월의 노래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 채동선/망향
- 박이제/초록이 오는 길목에서 등 수곡
- 피아노/이승윤(부산시립합창단 반주자)

- 찬조출연/김판수(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영근(010-3567-372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8회 정기연주회 4월의 환상과 서정

4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리 신차오



김가영

완연한 봄의 정취를 담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8회 정기연주회 '4월의 환상과 서정'.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인 연주로 호평받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영의 협연으로 화려하면서도 환상적인 대작 '이탈리아의 해롤드', 라흐마니노프 최고의 서정미를 자랑하는 '교향곡 2번'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베를리오즈/이탈리아의 해롤드(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작품16

-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2번 마단조 작품27
- 지휘/리 신차오(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김가영(비올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콘서트콰이어 제 12회 정기연주회 '그리움... 베이스 김홍진을 기리며'

4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1990년 순수아마추어합창단으로 출발, 현재 전공자, 비전공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혼성합창단 부산콘서트콰



故 베이스 김홍진

이어가 들려주는 베이스 김홍진 추모음악회.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을 비롯하여 부산콘서트콰이어, 각지에서 활동하는 베이스 김홍진의 제자들과 지인들이 그리움을 주제로 추모 무대를 마련한다.

- ::프로그램 현제명/고향생각 모차르트/레퀴엠(Lacrimosa) R.슈트라우스/위령제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중 'Invano Alvaro' 등
- 출연/김일석, 김동윤, 최상재, 이은민, 김정대, 김진영, 최성규, 김진영, 제화미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우리아트(010-5555-3825)

제 1120회 MBC 목요일음악회 부산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연주회

4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클래식을 넘어서 영화음악, 재즈, 팝,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는 전문 공연장을 벗어나 시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야외 공연, 부산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큰 박수를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KBS심포니오케스트라 제 1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복수를 초청,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말러/교향곡 제 1번 비에냐프스키/바이올린협주곡 제 2번

- 지휘/김병수 • 협연/김복수
-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 **문의** 강순보(010-7774-8179)

**부산음악사랑회 제 6회 정기연주회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4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친목을 도모해 온 부산음악사랑회의 제 6회 정기연주회. 홍성택이 지휘하는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민들의 귀에 익은 가곡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뮤지컬/ '지킬박사와 하이드' 중

- 'Once upon dream(한때 꿈에는)'
-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그 이름'
- 이흥렬/꽃구름 속에
-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무제타의 왈츠'
- 김동진/목련화
- 라라/그라나다
- 이안삼/산길 등 수곡
- 지휘/홍성택(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
- 연주/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출연/장은영, 송순임, 이영림, 배화자, 오동주, 김정민, 원요한, 김동현, 한성권, 배태균, 정광덕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지민경(010-8533-4620)

소프라노 유승연 독창회

4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 **소극장**

부산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 Juilliard Pre-College, Manhattan School of Music, New York University에서 음악수업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유승연 독창회.

유승연은 유학중 독창회를 비롯해 듀오콘서트,



Westminster Choir College Summer Music Festival, Interlochen Music Festival, Centro Studi Italiani Summer Festival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했다.

- :: **프로그램**
헨델/사랑스런 숲, 내 사랑이여
메시앙/오! 꽃들에게 눈이 있다면
구노/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등 수곡
- :: **관람료** 균일 20,000원(학생 50% 할인)
- :: **문의** 유승연(010-8505-011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9 가을방학**

4월 15일 금요일 오후 8:00 >>> **소극장**



'하늘아래 그 콘서트' 열아홉번째 뮤지션 어쿠스틱 감성 듀오 '가을방학'의 부산 첫 단독 공연. 잔잔한 선율에 녹인 스무살의 감성을 노래하는 가을방학은 언니네 이발관의 원년멤버이자 줄리아 하트, 바비 빌 등으로 활동해온 송라이터 정바비(기타)와 브로콜리 너마저, 우쿨렐레피크닉 등에서 활동해 온 보컬리스트 계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밴드이다. 2010년 가을, 첫 정규앨범 <가을방학>을 발표한 가을방학의 데뷔 앨범은 그룹 이름만큼이나 편안하고 정갈하고 소박한 사운드로 호평 받았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스무 살 일기장의 감성을 담은 노랫말로 관객들에게 따뜻한 무대를 선사한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사)아지무스오페라단
백혈병어린이를 위한 해설과 함께 떠나는
오페라여행 '코지 판 투떼'**
4월 16일 토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선보이기 위해 아지무스 오페라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오페라 '코지 판 투떼'.

오페라 '코지 판 투떼'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중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돈조반니>와 함께 오페라와 클래식 마니아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희극이다. 아리아 Come Scoglio(바위처럼), Un'aura amorosa del nostro Tesoro(산들바람은 시원하고), Donne mie la fate a tanti(여자들이여, 너무하는군요), Cosi fan tutte(여자란 다 그래)가 유명하다.

- 연출/박기수 • 음악코치/정민지
- 출연/소프라노 황윤정, 김정현, 윤현주, 테너 이효석, 베이스 박종준, 조성빈
-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청소년 50% 할인 · 대학생 30% 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 **문의** 아지무스오페라단
(070-7522-4649, 632-4649)

제 6회 메조소프라노 손자경 독창회
4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춘향전' '리골레토' 등 오페라 무대, 모차르트 레퀴엠,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독창자로, 독일, 이태리, 영미 등에서 100여 차례의 무대에 출연하며

Program

부산문화회관 공 / 연 / 안 / 내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메조소프라노 손자경 독창회.
손자경은 성악협회 예술가곡회, 한국가곡연구회 회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 프로그램

김기영/참 좋으신 주님
R. Lovland/날 세우시네
이영수(편곡)/여호와 나의 목자, 주님의 얼굴 보라
십자가 메들리(찬송가 중)/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십자가 그늘 밑에
흑인연가/Nobody Knows,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등 수곡
• 출연/정은희(피아노), 박찬엽(플룻), 김판수(첼로),
이윤영, 김지윤(바이올린), 김상철(비올라)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우리아트(070-8247-3825)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From 라틴 아메리카 & 'Missa Criolla' 4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김강규



고충진

2인 2색 무대로 2011년 첫 무대를 연 부산시립합창단이
4월 이색적인 라틴 아메리카를 주제로 마련하는 'From
라틴 아메리카 & Missa Criolla'.
기존의 정통 클래식 범주를 넘어 리듬과 화려한 박자
들이 어우러지는 프리스타일의 음악이 주를 이루는 이
번 무대는 1부에서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도미
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의 노래들을, 2부에서는 클래식
기타와 타악기가 어우러지는 아르헨티나 민속음악 '미
사 크리오야'가 무대에 올려진다. '미사 크리오야'는 작
곡가 A. Ramirez가 직접 만든 멜로디와 아르헨티나 민
속음악, 히스패닉계 아메리칸 토속 형식과 리듬 등이 잘
조화된 곡이다.

:: 프로그램

From 라틴아메리카/리베르탱고, 테킬라 삼바(멕시코
-브라질), 바퀴벌레(멕시코), 와와키(에쿠아
도르), 베짜는 소녀(브라질), 찬플린(도미니카
공화국 춤곡), 아침(멕시코 생일축하노래)
아리엘 라미레즈/미사 크리오야(Missa Criolla, 1964)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클래식기타/고충진 • 콘트라베이스/박성진
• 타악기/이준희, 이성은, 박계리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제11회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정기연주회 4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회원들이 들려주는 정기연주
회로, Piano Solo연주와 Piano Duo연주(1Piano
4Hands, 2Pianos 4Hands, 2Pianos 8Hands)로 피
아노 연주의 여러 장르를 한 무대에서 연주한다.

::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악마적 암시
W. 볼콤/뱀의 키스
슈베르트/판타지 바단조 작품 103 D. 940(4hands)
올슨/A scott Joplin Rag Rhapsody
생상/죽음의 무도 작품 40 등
• 회장/이경옥(신라대학교 예술대학장, 신라대 교수)
• 연주/이경옥, Evgeny Izotov, 고정화, 차미소란,
황정미, 신희원, 권혜령, 김지령, 정년경, 금찬이,
박영신, 박유미, 정순화, 차미령, 박재영
:: 관람료 전석 초대
:: 문의 정년경(017-563-5301)

데이드림과 함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사랑의 음악회 4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박성은



데이드림

박성은이 지휘하는 미래오케스트라와 데이드림과 함께
하는 사랑의 음악회.
외국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1부
오케스트라 연주, 2부 데이드림과 오케스트라 협연 무
대로 진행된다.

:: 프로그램

주페/경기병서곡
비제/칼멘 모음곡 1번
시벨리우스/핀란드아
겨울연가 테마 등 수곡
• 지휘/박성은
• 피아노/데이드림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 문의 박성은(010-4569-54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7회 정기연주회 전원 4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모차르트,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바
그너, 고전주의 끝과 낭만주의 시작을 알리는 베토벤의
작품을 만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1년 첫 정기
연주회 '전원'.

어떤 작곡가들보다도 생생하게 삶의 철학을 대서 없는
음악으로만 표현해낸 베토벤, 음악극의 창시자로 19세
기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 바그너, 18세기 비엔나 고전
주의 악파의 대표적인 인물 모차르트의 작품을 통해 고



이동신

전주의와 낭만주의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 '전주곡'
모차르트/오보에 협주곡 다장조 작품 314
베토벤/교향곡 제 6번 바장조 '전원' 작품 68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김선희(오보에, 안양대, 백석대 출강)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김선희

Jan Volger Quintet 내한공연

4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 소극장

모리츠 부르크 페스티벌 음악감독 안 보글러와 에이버리 피셔 커리아 그랜트상을 수상한 바올리니스트 콜린 야콥센, 뮌헨 ARD국제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박해윤, 제네바 콩쿠르 힌데미트상을 수상한 비올리니스트 리스 레르토, 런던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안티 시랄라가 함께 하는 Jan Volger Quintet 부산연주회.

::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트리오 다장조 KV 548
피아졸라/사계
브람스/피아노5중주 바단조 작품 34

- 연주/Jan Vogler(Cello), Colin Jacobsen(Violin), Hyeyoon Park(Violin), Lise Berthaud(Viola), Antti Siirala(Piano)

:: 관람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 문의 스테이지원(02-780-5014)



양상블 리드미코, 매일클래식음악감독 바이올리니스트 김화림, 신상준, 테너 강연종 등이 모차르트와 번스타인 명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K.304 마단조

정성스러운 모차르트(타악기 앙상블을 위한 편곡 모음)

번스타인/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예인예술기획(02-586-0945)

베토벤 선율이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 YMCA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정부가 지원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2009년 7월 창단된 부산 YMCA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YMCA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는 그동안 가족사랑 기획 음악회, 오페라 무대,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집중육성단체 춤패 연분 흥의 2011년 첫 번째 공연 조희정의 'Walk and Walk!!'

4월 21일 목요일 오후 8:00 >>> 소극장



독특하고 실험적인 춤 세계를 펼치고 있는 독립춤꾼들의 프로젝트 그룹 춤패 연분 흥의 2011년 첫 번째 공연.

나와 세상과 소통시켜 줄 천사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춤 언어로 표현

한한 조희정의 'Walk and Walk!!' 를 선보인다.

부산무용콩쿠르 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조희정은 부산무용협회 젊고 푸른 춤꾼, 국제현대무용제, 서울무용제, 국립무용단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안무/조희정
- 출연/김수현, 강수빈, 김유하, 김수연, 이혜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학생(초,중,고)

단체(20인 이상)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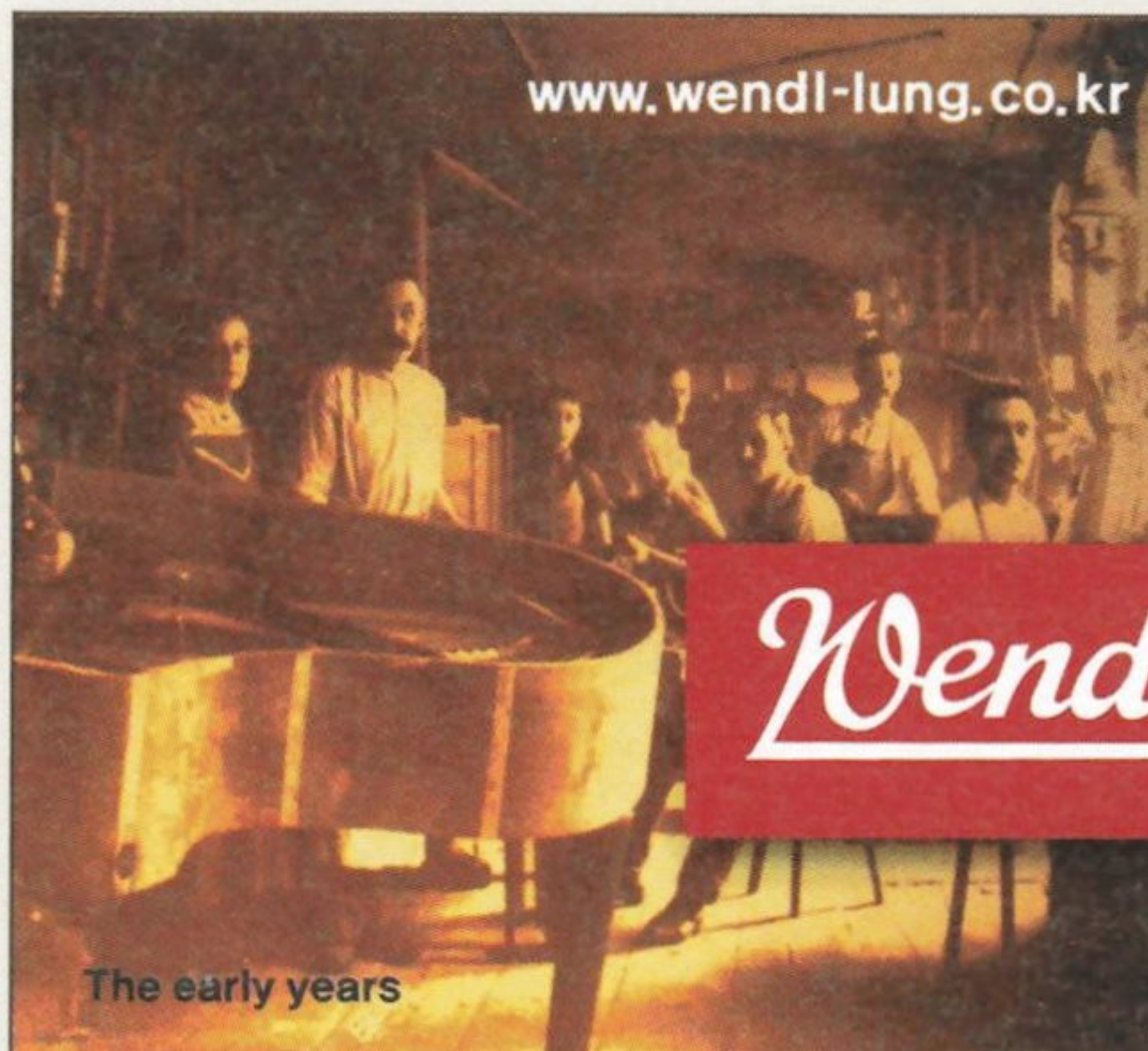
:: 문의 춤패 연분 흥 정경은(010-6711-3922)

제 14회 매일클래식

4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 대극장

2003년부터 '따뜻하게 찾아가고 초대하는 음악회'라는 모토로 뮤지컬과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온 매일유업 '매일클래식' 2011년 무대.

명성황후역으로 한국뮤지컬 대상 여우주연상, 한국 방송대상 성악가 부문 수상을 한 소프라노 김원정과 타악기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Program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회 등 예술성 높고 친근한 연주상품으로 시민들과 만나왔다.

:: 프로그램

베토벤/서곡 레오노레 작품 72

베토벤/트리플 콘체르토 작품 56

베토벤/교향곡 5번 '운명' 작품 67

•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홍성택

• 협연/이리나(바이올린), 양봉진(첼로), 김성희(피아노)

:: 관람료 VIP석 50,000원 · 일반 30,000원

학생 10,000원

:: 문의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440-3372, 010-5546-4249)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41회 정기연주회

4월 25일-26일 월-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1990년 창립 이래 피아노 듀오음악의 매력을 전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제 41회 정기연주회.

첫째날은 독일 도르트문트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정희경과 러시아 국립글린카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선화의 피아노 듀오연주회, 둘째날은 박선미, 서미라, 김소희, 하서경, 조상한, 이은영, 최민경, 임효진 등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회원들이 피아노 듀오무대를 열어준다.

▶첫째날 4월 25일(월)-정희경, 김선화 피아노 듀오 연주회

::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다장조 K.521(4 hands)

거쉬윈/파리의 미국인(2 pianos 4 hands)

차이코프스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중 모음곡

작품. 66a(2 pianos 4 hands)

▶둘째날 4월 26일(화)-피아노 듀오 연주회

:: 프로그램

모차르트/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K. 448

라흐마니노프/환상모음곡 1번 등

• 연주/박선미, 서미라, 김소희, 하서경, 조상한,

이은영, 최민경, 임효진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김진희(010-9928-3733)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 날 봉축기념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제 2회 정기연주회

4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부산에 위치한 30여개의 사찰 합창단에서 선발된 단원들로 구성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연합합창단의 제 2회 정기연주회.

부산 불교합창단연합회 연합합창단은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주관의 각종 행사와 법회에 음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불교합창제, 불교 음악페스티벌 등 전국 불교음악 공연에 부산을 대표하여 참가하고 있다.

부산 불교합창단 연합회는 2002년 리바겔가루다음악제 은메달과 세계합창올림픽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Tonight(From 'West side Story'), 연꽃 향기, 추억의 'Fork Song' 메들리, 산에 사는 물고기, 보리밭, 부처님 세상, 이따이따요, 한계령, Festival, 부처님 오신 날

• 지휘/배천중 • 반주/김연주

:: 관람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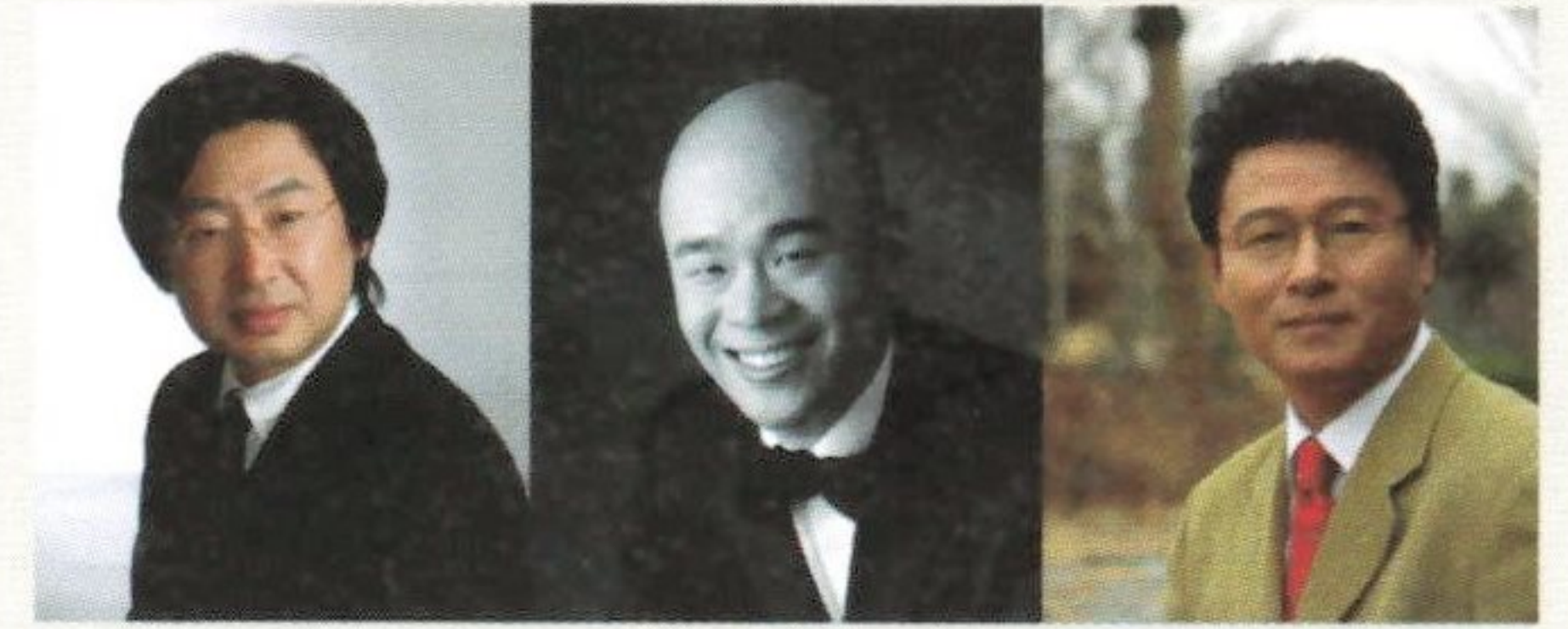
:: 문의 배천중(010-7576-411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1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클래식이 보인다 II-그림 속의 클래식 그림으로 보는 음악사, 음악으로 듣는 미술사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1:00 >>> 중극장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2011년 무대 '클래식이 보인다 II'-그림으로 보는 음악사, 음악으로 듣는 미술사.

부산시립교향악단 이동신의 지휘, 음악 칼럼니스트이자



이동신

정준호

백재진

미술 관련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준호의 해설로, 미술사와 음악사를 비교하면서 시대 및 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별한 무대를 갖는다.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 부산시립교향악단 류재환, 정우영, 윤태준, 막심 멜니코프가 협연한다.

:: 프로그램

샤르팡티에/모테트 '테 데움' 중 '전주곡'

헨델/오라토리오 '솔로몬' 중 '시바 여왕의 도착'

하이든/교향곡 제49번 '수난' 바단조 작품 1-49 중

제4악장

모차르트/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을 위한 협주곡

향곡 중 제1악장

베토벤/바이올린을 위한 로망스 제2번 바장조 작품 50

브람스/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중 발췌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 해설 및 진행/정준호(KBS FM실황음악 진행자)

• 협연/백재진(바이올리니스트, 동의대학교 교수)

류재환(오보에,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정우영(클라리넷,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윤태준(바순,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막심(호른,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사랑하다, 책을 펼쳐놓고 읽다 -허아람의 꿈꾸는 책방 낭독회

4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 소극장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 대표 허아람이 2008년부터 2년 동안 부산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허아람의 꿈꾸는 책방'에서 소개한 책들과 낭독을 묶어 펴낸 '사랑하다, 책을 펼쳐놓고 읽다' 출판을 기념한 인문학 콘서트.



인디고 서원은 지난 7년간 저자 초청 토론회 '주제와 변주', 청소년이 만드는 인문교양지 'INDIGO+ing', 영문으로 된 국제 인문학 잡지 'INDIGO', 전국 규모로 성장한 청소년 인문학

토론회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 인디고 글로벌 인문학 프로젝트인 '인디고 유스 북페어' 등을 펼쳐왔다.

책에서 놓치기 아쉬운 아름다운 구절들을 저자가 직접 낭독하고 우리 시대의 실천하는 지성들의 진실한 삶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인디고 서원

(628-2897, www.indigoground.net)

푸치니의 갈라 오페라 '토스카'

4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 대극장



김유섬



레오나르도 그라메냐



박대용

오페라 '아이다'로 대한민국 오페라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오페라 문화를 열어가고 있는 솔오페라단과 세계 정상급 소프라노 김유섬, 라 스칼라 극장의 주역가수 테너 레오나르도 그라메냐, 바리톤 박대용이 들려주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갈라 콘서트.

푸치니의 수많은 작품 중 푸치니가 가장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던 오페라 '토스카'는 19세기 로마를 배경으로 성악가 '토스카'와 그녀를 둘러싼 두 남자의 비극적 러브 스토리, 아름다운 선율과 극적 구성으로 세계 인들을 매료시키는 작품이다. '오묘한 조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 아리아가 유명하다.

• 지휘/잔나 프라따(Gianna Fratta)

• 반주/부산 메트로폴리탄오케스트라

• 출연/소프라노 김유섬(창원대학교 교수), 테너 레오나르도 그라메냐(Leonardo Gramigna), 바리톤 박대용(동아대학교, 창원대학교 출강)

:: **관람료** VIP석 150,000원 · R석 10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 **문의** 솔오페라단 공연 기획팀(1544-9373)

제22회 경성대학교 현악합주 정기연주회

4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교수가 지휘하는 경성대학교 음악학부의 현악합주 정기연주회.

경성대학교 현악파트의 교수진인 김은정, 김언정, 최영식, 김판수 교수의 현악사중주로 '엘가의 현을 위한 서주와 엘레그로'를 비롯해 그리그, 바하의 명곡들을 들려준다.

바하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은 재학생 중에서 협연자를 선발하여 연주한다.

바하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은 재학생 중에서 협연자를 선발하여 연주한다.

:: **프로그램**

그리그/현을 위한 '홀베르그 시대로부터' 작품 40

바하/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a

엘가/현을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현악사중주/김은정,

김언정, 최영식, 김판수)

• 지휘/임병원교수

• 연주/경성대학교 현악합주단(악장/이희진)

• 협연/김은정, 김언정, 최영식, 김판수

:: **관람료** 전석 무료

:: **문의**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663-4918)

제 8회 부산국제연극제 -사랑, 그리고 조화(Love & Harmony)- 5월 1일-10일 >>>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외



사랑, 그리고 조화(Love & Harmony)를 타이틀로 막이 오르는 제 8회 부산국제연극제.

올해는 브라질, 스페인, 일본, 중국, 체코, 프랑스, 한국 등 7개국 19작품 속

에 표현된 인생과 사랑이 만들어내는 조화로 황홀함의 극치, 처절한 슬픔을 경험할 수 있는 연극축제를 펼친다.

개막작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위대한 예술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음악과 사랑을 무대 위에 풀어낸 프랑스 극단 Olivier Dubois의 L'homme de l'Atlantique-프랭크 시나트라 음악과 사랑, 폐막작은 2010년 브라질 최고의 공연 수상작인 브라질 극단 Dos à Deux의 fragments du désir-욕망의 조각들이 막이 오른다.

:: **문의** 부산국제연극제(802-8003, www.bipaf.org)



MUSIC

라운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회 정기연주회

4월 2일 토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라운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라운제나'는 순 우리말로 '우리함께'라는 뜻이다.

• 지휘/김하균(상임지휘자)

::관람료 초대

::문 의 전민주(010-7161-9111)

국민한마음잇기 늘푸른합창단 17주년 기념연주회

4월 2일 토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주부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인 늘푸른합창단이 결성 17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기념연주회.

국내외 가곡 및 민요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지휘/백규진

::관람료 무료

::문 의 단장 윤영돌(010-3849-4623)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2일 프로그램

향발무, 판소리 '수궁가' 중, 피리독주 '염양춘', 동래학춤, 가야금 3중주 '강강술래 변주곡'(백대웅곡), 설장구춤, 사물놀이 등

::9일 프로그램

수제천, 승전무 중 '칼춤', 승무, 대금·가야금 중주 '강마을'(황익중곡), 좌수영어방놀이, 삼도설장구

::16일 프로그램

춘앵전, 거문고산조, 통영교방진춤과 동래한량무, 모듬북 협주곡 '타(打)'(이경섭곡), 부채춤, 판굿 등

::23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산조춤, 가야금 병창 내고향의 봄, 생소병주 '수룡음', 태평무, 작법, 모듬북을 위한 난타

::30일 프로그램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관람료 균일 8,000원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소년의 집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4월 3일 일요일 오후 4: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한국의 '엘 시스테마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주목받고 있는 소년의 집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는 2007년 마에스트로 정명훈, 젊은 지휘자 정민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프로그램

브람스/이중협주곡 가단조 작품 102

브람스/교향곡 제 1번 다단조 작품 68

• 지휘/정민

• 협연/한지연(바이올린), 전선희(첼로)

::관람료 초대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월요음악회

매주 월요일 오후 8:00(둘째주 월요일 공연없음)

>>> 가톨릭센터 소극장

▶4일 제 4회 동의남성들(VOCE) 정기연주회

2008년 4월 울산, 창원, 마산, 진해, 양산 등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의대학교 출신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결성된 VOCE 정기연주회.

• 지휘/함도관 • 피아노/최태수, 권경미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한나, 성정하, 메조소프라노 박소년, 테너 김화정, 바리톤 장재석, 플루티스트 김영훈

▶18일 봄날의 음악 편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서숙지, 이미라, 이정아, 이정현이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무대.

▶25일 라우다테(Laudate) 윈드앙상블 연주회

2007년 10월 창립된 후 음악으로 복음을 전해오고 있는 라우다테 윈드앙상블 무대.

• 지휘/이수영 • 해설/장진규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최보빈(010-9880-8447)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1일, 8일 공연없음)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5일 류정연 해금 독주회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 잉어질소리모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금주자 류정연 독주회.

남녀간의 애절한 그리움을 담은 상사별곡을 노래한 취태평지곡을 들려준다.

▶12일 구지연의 춤

중요무형문화재 제 21호 승전무 전수자이자 Dance Company 연, 원향춤연구회 공연예술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구지연의 춤판.

▶19일 김소라의 너울소리 아린소리

서울대학교 국악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너울소리 실내악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라의 너울소리 아린소리.

::프로그램

이 땅이 좋아요, 어디로 갈거냐, 사랑을 하려면, 엄마야 누나야, 꽃분네야, 직녀얼레 등

▶26일 조유희 가야금 독주회 '同行'



서울대학교 국악과, 단국대학교 예술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조유희 가야금 독주회.

::프로그램

정상지곡(呈祥之曲), 백구사(白鷗詞), 여민락(與民樂)

::관람료 균일 6,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6일 인어스 앙상블 제 1회 연주회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김태경, 피아니스트 이지혜, 첼리스트 박정열, 바이올리니스트 백흥선으로 구성된 인어스 앙상블의 첫 번째 연주회.

▶13일 소프라노 박금란 독창회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미국 맨하탄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박금란 독창회.

• 피아노/허자현

▶20일 김현정 귀국 플루트 독주회



영국 런던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아이네플루트앙상블 단원, 부산영필하모닉오케스트라 트레이너로 있는 플루티스트 김현정 귀국 독주회.

• 피아노/이화영선

▶27일 벨리씨미와 함께하는 노래여행

신라대학교 성악전공 동문들로 구성된 '벨리씨미'의 무대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출연/소프라노 박수정, 홍경아, 김선화, 신진범,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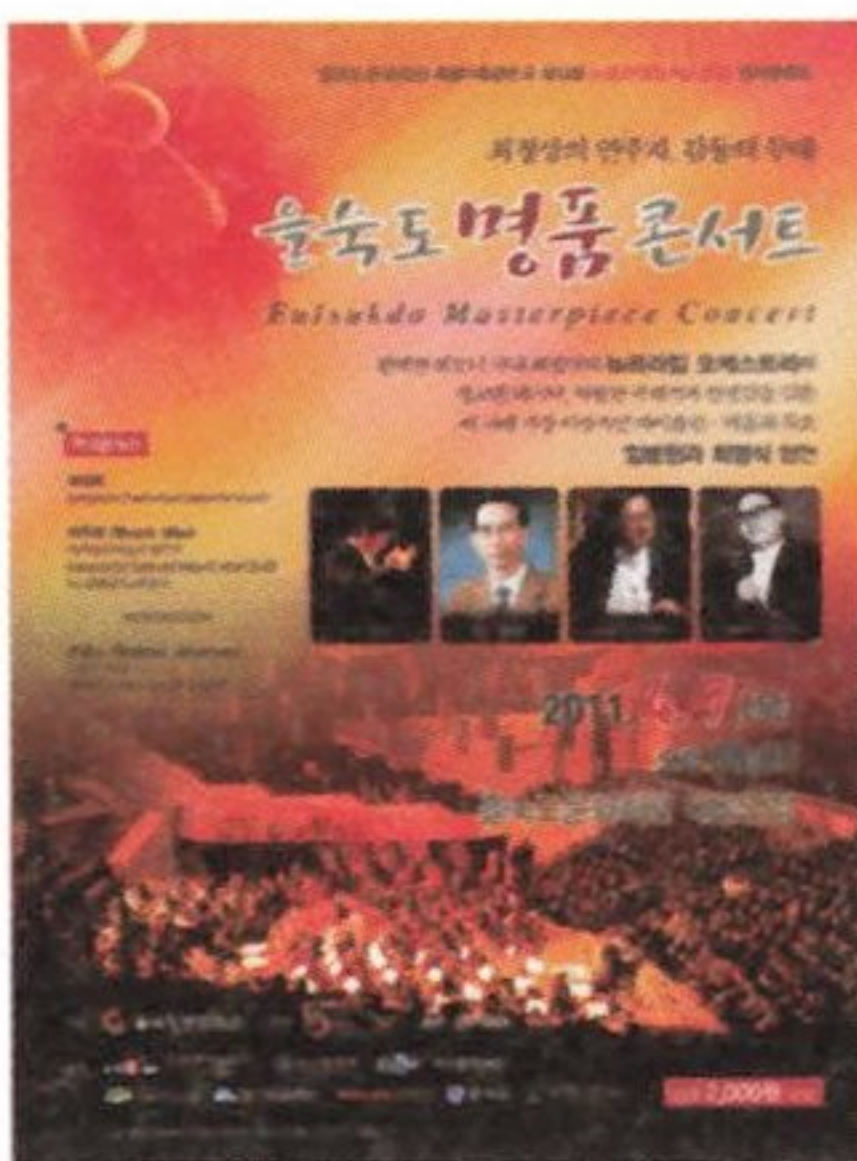
• 피아노/임소영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제 12회 뉴프라이모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을숙도 명품 콘서트

4월 7일 목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정교한 테크닉과 탁월한 곡해석을 갖춘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비올리스트 최영식이 함께하는 뉴프라이모케스트라 '을숙도명품콘서트'.

::프로그램

최삼화/교향시 '먼동이 틀 때'

브르흐/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작품 88

브람스/교향곡 제 1번 다단조 작품 68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ImGlauben(믿음안에서...) 1st Concert

4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소프라노 김성숙, 백성희, 강송희, 서진희, 김지영, 임소영, 최선미 등 부산의 젊은 음악인들로 결성된 'ImGlauben(믿음안에서...)' 첫 번째 연주회. 파우스트, 빌헬름 마이스터 등 괴테의 작품을 소재

로 한 가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현주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성숙(010-2966-8541)

E.M.B 트리오 정기연주회

4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유럽에서 음악공부를 마친 바이올리니스트 김성은, 첼리스트 이재성, 피아니스트 정순화로 결성된 E.M.B(European Musician Busan) 피아노 트리오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트리오 제 4번 작품 11

쇼스타코비치/피아노 트리오 제 1번 등

::관람료 초대

::문의 김성은(010-8549-8265)

토요해피콘서트

4월 9일(토), 23일(토) 오전 11:00

>>>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동래문화회관이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에 마련하는 토요해피콘서트.

작곡가별 앙상블 무대로 마련된다.

국내 최고 전문 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글로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행사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 오디션에서 합격사례) 피아노 : 송정민(이스트만음대 전액장학생), 엄유정(텍사스 어스틴음대) 첼로 : 김미나(줄리어드 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
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전화 051-505-5995 팩스 051-505-5935 www.glovil.org / glovil@paran.com

▶9일 브릴란테 금관5중주 '수자 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구성된 '브릴란테 금관5중주'가 출연, 미국 밴드음악의 거장 수자의 곡을 들려준다.

▶23일 가람현악앙상블 '모차르트 음악회'

현악, 목관악 편성으로 구성된 실내악전문 중주단 '가람현악앙상블'이 우리 귀에 친숙한 모차르트 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이송은 피아노 리사이틀

4월 9일 토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맨하탄음대 장학생으로 입학한 이송은 피아노 리사이틀.

:: 프로그램

바흐/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2권 BWV884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 3번 라장조 작품 10 등 수곡

• 찬조출연/보이스 싱어즈, 박소현(연세대 2년)

::관람료 초대

::문의 정옥진(010-3590-8471)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

4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고신대학교 김남숙 교수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 프로그램

위로 제 3번, 사랑의 꿈 제 3번, 네 손을 위한 폴로네이즈, 메피스토 왈츠 제 1번, 소나타 나단조 등
• 연주/김지원, 박민경, 이희령, 강혜덕, 고태욱, 신현희, 최윤희

::관람료 무료

::문의 예술기획(010-4909-7444)

독일가곡연구회 제 3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와 볼프 가곡의 밤

4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7년 독일어권 지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음악가들로 구성된 독일가곡연구회의 38번째 정기연주회. 독일 낭만시대의 작곡가인 브람스와 볼프의 가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우원석(010-3120-4116)

백건난 플루트 독주회

4월 14일 목요일 오후 7: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음악교육연구회콩쿠르 1위, 부산음악협회콩쿠르 1위, 동의대학교 전국학생음악콩쿠르 1위에 입상하고 현재 동의대학교에 재학 중인 백건난 플루트 독주회.

::관람료 무료

::문의 백건난(010-4855-5121)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무대 꿀림

매주 목요일 오후 7:30(7일 공연없음)

>>>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다채롭게 펼치는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무대 '꿀림'.

▶14일 내악기를 소개합니다 시즌V

'내 악기를 소개합니다'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악기 소개와 더불어 목관앙상블의 매력을 선사해온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의 무대.

▶21일 라틴음악의 향연

2007년 대구, 경북지역의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사)영남음악진흥원의 무대.

'사계' '리베르토 탱고' 등 피아졸라의 작품에서부터 영화 '여인의 향기' '라밤바' 등 우리귀에 친숙한 OST곡 등 라틴음악을 현악연주로 들려준다.

▶28일 옛 樂人 Story's

퓨전국악팀 '젊은 풍류'가 마련하는 이야기가 있는 국악공연.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제 10회 테너 이철성 독창회 한국 가곡 '사계'

4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까를로 베르곤지, 오르페오, 보게라, 손드리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엔리소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동양인으로는 처음 우승해 세

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철성 독창회.

이철성은 현재 센텀합창단 지휘자, 이기대성당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관람료 VIP 50,000원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김정아(010-9334-6105)

장예지 귀국 플루트 독주회

4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와 바이마르 리스트 국립음대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플루트앙상블, 플루트 4중주 '클랑' 단원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장예지 귀국독주회.

• 피아노/이은정

::관람료 초대

::문의 장예지(010-9341-3377)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토요뮤직점프

4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뉴프라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상세한 해설과 함께 명곡을 감상할 수 있는 을숙도문화회관 해설음악회.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2011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4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임병원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를 주축으로 현악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연주회.

인제대학교 양욱진 교수의 협연으로 새봄과 어울리



양욱진

는 현악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앙상블을 들려준다.

• 협연/양욱진(첼로)

::관람료 균일 10,000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림회원 1,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민강은 피아노 독주회

4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Kassel시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피아노 소사이어티 클랑 멤버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민강은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2-2 가장조

드뷔시/기쁨의 섬 등

::관람료 무료

::문의 파인아트 예술기획(010-5898-1957)

한낮의 유U; 콘서트 5주년 특집 국립발레단 왕자호동

4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자리매김한 한낮의 유U; 콘서트 5주년 특집 국립발레단 초청 '왕자호동'.



신비한 북 자명고를 둘러싼 고구려 왕자 호동과 낙랑 공주와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그린 '호동왕자'는 지난해 '2010 세계국립극장 페스티벌'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예술감독/최태지

• 대본, 연출/국수호 • 안무/문병남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국제신문(500-5222)

목요국악콘서트 '맑고 푸른 April'

4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정통국악과 퓨전국악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무대로, 젊은 퓨전국악그룹 '음악대륙 가이거'가 우리 국악의 매력을 전해준다.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35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1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4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www.piano123.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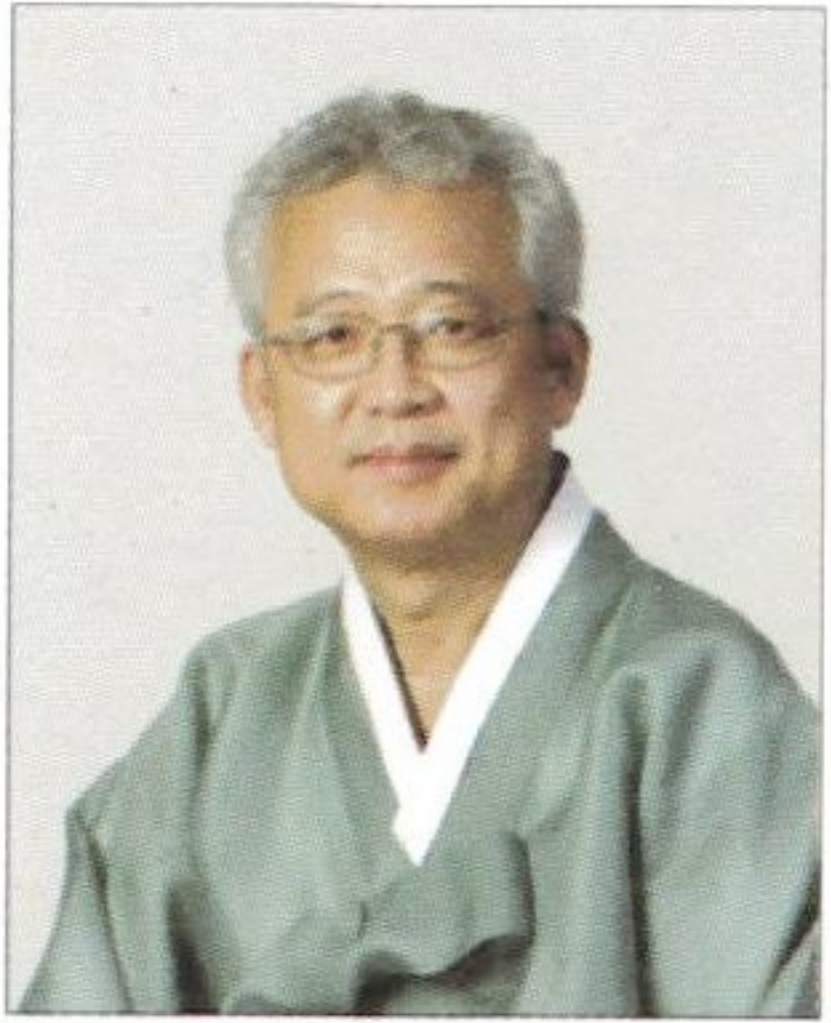
조율사 강규찬

H.P 017. 556. 9410

- > 산업기사 (국가공인 1급 조율사)
- > 일본야마하 기술학교 그랜드피아노 부문 디플롬
- > 러시아 조율협회 그랜드피아노 수리부문 디플롬
- > 스타인웨이 리빌더 수회연수

■그랜드피아노(전공자용, 연주용) 조율, 수리, 대여, 리빌더 전문





김철호

뜻뜻한 긴장감과 싱싱한 설렘이 살아있는 국악 유망주들의 협연무대.

:: 프로그램

김영재/방아타령 주제에 의한 태평소 협주곡
이철주(편곡/박위철)/대금 협주곡 '의곡지성'

(부산초연)

조원행/해금협주곡 '상생'

김계옥/25현가야금 협주곡 '궁타령의 멋' (부산초연)

조원행/소아쟁 협주곡 '아라성'

이경섭/모듬북 협주곡 '타'

• 지휘/김철호(수석지휘자)

• 협연/서민기(태평소), 구주영(대금), 김수연(해금), 최재은(가야금), 강지현(아쟁), 이지현, 박재현 (이상 타악)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봄 연주회

4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고전음악에서부터 현대곡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기타음악의 보급, 발전에 힘쓰고 있는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연주회.

:: 프로그램

몬테스/이별의 전주곡

줄리아니/대서곡

소르/위안 등 수곡

• 지휘/고충진

• 찬조출연/폴리포니기타듀오(서승완, 김경태)

:: 관람료 초대

:: 문의 서승완(010-5198-0074)

랑대부 드 부산 도미니크 피용 트리오 초청공연

4월 24일 일요일 오후 5: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프랑스 재즈 트리오 도미니크 피용 트리오의 아름다운 재즈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

• 출연/도미니크 피용(피아노),

스티브 로드비(더블베이스), 팻 매스니(드럼)

:: 관람료 무료

::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제 11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우수입상자 연주회

4월 24일 일요일 오후 2:00 >>> 글로벌아트홀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제 11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우수입상자들의 무대.

::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제 40회 부산시민들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4월 24일 일요일 오후 5:00 >>>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0회 정기연주회 교향곡 시리즈 III

4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오케스트라로 호평받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대학교 박성완 교수가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김동욱이 협연한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61~5)

제 29회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Ilan Rechtman & 이명진 듀오 콘서트

4월 28일 목요일 오후 7:00 >>> 고은사진미술관

Israel Virtuosi 음악감독으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해 온 피아니스트 Ilan Rechtman과 독일 Folkwang 콩쿠르에서 16년만에 첼로부문 대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던 첼리스트 이명진이 함께하는 듀오 무대.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제 2번
포퍼/헝가리안 랍소디 등

:: 관람료 사전예약(주최측 문의)

:: 문의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4인 4색 사제음악회

4월 28일 목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경성대학교 교수 장원상(성악), 부산대학교 교수 김영희(바이올린), 동의대학교 교수 이동섬(피아노), 인제대학교 교수 오신정(플루트)과 그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4인 4색 무대.

:: 프로그램

주냥/베니스의 사육제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K.52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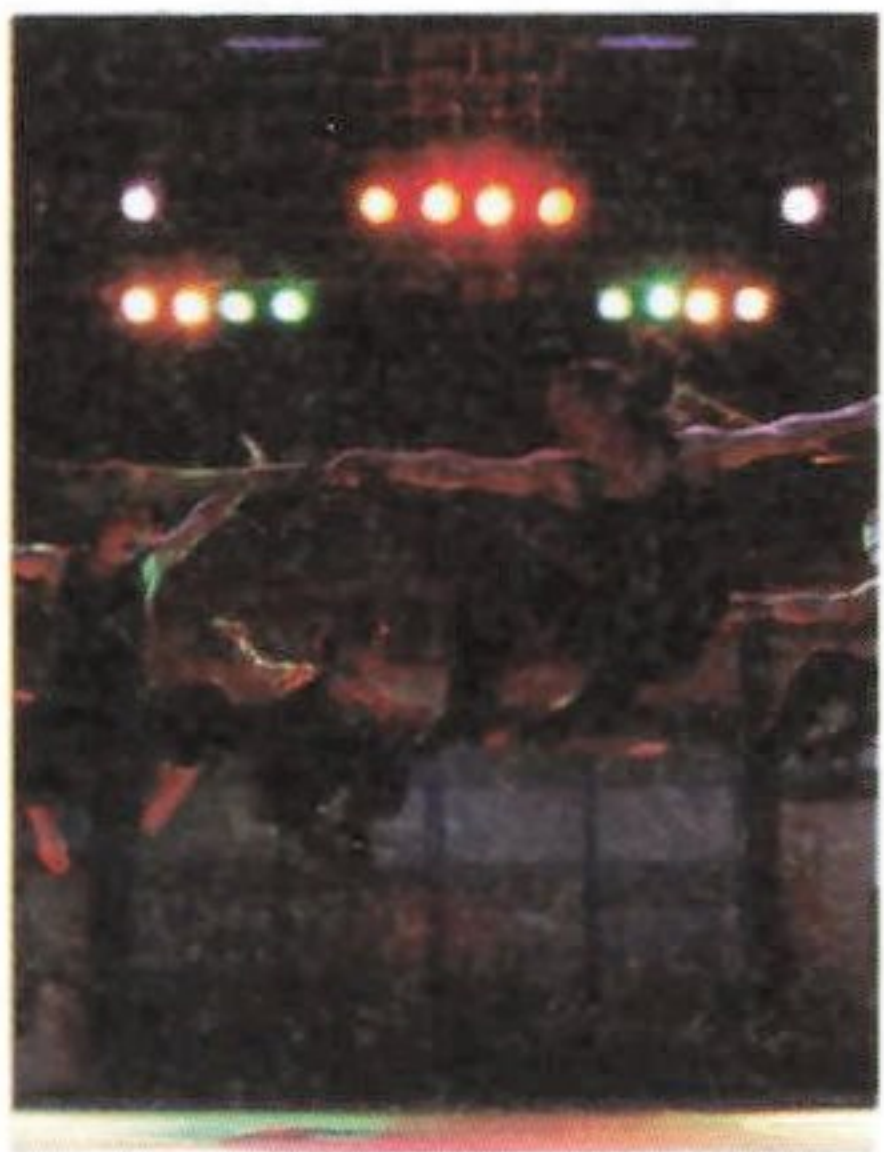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PLAY

2011 점프 부산

1월 1일(일)-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 IBK 점프부산전용극장(해운대 그랜드호텔 B1)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년버벌 퍼포먼스극. 부산전용극장 공연 1,000회를 돌파하며 그 재미를 이어가고 있다.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744-4885)

폭소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3월 3일(목)-4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자살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이 존재한다는 기발한 연극적 상상에서 출발,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한다는 교훈을 던지는 블랙코미디극.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러브러브 베베

3월 11일(금)-5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화요일 공연없음) >>> 미리내소극장

'제멋대로 공상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말하는 병적인 증상'을 뜻하는 '공화증'을 소재로 청춘남녀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

•작/구보경 •연출/호민
 •출연/구민주, 유정은, 박규남, 박진수, 호민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코믹극 바쁘다 바빠

3월 18일(금)-4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4/2일오후 4:00 공연없음, 월요일 공연없음) >>>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한 도시 빈민가족의 일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빠른 극 전개와 치밀한 구성으로 시종일관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해준다.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가마골소극장 & 인큐베이터 공동기획제작 서툰사람들

3월 25일(금)-4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휴관)
 >>> 가마골소극장

가마골소극장의 대표적인 인기 레퍼토리로, 초보도둑과 여교사의 하룻밤 이야기가 뜻뜻하게 펼쳐진다.

•작/장진 •연출/이운주
 •출연/박정무, 강국희, 이재찬, 박재현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초중고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스릴러 심리 라이브뮤직극 신의 아그네스

3월 25일(금)-5월 2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Red

'갓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죽인 수녀'라는 충격적인 소재로 이 시대 기적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존 필미어 원작의 고전 '신의 아그네스'.

숨막히게 펼쳐지는 추리와 반전. 날카로운 심리게임이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긴장감을 더해준다.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주)WSM(1600-1716)

로맨틱코미디극 오월에 결혼할거야

3월 25일(금)-4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결혼적령기를 앞둔 29살 여자들의 연애편과 우정,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고 대담하게 풀어낸 로맨틱코미디극.

•작/김효진
 •연출/반능기
 •출연/김정민, 박주영, 채윤희, 우지순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극단 일터 뮤지컬 '너, 붉은사랑'

3월 30일(수)-4월 30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 일터소극장



식민지 시대 대표적인 여성 작가 강영애의 소설 '인간문제'를 음악극으로 제작한 '너, 붉은 사랑'.

•연출/김기영
 •출연/김선관, 이수옥, 조기정, 박영순, 오다운 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초등생 10,000원

::문 의 일터소극장(635-5370)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한새벌 '선택'

3월 31일-4월 1일 목-금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소극장

광해군 시절, 명과 청나라 사이 실리와 명분이라는 외교정책의 희생양이었던 강홍립 장군의 비극적 삶을 그린 역사극.

• 작, 연출/이철우

• 출연/주용욱, 나종기, 곽상국, 황용대 윤미숙 외

::관람료 균일 12,000원

::문 의 극단 한새벌(500-7460)

뮤지컬 스킨리두

4월 1일(금)-5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4/3일 오후 6:00 공연없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한때 잘나가던 아이돌 스타와 작사가가 펼치는 코믹 러브 스토리 뮤지컬 '스킨리두'.

'스킨리두'는 극중 작곡가인 주인공이 가사를 붙이기 전 흥얼거리는 습관성 가사로, 두

주인공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사랑의 주문이다.

::관람료 균일 35,000원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로맨틱극 잇초 유

4월 1일(목)-5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주요 배경으로, 주인공들의 애절한 사랑과 웃음, 감동을 전해주는 로맨틱극.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平日 40% 할인, 주말 30% 할인)

::문 의 SM기획(1600-1602)

액션라이브쇼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4월 2일 토요일 오후 2:00, 4:30, 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 KBS 부산홀

지구를 침략한 기계족 가이아크에 맞서 싸우는 다섯 명의 용사 파워레인저의 활약을 그린 액션 라이브쇼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A석 2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주)WSM(1600-1716)

가족뮤지컬 유후와 친구들

4월 2일(토)-17일(일) 화-목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금-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월요일 휴관) >>> MBC롯데아트홀

갈라고원송이, 사막여우, 흰목꼬리감기원송이 등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우정과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족뮤지컬.

• 연출 및 안무/서병구

• 작/서윤미 • 음악감독/이성준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25,000원

::문 의 DS뮤지컬컴퍼니(323-3244)

MBC롯데아트홀(760-1357)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자유바다 '돌고 돌아 가는 길'

4월 3일 일요일 오후 6:00, 4일 월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소극장

임진왜란 당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했던 두 젊은이의 운명적 만남과 인생행로를 그린 작품.

• 작, 연출/정경환

• 출연/김상훈, 강혜란, 박지영, 이동희, 양성우 외

::관람료 균일 12,000원

::문 의 극단 자유바다(441-2733)

배우공동체 배우창고 7번째 정기공연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4월 5일(화)-30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9월요일 공연없음) >>> 공간소극장



2007년 역사 속에 사라져간 동대문야구장을 시대적 배경으로, 그 속에서 꿈을 먹고 살아가는 한씨 가족의 고군분투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

• 작, 연출/박훈영

• 출연/김병철, 김지혜, 김하영, 서경화, 이재연 외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극단 차이 나쁜 연극

4월 13일(수)-26일(화)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 열린소극장



감옥이라는 완전한 구속을 통해 자유를 꿈꾸며 습관적 절도와 체포를 일삼는 모자의 이야기를 담은 '실내극'과 감옥 내에서의 권력과 원죄의식을 다룬 '어머니' 등 작가 장정일의 단편희곡 2편을 원작으로 타락한 현실에 대한 타락한 구원방식을 보여준다.

• 작/장정일 • 연출/구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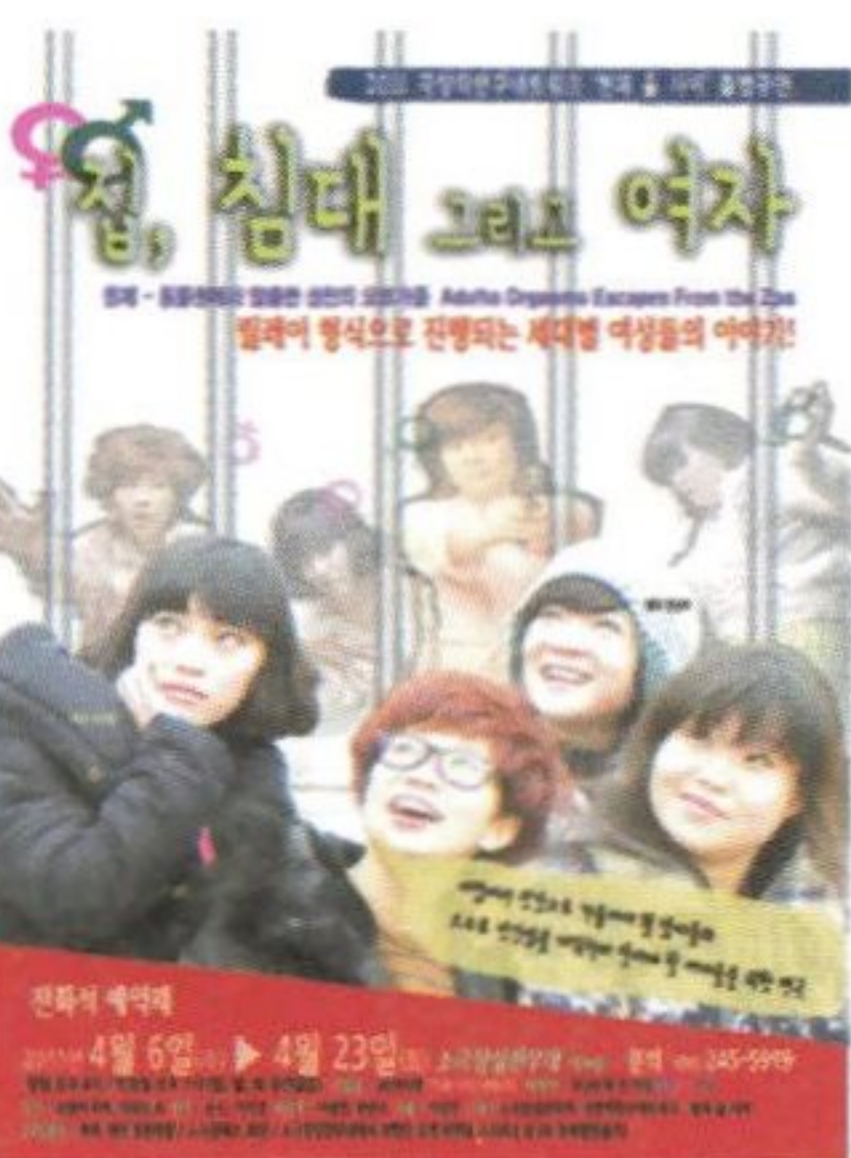
• 안무/강희정 • 음악/전현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전화예매시 30% 할인)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사계 '토끼의 이습이야기'**
4월 6일(수)-10일(일) 평일 오전 11:00, 토요일 오후
1:00, 3:00, 일요일 오후 3:00 >>> **시민회관 소극장**

'당나귀와 소금' '사자와 생쥐' 등 이습우화 속에 등
장하는 교훈을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배워보는 어린
이 뮤지컬.
::관람료 균일 12,000원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2011 극창작연구네트워크 '현과 올 사이'
출범공연 집, 침대 그리고 여자**
4월 6일(수)-23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일-화요일 공연없음) >>> **소극장 실천무대**



이탈리아 작가 다리오
포가 그의 부인 프랑카
라메와 공동집필한 작
품으로, 여성들이 겪는
성생활을 소재로 사회
구조 속 남성과의 관계
속에 놓인 여성의 절박
한 상황을 그린 작품.
• 연출/이성민
• 출연/전상미, 박정아, 이아름, 전지은
::관람료 균일 20,000원(19세 이상 관람)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뮤지컬 년센세이션 부산공연
4월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7:30, 9일 토요일 오후
3:00, 7:30 >>> **시민회관 대극장**

라스베가스로 간 수녀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펼
쳐지는 뮤지컬 '년센스' 다섯 번째 시리즈 '년센세



이선' 부산무대.
'년센스'의 터주대감
양희경을 비롯해 '명성
황후'의 히로인 이태
원, '오페라의 유령'의
크리스틴 이해경, 왈가
닥의 대표주자 홍지민
등 역대 최강의 수녀들
이 총출동, 웃음과 감동을 전해준다.
::관람료 VIP석 77,000원 · R석 66,000원
S석 55,000원 · A석 44,000원
::문의 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일본배우들이 연기하는 '하녀들'
4월 8(금)-15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휴관)
>>> **가마골소극장**



프랑스의 문제적 작가
장 주네의 대표작으로,
일본 전통의 노와 가부
키 형식과 연희단거리
패의 메소드로 새롭게
선보이는 '하녀들'.
• 작/장 주네
• 연출/이윤택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초중고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2011 을숙도문화회관 특별기획 시리즈
을숙도 연극열전 뮤지컬 프로포즈**
4월 13일-15일 수-금요일 오후 8:00, 16일 토요일
오후 5:00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소심한 남자와 성깔있는 여자가 펼치는 좌충우돌
러브 스토리 뮤지컬 '프로포즈'.
• 원작/안톤 체홉 • 각색, 연출/이정남
• 출연/강숙하, 허정현, 김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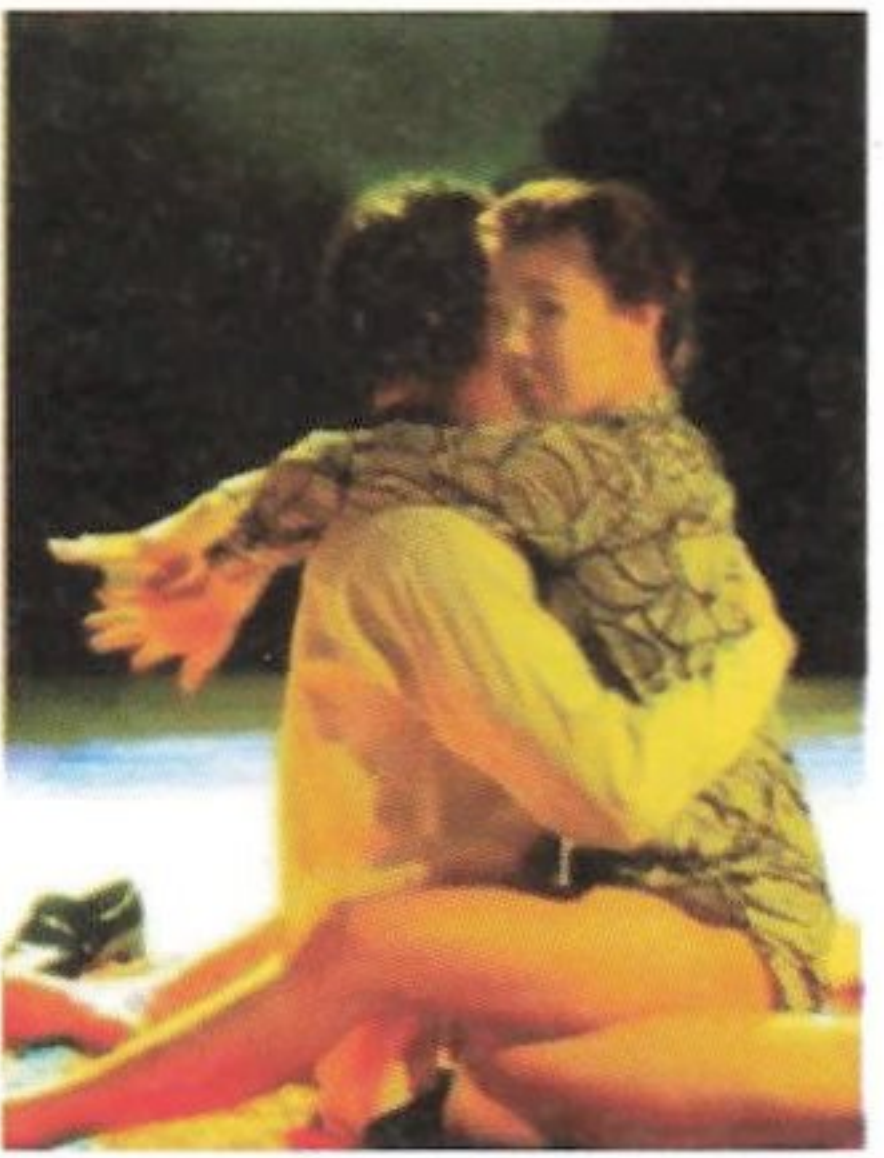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뮤지컬 삼총사
4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7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시민회관 대극장**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
는 명작 '삼총사'를 원
작으로, 왕실 총사를 꿈
꾸는 청년들의 모험과
우정을 그려낸 뮤지컬.
유준상, 엄기준, 민영
기, 김법래 등 최고 배
우들의 열연과 함께 17
세기 프랑스를 그대로 재현한 화려한 무대와 박진감
넘치는 액션신이 어우러져 감동을 전해준다.
::관람료 VIP석 12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B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600-1716)

극단 세실 & 연희단거리패 사중주
4월 21(목)-5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휴관)
>>> **가마골소극장**



브레히트의 뒤를 잇는
독일 작가 하이너 뮐러
의 문제작으로, 지구의
종말 뒤에 남은 한쌍의
남녀가 벌이는 연극놀
이를 배경으로 한 작품.
• 연출/채윤일
• 출연/윤정섭, 배보람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초중고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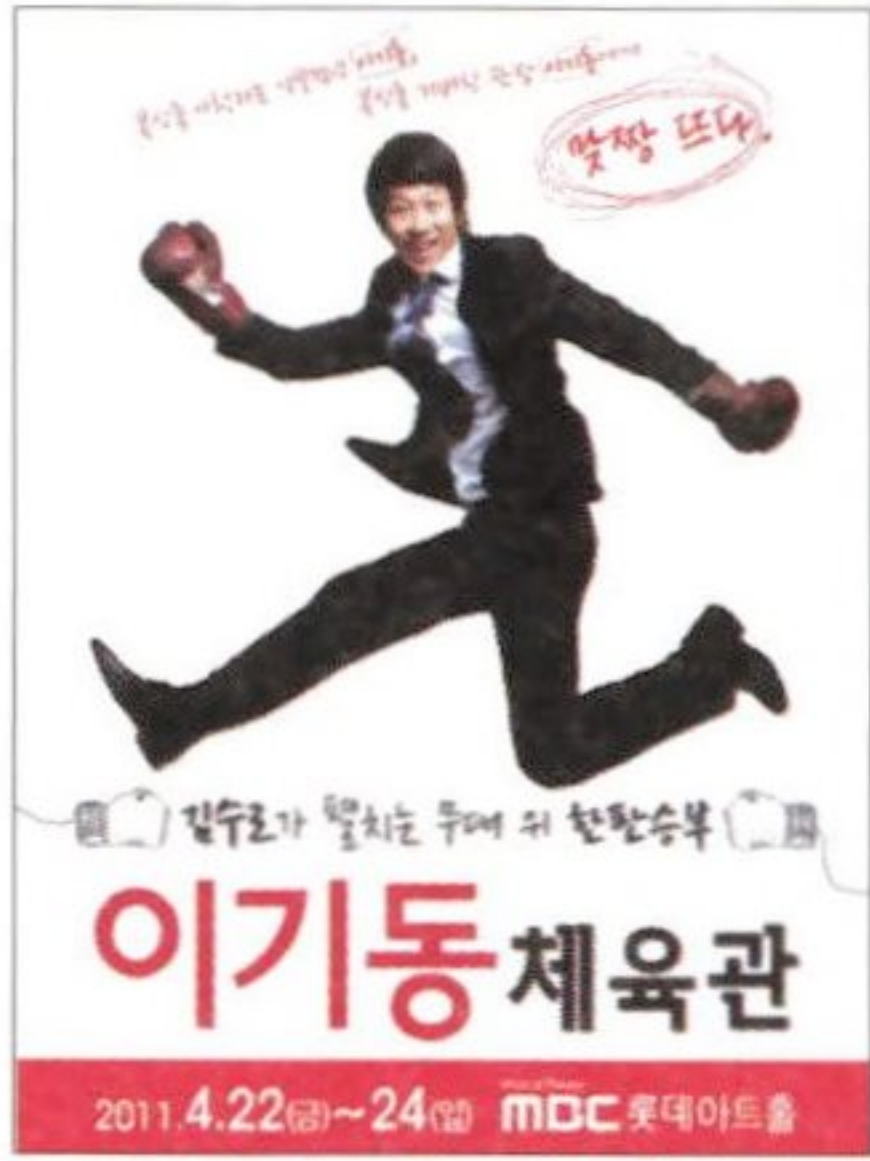
Program

기타공연장 공/연/안/내

연극 이기동 체육관

4월 22일 금요일 오후 8:00, 2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4일 일요일 오후 3:00

>>> MBC롯데아트홀



왕년의 챔피언 이기동 관장과 새로운 도전과 꿈을 심어주는 청년 이기동 등 저마다의 깊은 사연을 안고 주먹을 휘두르는 주인공들의 가슴 따뜻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작품.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가족뮤지컬 팔죽할멈과 호랑이

4월 2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24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 시민회관 소공연장



어수룩한 호랑이와 재치있는 팔죽할멈의 한판 대결이 흥겨운 사물장단 속에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2011 신춘맞이 30주년 마당놀이전

4월 2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 벅스코

그동안 공연되었던 마당놀이 작품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았던 춘향전, 심청전, 이춘풍전, 변강쇠전, 흥길동전 등을 엮어 만든 새로운 고전 해학극을 선보이는 마당놀이전 30주년 기념무대.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문의 달구벌엔터테인먼트(1588-5395)

가족뮤지컬 내친구 도라에몽

4월 23일-24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 시민회관 대극장

대마왕의 마법에 걸린 별빛바다를 구하기 위한 도라에몽과 친구들의 수중대모험 가족뮤지컬 '내친구 도라에몽'.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3인가족 구매시 20%할인)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연극 염쟁이 유씨

4월 29일(금)-2011년 5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대대로 '염'을 업으로 삼아온 집안의 마지막 인물인 염쟁이 유씨의 삶을 통해 전통의 장례 문화를 소재로 죽음을 통해 바라본 삶의 진정성을 그린 작품.

배우 유순웅이 1인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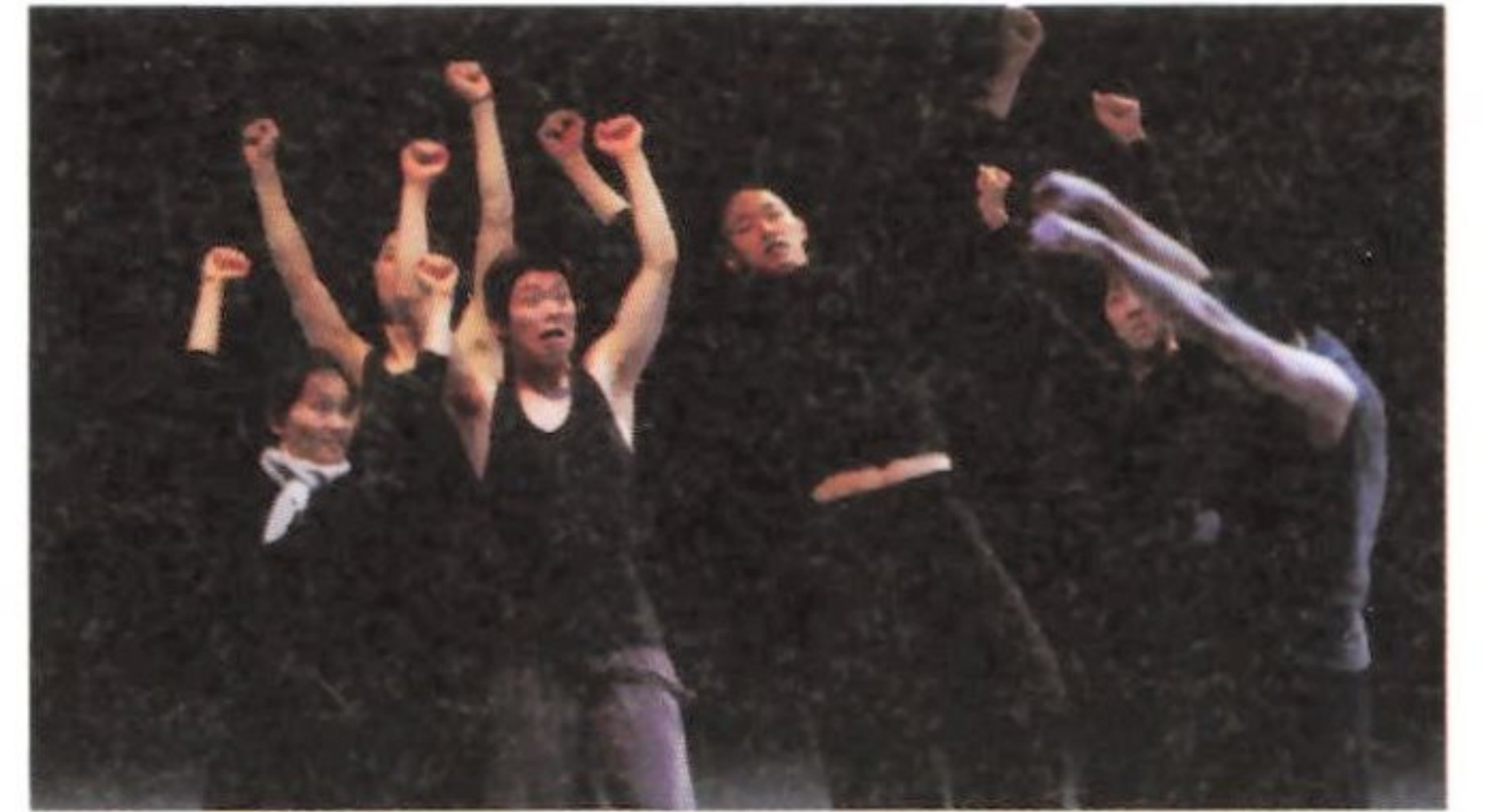
역을 맡아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DANCE

예술공동체 마르: 농담

3월 31일(목)-4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 열린소극장



무용 장르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호러 잔혹극과 코메디 형식을 빌려 삭막한 현대인의 분노와 불안, 공포를 다룬 예술공동체 마르의 창작무용 '농담'.

• 안무/강희정(마르 대표)
• 대본/구현철 작곡/전현미
• 출연/문라옥, 김종현, 김초슬, 김동석, 강수빈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청소년 10,000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CONCERT

을숙도문화회관 금요해피콘서트 우리시대의 가객, 최대호

4월 1일 금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1)

2011 해운대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직 스토리-프리덤 콘서트 '바드'

4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안테나뮤직 위리어스 '그래, 우리 함께'

4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24일 일요일 오후 5: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감성적인 정재형의 피아노와 유희열의 건반, 은밀한 고백 같은 루시드폴의 기타, 영원한 청춘의 송가 페퍼톤스, 별빛처럼 반짝이는 박새벌의 건반이 함께 만들어내는 사랑의 하모니 '안테나뮤직 워리어스'.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66,000원

::문의 (주)WSM(1600-1716)

남진 데뷔 45주년 콘서트 '님과함께 45년'

4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 KBS부산홀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 B석 5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600-1716)

EVENT

제 101회 부산시울림 시낭송회

4월 6일 수요일 오후 7:00 >>>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미순, 김형술, 서경원, 정안나, 조해훈, 나여경(소설가)

::관람료 무료

::문의 김예강(010-5516-1867)

제 11회 광안리어방축제

4월 22일(금)-24일(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수영지방의 전통적인 갯후리 방식의 고기잡이를 재현한 '어방그물끌기'를 비롯해 옛날 수영강 하구에서 불을 밝혀 고기를 잡는 어선의 모습을 재현한 '진두어화', 거리퍼레이드, 수영민속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펼쳐지는 제 11회 광안리어방 축제.

::문의 수영구청(610-4962)

EXHIBIT

사진으로 본 우리시대의 초상

3월 5일(토)-7월 3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3월 21일(월)-4월 8일(금) >>> 한국아트미술관

::문의 한국아트미술관(612-3400)

蘇斗 김인환의 '다시보는 상감 기법전(2)'

3월 22일(화)-4월 12일(화) >>> 대안문화공간 자인

::문의 대안문화공간 자인(011-9522-9882)

류동필 개인전

4월 1일(금)-4월 7일(목)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로제 다부(Roger DABOU) 프랑스 작가전

4월 1일(금)-4월 30일(토)

>>>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꽃그림전 축제

4월 1일(금)-4월 30일(토) >>>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개관전

내가 그린 그림은...

4월 2일(토)-8월 28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사진그룹 '도시의 섬'

'도시의 섬' 세번째 사진전-산복도로

4월 4일(월)-4월 10일(일) >>> 부산시청 제 2전시실

::문의 이채원(010-5514-2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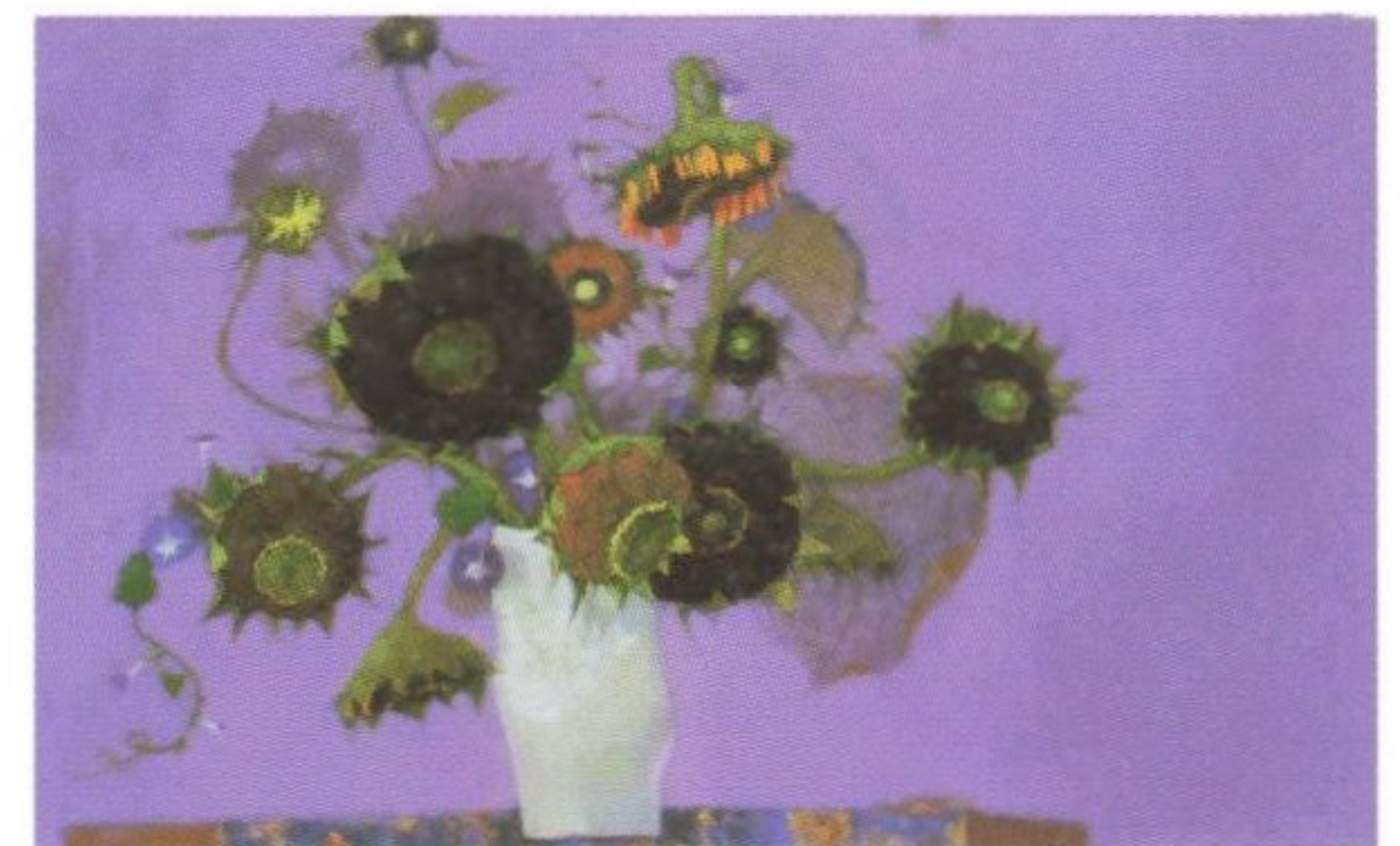
이국희 개인전

4월 8일(금)-4월 14일(목)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갤러리 봄디 개관초대전 엄윤숙전

4월 11일(월)-5월 11일(수) >>> 갤러리 봄디



엄윤숙작 해바라기

::문의 갤러리 봄디(070-7720-6862)

서헌강 사진전 '신들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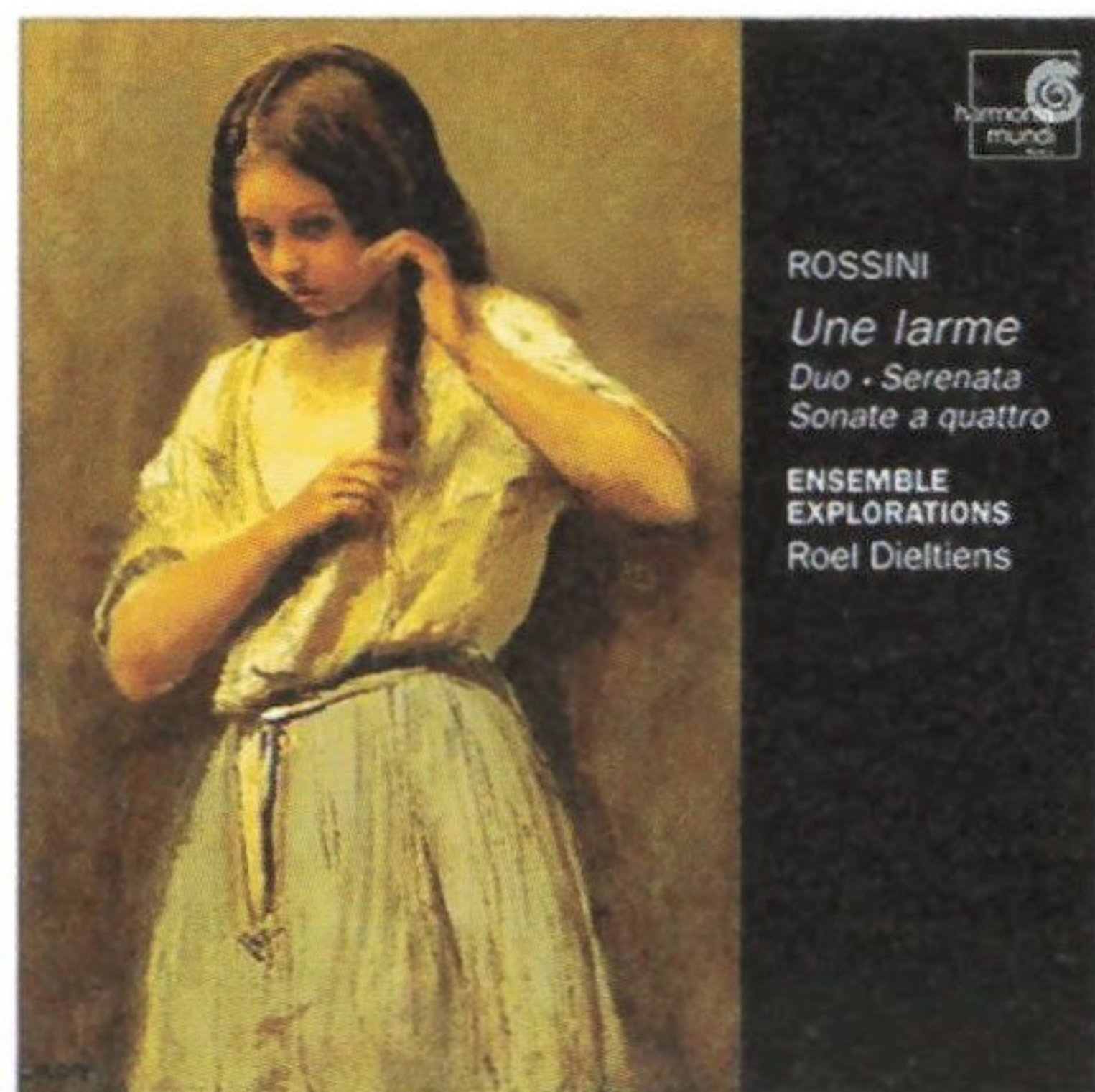
4월 15일(금)-6월 7일(화) >>> 토요타 아트스페이스

::문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강운구 사진전

4월 16일(토)-7월 3일(일) >>>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로시니의 천재성과 치밀한 앙상블의 만남

‘Une larme’

김희성_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영국의 음악전문지 BBC 매거진에서 18세까지 보여준 성취를 기준으로 ‘평론가가 뽑은 음악 신동’을 10위까지 선정한 적이 있다. 당연히 1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차르트의 이름은 없고 1위는 멘델스존, 2위는 슈베르트가 차지했다. 모차르트가 18세 이전에 작곡한 작품은 멘델스존이나 슈베르트에 비하여 독창성이나 표현의 깊이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또 10위까지의 명단에는 서양음악사의 한 획을 그었던 바흐나 베토벤의 이름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이 위대한 음악가임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천재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창조된 음악은 모두 소중한 문화유산임에 틀림없다.

18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로시니 또한 천재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곡가이다. 그는 9살 때 이미 성악곡을 작곡하였으며, 12살 때 기악곡을, 14살 때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속필과 다작으로 유명하지만 의외로 그의 작품은 오페라 서곡을 제외하고는 연주와 감상이 활발하지 않고, 유명한 소수의 오페라를 제외하고는 전곡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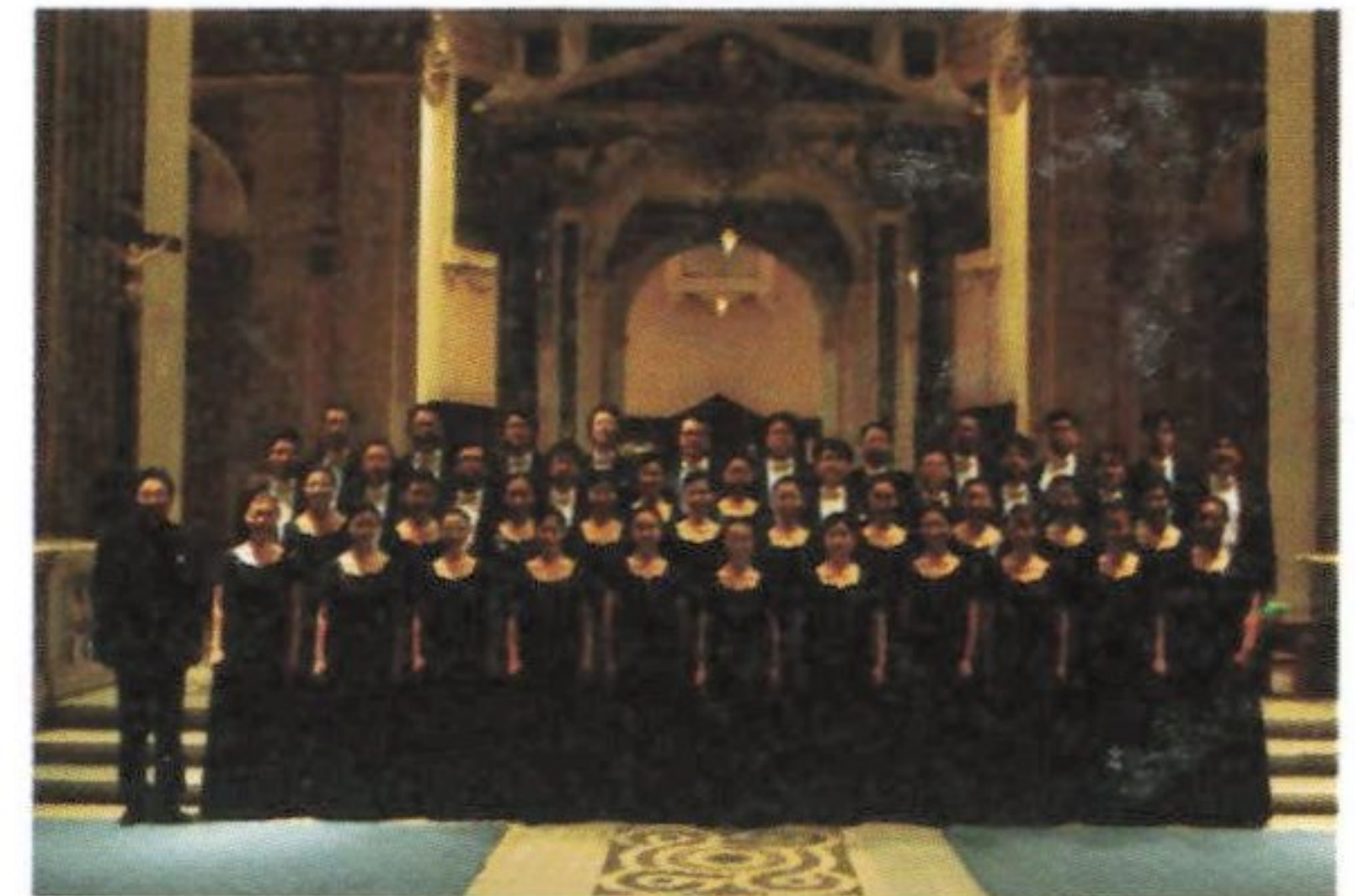
로시니가 12살 때 작곡한 현악 소나타는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 첼로의 일반적인 현악4중주 구성이 아니라 바이올린 2대와 첼로, 더블베이스를 위한 곡이다. 과연 12살의 어린이가 작곡했을까 싶을 정도로 낭만적이고 감상적이며 때로는 애절한 사랑의 감정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로시니는 사랑에서도 조숙한 천재이지 않았을까? 여섯 곡으로 구성된 작품 중 제 3번의 3악장은 FM 음악프로그램의 시그널음악으로도 사용되어 친숙하다. 몇 년 전 우연히 접한 앙상블 엑스플로라송(Ensemble Explorations)의 로시니 ‘눈물(Une larme)’이라는 음반을 듣고는 바로 팬이 되어 이들의 모든 음반을 구입하여 감상하였다. 이 음반에는 현악 소나타 3번, 6번과 함께 30대에 작곡한 플루

트, 오보에, 잉글리시 호른이 포함된 소규모 실내악을 위한 ‘세레나타’, 첼로와 더블베이스를 위한 ‘듀엠토’가 수록되어 있다. 유려한 리듬과 작품 곳곳에 나타나는 로시니의 천재성을 충분히 살려내며 선율적 쾌감과 치밀한 하모니를 선사하는 앙상블 엑스플로라송의 연주는 앙상블의 이름처럼 철저한 곡의 해석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작품에의 감정동화를 여지없이 느끼게 해준다. 특히 앨범 제목이기도 한 ‘눈물’은 로시니의 작품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피아노와 첼로의 2중주곡이다. 나지막한 피아노 서주 후에 뒤따르는 첼로의 흐느낌, 그리고 그 슬픔은 눈물이 되어 떨어진다. 하지만 슬픔만이 가득한 곡이 아니며 로시니의 실내악곡 중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감수성 가득한 멜로디를 들려준다.

벨기에의 첼리스트 로엘 디엘티엔스(Roel Dieltiens)가 음악감독인 앙상블 엑스플로라송은 쇼팽시대 최고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프랑송의 작품으로 하모니아문디 프랑스에서 1997년 첫 앨범을 출시한 이래 비발디, 로시니, 멘델스존, 보케리니, 드보르작의 작품으로 음반을 잇달아 발표하였고, 2009년 Etcetera 레이블로 비발디 첼로소나타 음반을 발표하는 등 9장의 앨범을 출시하였다. 디엘티엔스는 바흐의 무반주첼로조곡과 이탈리아 여러 작곡가들의 첼로소나타에서 독주자로서도 활약하였으나 앙상블 엑스플로라송과의 활동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앙상블 엑스플로라송은 작품에 따라 단원의 구성을 자유롭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드보르작의 작품에서는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인 강현종씨가 참여하여 수준높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이제 로엘 디엘티엔스와 앙상블 엑스플로라송의 열 번째 음반을 앞두고, 이번엔 어떤 해석과 새로운 레파토리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해 줄지 기다리게 된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 자매도시 그리스 데살로니키 자매결연 1주년 기념식 참가

부산시립합창단이 4월 28일, 그리스 데살로니키에서 열리는 부산시·그리스 데살로니키시의 자매도시 결연 1주년 기념식 무대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무대에 선다.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인 그리스 데살로니키는 그리스 제2도시로 사도 바울의 초기 교회 등 화려한 고대유적이 즐비한 곳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출생지이기도 한 데살로니키는 1997년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고대 그리스 유적 보존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럽문화 종주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산업의 업그레이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부산시립합창단은 4월 28일 데살로니키시 시청 홀 무대에서 아리랑을 비롯한 우리민요와 가곡, 그리스 가곡 등을 노래한다.



부산콘서트콰이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단체 가입

1990년 창단 이래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콘서트콰이어가 3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으로 가입했다. MBC목요음악회, 부산합창제, 금정합창제, 금정문화회관 수요일음악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등에 출연한 부산콘서트콰이어는 그동안 '사랑의 도시락보내기' '사랑의 나눔음악회'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창단 21주년을 맞아 더욱 원숙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콘서트콰이어는 이번 정기회원 가입으로 단원은 물론 단원 가족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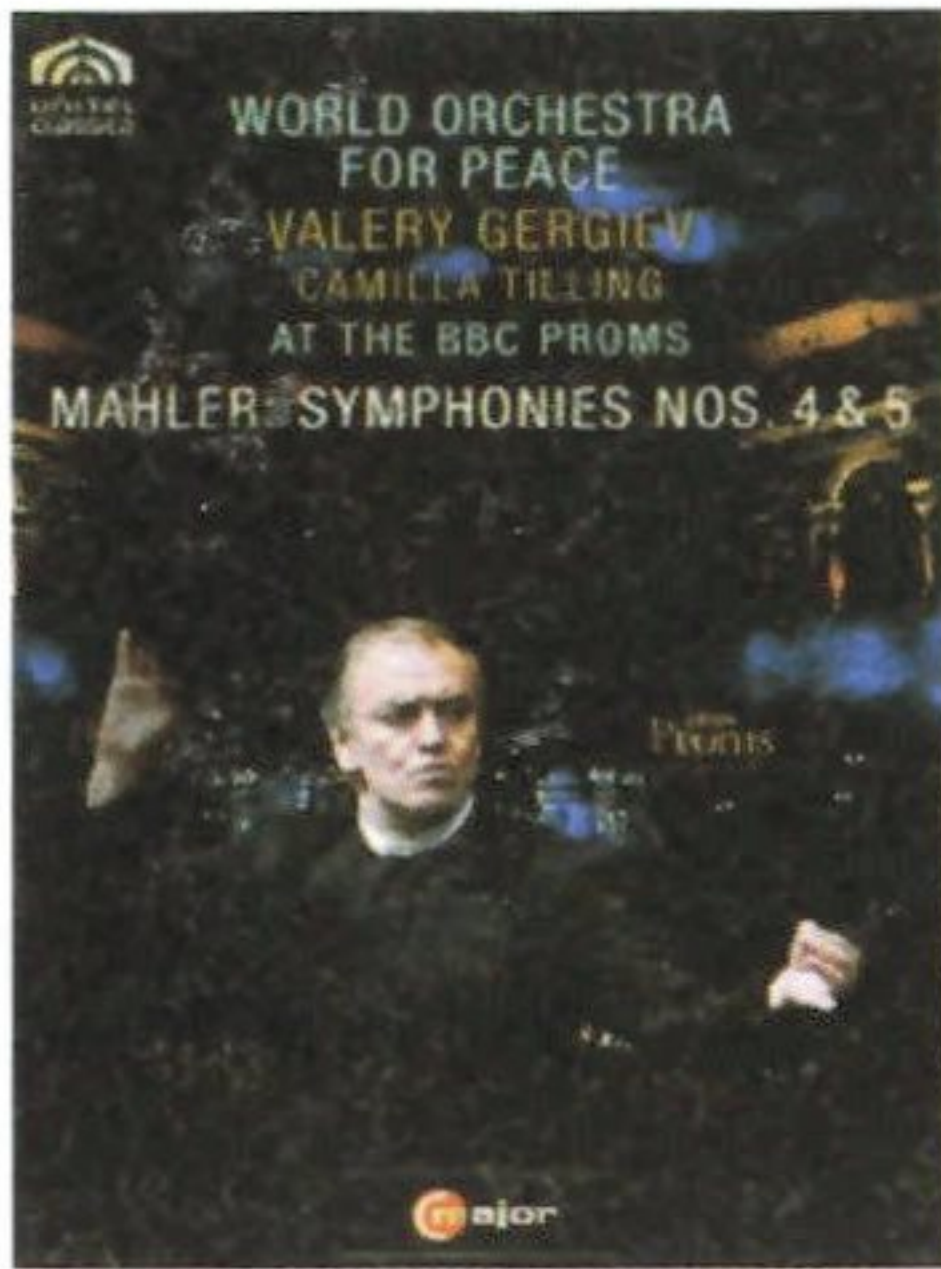
4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풍성

공연장을 찾지 못할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문화회관 찾아가는 공연 일정이 확정되었다. 4월에는 1일 해군작전 사령부 '국군 장병위문공연'을 시작으로 시청로비콘서트, 민주공원 토요일문화한마당, 광안리 어방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일 정

4월 1일(목)	10:00	시청대강당	내사랑부산공연 '향토예비군의 날 축하공연' (출연/시립합창단)
4월 1일(목)	19:00	해군작전사령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국군장병 위문공연' (출연/시립무용단)
4월 6일(수)	12:30	시청 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과 함께 하는 로비콘서트' (출연/시립무용단)
4월 8일(금)	19:00	온천천 야외무대	내사랑 부산공연 '연제한마당축제' (출연/시립합창단)
4월 9일(목)	15:00	민주공원	내사랑 부산공연 '민주공원 토요일문화한마당' (출연/시립무용단)
4월 18일(월)	10:30	반석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반송 BMC주민들과' (출연/시립교향악단)
4월 22일(금)	19:00	광안리해변	내사랑 부산공연 '광안리 어방축제 축하공연' (출연/시립무용단)
4월 27일(수)	12:30	시청 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과 함께 하는 로비콘서트' (출연/시립극단)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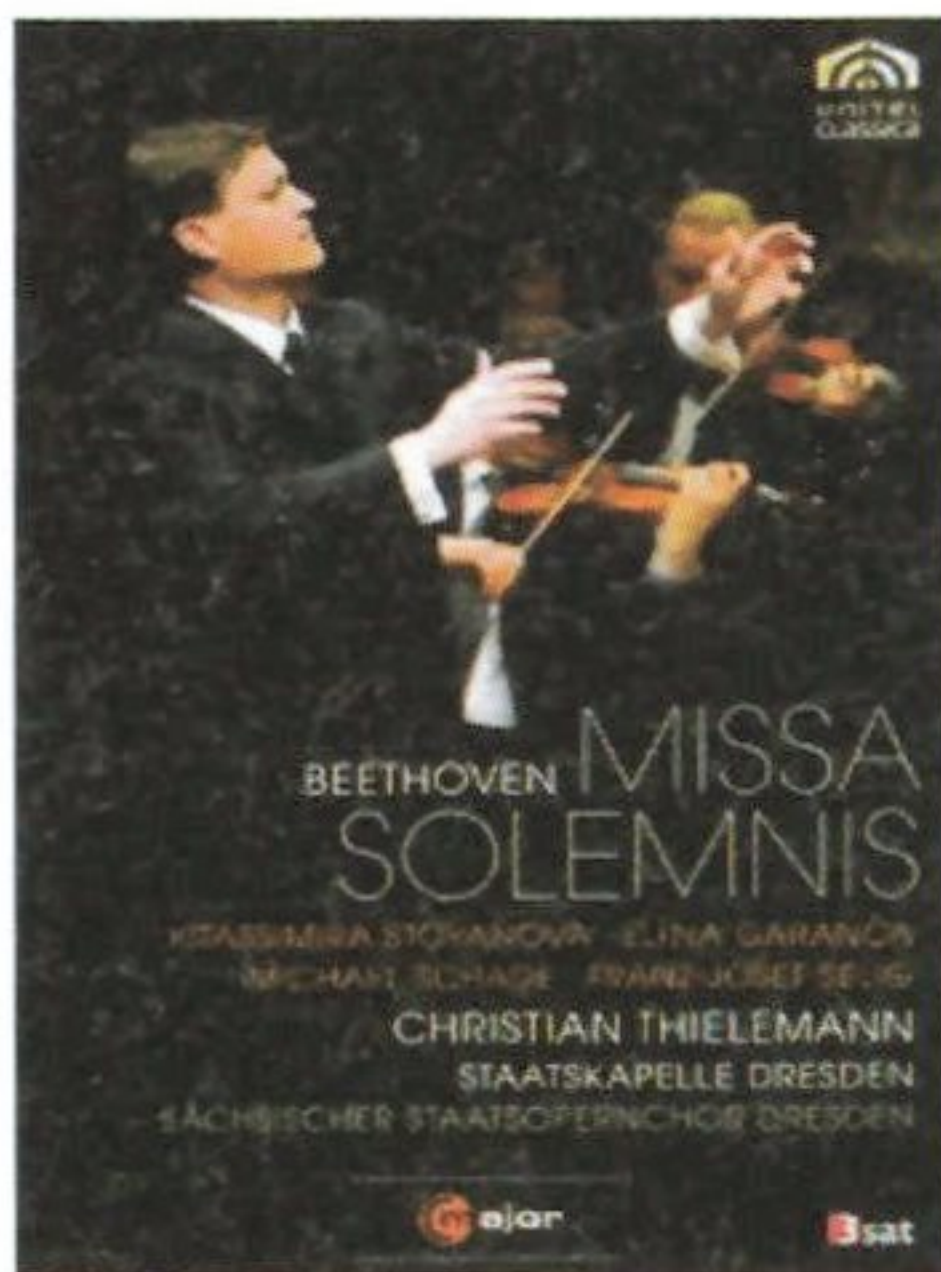


말러 교향곡 4번, 교향곡 5번

▶연주: 월드 오케스트라 오브 피스(지휘/발레리 게르기에프), 카밀라 킬링(소프라노)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감동의 말러 교향곡

월드 오케스트라 오브 피스는 세계 각지 50여 개국의 100여개 이상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이 1995년 지휘자 게오르그 솔티의 유지를 받들어서 결성된 비상설 오케스트라이다. 솔티의 사후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금까지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오고 있으며, 음악을 통한 인류의 화합을 실천하고 있는 이 특별한 단체는 2010년 유네스코에 의해 'Artists for Peace'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본 영상은 이들이 2010년 8월 런던의 프롬스 기간 중에 가졌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말러의 탄생 150주년과 서거 100주기인 2010/2011년 시즌을 기념하여 말러의 교향곡 4번과 교향곡 5번을 함께 무대에 올렸다. 지휘자 게르기에프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빈 필의 악장 라이너 귀홀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뮤지션들의 감동적인 열연을 최고의 화질로 담았으며 월드 오케스트라 오브 피스의 15년 역사를 담은 2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부록으로 함께 수록되었다



베토벤 장엄미사

▶연주: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지휘/크리슈티안 틸레만), 드레스덴 슈타츠키오페 합창단, 크라시미라 스토야노바(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알토), 마이클 쉐이드(테너), 프란츠 요제프 젤리히(베이스)

드레스덴 폭격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엄' 그 자체의 장엄미사

2차 대전의 유럽 전선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던 1945년 2월 드레스덴을 휩쓸었던 연합군의 융단폭격에 의해 25,0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는 1951년부터 매년 이 참혹한 비극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콘서트를 지속해오고 있다. 본 영상은 지난 2010년의 추모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2012년부터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의 카펠마이스터를 맡을 예정인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를 맡았다. 여러 작곡가들의 레퀴엠들을 연주해왔던 예년과 달리 베토벤의 장엄미사를 택했는데, 장중하면서도 엄숙한 이 걸작의 속성은 추모콘서트의 분위기와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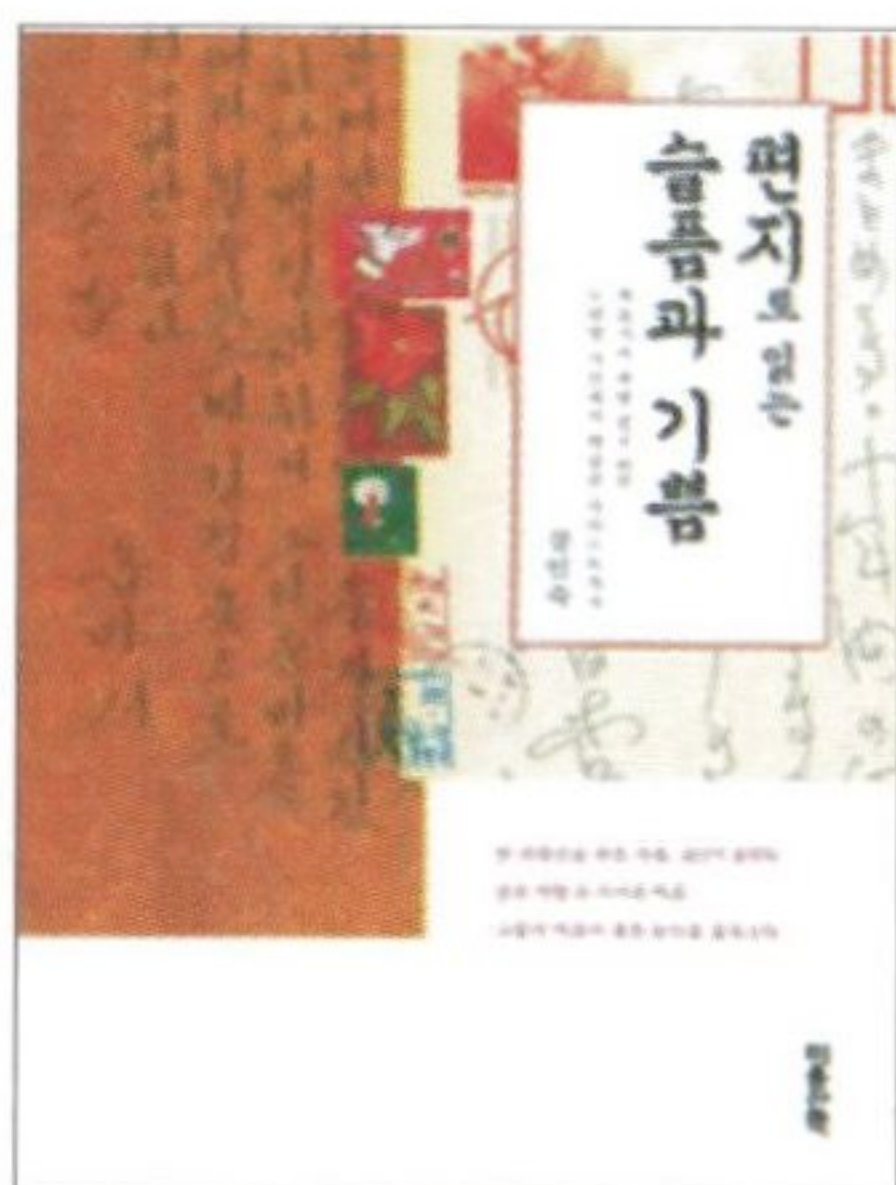


요제프 수크 바이올린 명곡집

▶연주: 요제프 수크(바이올린), 요제프 할라(피아노)

역시 요제프 수크의 소품집은 색다르다!!

요제프 수크의 '라임 라이트'(COCO 70856)가 2007년 국내 발매되어 세미클래식 명곡들을 사랑하는 클래식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실내악으로 다져진 그의 연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화려한 비르투오지티 대신, 마치 간접 조명과 같은 은은한 불빛처럼 듣는 이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비추는 매력이 있다.



편지로 읽는 슬픔과 기쁨

강인숙 지음 / 마음산책 / 248p
16,000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의 육필 편지 49편을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영인문학관 강인숙 관장이 오랫동안 모아온 문인과 예술가들의 원고와 편지와 물품 2만5천 여 점 중에서 편지 49편을 모아 소개했다. 최근 작고하신 박완서 선생을 비롯해, 유치환, 노천명, 이광수, 서정주, 전해린, 조정래, 백남준, 장영주 등 예술가들이 직접 쓴 편지들이다. 아내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 아들에게 보내는 가족 편지를 비롯해 문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 작가들의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연하장도 볼 수 있다. 문학평론가로서 작가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영인문학관 강인숙 관장이 편지만으로는 부족한 배경지식과 뒷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어 편지를 쓸 당시의 사연과 마음도 짐작해볼 수 있다. 책을 펴낸 강인숙 관장은 편지의 힘을 '편지는 수신인 혼자서만 읽는 호사스런 문학이다. 그것은 혼자서 듣는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같다'고 말한다. 세상의 단 한사람에게 보내는 사연,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쓴 글이 편지이다. 그 편지를 읽을 때 보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한 느낌까지도 함께 전해지는 것이다. 원본자료로 실린 편지의 육필을 보는 즐거움도 크다.



미술관에 간 CEO

김창대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305p
15,000원

현대미술에 나타난 발상논리를 창조경영 모델에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해온 한국비영리 경영학회 김창대 회장이 '미술관에 간 CEO'에서 예술가의 눈을 통해 진화하는 소비자의 욕망을 읽어낸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 CEO가 국내 경영자 436명에게 물었다. "CEO의 예술적 감각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96.2%의 CEO들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중 44.7%는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다. 과거의 성공공식을 타파하고 낯선 시선으로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그것만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러한 창조경영은 오직 예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경영 일선에 있는 이들이 먼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예술가의 눈'에서 돌파구를 찾고, 예술에게 길을 묻는다. 최근 CEO들이 미술관을 찾는 것, 예술을 통해 새로운 경영 형태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들 모두 이와 같은 맥락이다. 명화에서 디자인을 떠올리는 피상적인 접근만을 일삼던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브랜딩과 마케팅, 디자인과 개발, 경영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고차원의 통찰들을 미술 작품과 예술가들의 스토리를 통해 제시한다.



인상파, 파리를 그리다

이택광 지음 / 아트북스 / 376p
16,000원

19세기 파리는 근대화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이 변화의 순간순간을 스냅사진처럼 찍어낸 것이 바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다. 미술, 영화, 대중문화 관련 글을 쓰고 있는 작가로, 문화평론가로 활동하는 젊은 학자 이택광 씨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으로 파리여행을 안내한다. 지금의 파리의 모습은 19세기 후반 오스망 남작의 지휘 아래에서 추진된 도시계획으로 완성되었고, 인상파 화가들은 이 변화의 순간순간을 마치 스냅사진처럼 생생하게 그림으로 담아냈다. 모네는 떠나려는 기차를 세워놓고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이 '생라자르 역'이다. 르누아르의 '퐁뇌프', 카유보트의 '유럽의 다리', 피사로의 '몽마르트르 대로' 연작 등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파리의 모습이 지금의 파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당시의 상황과 풍경을 모두 화폭에 담아냈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세기 파리에 불어닥친 변화의 물결을 인상파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였으며, 당시 파리인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다각도로 설명한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상파 그림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와 화가들의 사생활도 엿볼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5주년 기념

기차타고 떠난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3월로 5주년을 맞았다. 구제역 여파로 취소된 지난 2월을 제외하고는 지난 5년동안 매월 둘째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여행길에 올랐던 정기회원 가족들. 지난 3월 11일에는 테마여행 5주년을 맞아 특별한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테마여행 첫 여행지인 경주로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평소보다 두배가 많은 83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이 특별한 여행에 동참했다.

꽃샘추위도 한풀 꺾인 지난 3월 11일, 8시 40분 경주행 새마을기차 출발을 앞두고 부전역 2층 대합실은 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 가족들로 일찍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번 여행은 부전역을 출발, 경주역에 도착한 뒤 버스로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과 회재 이언적 선생의 자취가 남아있는 세심마을을 둘러보는 코스.

기차가 출발하면서 본격적인 테마여행이 시작되었다. 차창 밖으

로 펼쳐지는 봄 풍경에 마음을 뺏긴 것도 잠시, 이번 테마여행을 위해 특별히 참석한 이벤트 사회자 신민기씨의 진행에 객실 분위기는 어느새 수학여행을 떠나던 그때의 추억에 사로잡혔다. 이어지는 열차 공연의 하이라이트 '부산시립합창단 아카펠라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권순유, 이찬미, 정재연, 백지은, 서미선, 강은태, 이현성, 장용균 씨가 선사하는 멋진 화음에 어느새 객실은 감동의 도가니가 된다. 아카펠라로 부르는 '윌리엄텔 서곡' 'Java Jive'에서부터 어느 멋진 날, 넬라 판타지아, 신고산타령, 여행을 떠나요 등 이어지는 정통 합창곡과 민요, 가요, 팝송 연주에 연주자와 관객이 한마음이 된다.

경주역에 도착하자 장은희, 권복순 씨 등 두 명의 농촌체험해설사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두 대의 버스에 탑승한 회원들은 먼저 안동 하회마을과 더불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씨족마을로, 전통 민속마을 중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지닌 양동마을로 향했다. 양동마을은 경주 손씨와 여강 이

씨가 55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유서 깊은 마을로, 한국 성리학의 기초를 다진 조선 전기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 선생을 비롯 우재 손중돈 선생 등 많은 석학을 배출했다.

해설사의 인솔로 보물 제442호인 관가정과 412호 향단을 둘러 보았다. 관가정은 우재 손중돈이 손소로부터 분가하여 살던 집. 관가정(觀稼亭)은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듯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본다는 뜻이다. 향단은 이언적 선생이 경상도관찰사로 재임하던 1543년에 지은 집으로 본래 99칸이었으나 지금은 56칸으로 줄어 들었다.

다음 여행지는 회재 이언적 선생의 자취가 서려있는 세심마을. 이언적 선생이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지은 독락당을 먼저 둘러보았다. 독락당을 돌아 계곡으로 내려서니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한폭의 산수화가 눈앞에 펼쳐진다.

분주했던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세심마을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로 허기진 배를 달랜다. 세심마을 특산품인 시금장과 봄나물에 회원가족들의 수저질이 분주하다.

오후 일정은 세심마을에서 준비한 전통놀이 '무과 과거체험'. 세 조로 나뉘어 활쏘기, 제기 차기, 투호놀이에 도전해본다. 세 경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회원 김광열 씨와 김정하 씨가 대표로 사모관대와 어사화로 장원급제 기분도 내본다.

이어지는 시간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정진희, 오수연 씨와 함께하는 강강술래 배워보기. 80여명의 회원가족들이 한 동작으로 빚어내는 강강술래가 세심마을 마당을 가득 채운다. 한바탕 뛰고 난 후 직접 떡매치기로 쳐서 먹는 인절미는 그래서 더욱 꿀맛이다.

경주역을 출발하기 전, 인근 옥산서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주의 부윤 이제민이 이언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안강고을 선비들과 함께 만든 옥산서원은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적 수가 가장 많은 서원이다. 옥산서원을 마지막으로 아쉬움을 뒤로 하고 경주역으로 향한다.

오후 5시 9분 부산으로 돌아오는 무궁화호 열차, 사회자 신민기씨의 진행으로 함께 동석했던 이종철 씨의 연주가 펼쳐진다. 하루 일정으로 고단할 법도 한데 정기회원 김충남 씨의 자작시 낭송까지 회원가족들의 추억 만들기는 끝이 없었다.



2011년 5월에는 **함양**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4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강신경(동래구 온천동)
김경재(북구 만덕 2동)
박은재(동래구 사직2동)
서지원(서구 암남동)
이혜숙(수영구 수영동)
정경희(남구 대연3동)
정혜숙(수영구 수영동)
한금숙(연제구 연제로)
홍사랑(중구 부평동)
황윤주(금정구 구서동)

엽서당첨자

김말선(사상구 덕포2동)
김영란(연제구 연산9동)
김향연(사하구 괴정4동)
류부자(중구 보수1동)
이상식(기장군 기장읍)
이춘기(수영구 망미2동)
장양애(서구 서대신동)
정기모(기장군 기장읍)
추은경(북구 덕천2동)
최진훈(양산시 물금읍)

부산시립교향악단 2011 웰빙콘서트 '불멸의 연인과 베토벤 음악'

늦은 저녁 공연을 찾을 수 없는 주부들을 위한 오전 11시 공연이 마음에 들어 예전부터 '웰빙콘서트'를 빠지지 않고 다녔다. '영화속의 클래식-불멸의 연인과 베토벤 음악'이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공연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았다. 영화 '불멸의 연인' 영상과 함께 베토벤 음악과 해설자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악성 베토벤에 대해서 새삼 알게 되었다.

-박정희(동래구 안락동)

부산시립교향악단 '거장 장-베르나르 포미에 초청연주회'

“피아노 협주곡 연주를 하면서 지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아함이 단번에 사라진 정말 경이로운 연주회였습니다. 거장의 원숙한 연주와 지휘에 감동 그 자체... 다만 아쉬웠던 점은 연주 중의 핸드폰 벨소리와 연주 중간의 몇 사람의 박수... 좀 더 좋은 연주를 위해 공연 전 기본 매너를 한번 더 숙지해 지켜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수임(중구 영주동)

임동혁 피아노 스토리

최고를 향한 뜨거운 이상, 쉽없는 연습과 노력, 그리고 외로운 방황... 그의 삶과 사랑을 솔직하게 들려준 멋진 무대였다. 연주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듣는 음악은 과연 감동이 남달랐다. 브라보!

-김정설(서구 남부민3동)

국립창극단 '청'

어린 시절 만난 심청을 창극으로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일찍 감치 예매를 했다. 판소리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거기에 창극이라니. 한편으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가 어떻게 인당수로 변할지 기대가 컸다. 큰 무대 장치 없이 회전 원형무대가 비스듬하게 올라가더니 어느새 뱃전으로 변했다. 창극단 단원들의 구성진 가락에 나도 절로 눈물이 났다.

- 박미정(영도구 영선동)

뉴보잉보잉

뉴 보잉보잉~ 제목이 우선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보잉보잉이란 작품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어 뉴보잉보잉에도 도전해봤다. 8년째 공연 중인 화제작이라 그런지 빠르게 변해가는 대중의 웃음코드를 놓치지 않고 관객들을 뽕뽕 터지게 만들었다. 3각 애정 행각을 어떻게 이해할까 내심 걱정했는데 대미는 진정한 사랑을 찾는 멋진 마무리~

- 노건우(금정구 장전동)

나랏소
최고급 한우만을 고집합니다
한우 숯불구이 고향 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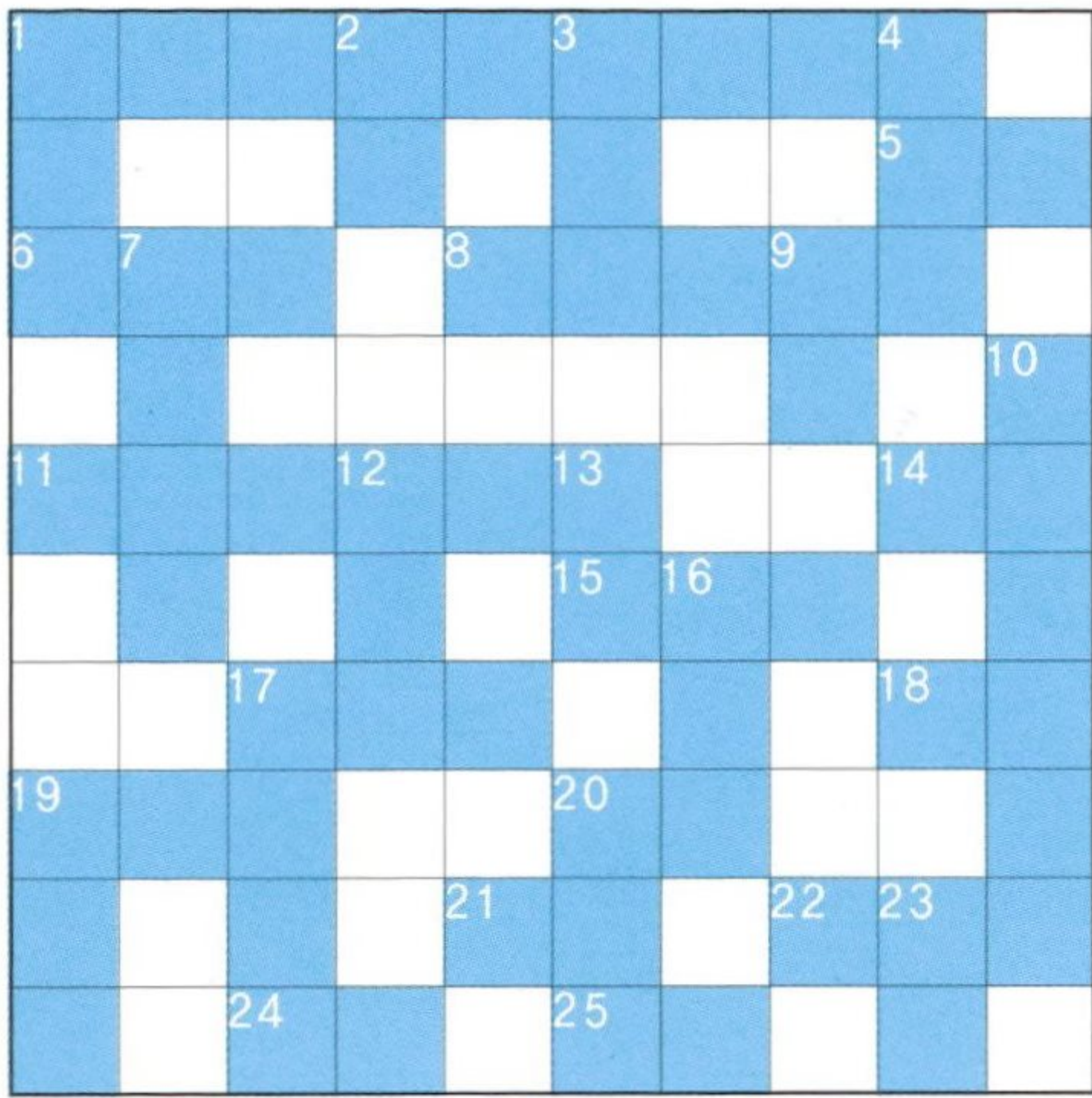
나랏소랑?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드립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감 수시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가로열쇠

- 1_ 5월 29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내한공연을 갖는 85년 역사를 지닌 체코의 대표적인 교향악단. 풍부한 감성의 지휘자 페트르 브론스키가 지휘하고 '살아있는 라흐마니노프'라는 평가를 받는 피아니스트 콘스탄틴 웨르바코프가 협연한다.
- 5_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겸 지휘자. 20세기 작곡기법에 있어 요한 선구자로 인식되며, 쇤베르크, 쇼스타코비치, 브리튼 등과 같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대표곡으로 교향곡 '부활', '대지의 노래' 등이 있다.
- 6_ 세계 각국의 시인, 극작가, 편집인, 평론가, 소설가 등 문필가들이 문학을 통해 국제간의 이해를 촉진하고자 조직한 문화단체. 1921년 영국에서 창립됐으며 우리나라는 1954년에 가입했다.
- 8_ 국가 지원을 받는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재단. 30여년 전 수도인 카라카스에서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빈

민 아이들 11명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키워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 11_ 영국 작가 스위프트가 지은 풍자소설. 주인공 걸리버가 항해 도중 폭풍우를 만나 소인국, 대인국, 하늘을 나는 섬나라, 말[馬]나라 등을 거치며 진기한 경험을 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영국 사회의 타락상과 부패한 정치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14_ 번뇌의 얽매임에서 풀리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벗어남. 열반과 같이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이다.
- 15_ 남태평양 중부에 위치한 폴리네시아 민족의 중심 거주지. 유럽인들로부터 '남해의 낙원' '비너스의 섬' 이라고 불렸으며, 화가 고갱이 말년에 이 곳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고갱의 섬'으로 불리기도 했다.
- 17_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었던 에바 페론의 별명. 동명의 뮤지컬과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 18_ 연못가나 도랑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 5월 5일 단오날 이 것을 넣어 끓인 물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풍습이 있다.
- 19_ 10년의 세월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연인들의 사랑을 그린 진가신 감독, 장만옥, 여명 주연의 홍콩영화.
- 20_ 태국의 수도.
- 21_ 프랑스의 화가. 소박한 동화의 세계나 고향의 생활, 하늘을 나는 연인들이란 주제를 즐겨 다루었으며, 자유로운 상상과 풍부한 색채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풀어주는 매력이 있다.
- 22_ 미국 호놀룰루 서쪽에 위치한 만(灣)으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 일본의 공습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24_ 조선 시대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보 제 227호.

25_ 1부터 45까지의 숫자 가운데 6개의 숫자를 직접 선택하여 그것이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당첨금을 지급받는 복권.

세로열쇠

- 1_ 캄보디아의 수도.
- 2_ 연극에서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
- 3_ 표제를 가진 독립된 단락장의 관현악곡. 문학적 내용이나 풍경 등의 회화적인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형식은 자유롭다.
- 4_ 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 혹은 임종을 달리 이르는 말.
- 7_ 원통형으로 생긴 폐관식 목관 악기. 아름다운 음색과 넓은 음역으로 각종 합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9_ 남성의 가장 높은 음역. 또는 그 음역의 가수.
- 10_ 영화 '블랙스완'으로 2011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배우.
- 12_ 별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
- 13_ 공명통에 자루를 달고 여섯 개의 줄을 매어, 왼손 손가락으로 줄을 눌러 음정을 고르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 연주하는 현악기.
- 16_ '스릴러 영화'라는 장르를 확립한 영국 출생의 미국 영화 감독. 대표작으로 '헨지증' '사이코' '새' 등이 있다.
- 17_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을 이르는 말.
- 19_ 신라시대에 건립된 천문대로,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다.
- 20_ 본래는 풀이나 기와로 지붕을 인 목조 건물인 인도 벵골 지방의 독특한 주택 양식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산기슭이나 호숫가같은 곳에 지어 여름철 휴련용, 피서용으로 쓰는 별장을 일컫는다.
- 23_ 사신(四神)의 하나. 남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붉은 봉황으로 형상화했다.

지난호 정답



퍼즐당첨자 명단

공간소극장

- 손홍식(북구 금곡동)
- 신소희(남구 대연동)
- 조경남(부산진구 양정동)
- 유승민(북구 화명동)
- 김수현(서구 암남동)

나랏소

- 김정해(사하구 당리동)
- 문병용(남구 대연4동)
- 박영선(금정구 장전동)
- 정은정(북구 엄궁동)
- 차은주(남구 용호동)

BS부산은행 조은극장

- 권달순(수영구 광안동)
- 김성화(북구 화명동)
- 신규빈(해운대구 우동)
- 이경희(연제구 거제3동)
- 장미정(금정구 금사동)

큰집

- 김말선(사상구 덕포동)
- 김정옥(연제구 연산6동)
- 김호은(서구 서대신동)
- 성용호(해운대구 우1동)
- 윤지현(서구 초장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셀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 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관광 코딩한니바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곱창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1년 4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함께하는

체코 음악의 자존심

프라하 방송 교향악단 내한공연

Prague Radio Symphony Orchestra

Program

Smetana Symphonic Poem Ma Vlast No.2 Vltava(Die Moldau)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中 제2곡 몰다우

Rachmaninov Piano concerto No.2 in c, Op.18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

Tchaikovsky Symphony No.5 in e, Op.64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64

지휘
페트르 브론스키

피아니스트
콘스탄틴 셰르바코프

2011.5.29 (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계가 열광하는 체코 프라하 방송 교향악단

완벽한 테크닉과 청명하고 융통성있는 음색은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빼어나다.

Internetculturaldaily, DrehPunktKultur

마치 한 사람처럼 연주하는 PRSO의 음악은 기술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

Kronenzeitung, MatthiasWagner

어마어마한 수의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손짓 한번에 한마음이 된다. 달콤함과 거침, 열광적인 움직임 사이를 오가다 소란스러운 경쟁을 거쳐 마침내 거칠고 열광적인 상태로 끝마쳤다.

SZON(SchwäbischeZeitungOnline)

프라하방송교향악단-스메타나- '나의 조국'

스메타나나의 조국 중 가장유명한 Vltava(몰다우)의 첫장면은 물과 물고기가 등장하는 풍경처럼 묘사되었다. 목관악가는 급류 속의 집에 있는 것 같았고, 점차 현의 소리가 증가하면서 표면이 벨벳처럼 아주 부드러워졌다.

Kronenzeitung, MatthiasWagner(2008.10.15)



살아있는라흐마니노프 라는 칭송을 받으며 끊임없이 놀라운 연주실력으로 전세계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피아니스트 **콘스탄틴 셰르바코프**

Pianist, Konstantin Scherbakov

살아있는 라흐마니노프다.

〈LNN〉

눈부신 기교와 다채로운 감성의 범위로 위엄있는 연주자의 모습이다.

〈TheIndependent〉



엠피온스는 인간과 자연,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2003년 설립된 젊은 기업 엠피온스는 인조대리석 및
특수 플라스틱 경화제인 Alkenox P-100과
인조대리석 경화제인 Alkenox TBM,
다양한 유기과산화물을 개발, 생산 국내 및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4월 16일 토요일 오후 5:30 소극장



프로그램

::살풀이춤(춤/서현미)

한국 전통춤의 백미로 불리며 춤사위와 발디딤이 섬세하고도 격조있게 정중동의 미적 세계를 그려낸 작품.

::흥타령(춤/전혜련, 안주희, 이상민)

농악 중 벅구놀음의 독특한 춤사위와 가락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무대화한 춤으로 경쾌하고 절도 있게 몰아치는 장단이 역동적인 작품.

::분홍할미꽃(영감/이성원, 할미/이화성, 각시/이현숙)

난리 통에 헤어졌던 영감과 다시 만난 할미가 영감이 데려온 첩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된다는 서민적인 삶의 해학과 애환이 돋보이는 작품.

::승무(춤/김진영, 뒷장고/장래훈)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인 승무는 힘과 신명이 넘치는 춤사위, 굽히고 돌리는 연풍대와 호화로운 장삼놀음, 춤의 경건함을 밟아가는 듯 매서운 발 디딤새, 그리고 가슴을 울리고 영혼마저 뒤엎어버릴 듯 세차고 풍요롭고 멋들어진 북가락을 담고 있다.

::꼭두상모(춤/윤은하, 이현주, 이현주)

신명나는 타악과 모던한 현대음악의 조화 속에 펼쳐지는 상모놀음이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작품.

::훈령무(춤/권봉정, 오수연)

故 한성준 선생이 구한말 구군의 모습을 연상해 만든 춤으로 훈련에 임하는

훈령의 비장한 각오가 절제된 춤사위로 표현되었다. 두 명의 훈령이 펼치는 대결무는 강인한 武::의(무적) 기상을 연상하게 한다.

::이쁜이 시집가는 날(이쁜이/김도은, 갑분이/김미란, 김미연/박상용, 맹노인/김병주, 맹진사/이정식, 부인/오숙례, 삼돌이/황동하, 함진아비/강모세)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춤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한국 전통 혼례 풍습 속에 녹아있는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아름답고 신명난 춤으로 녹여낸 작품.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

4월 23일 토요일 오후 5:30 소극장

프로그램

::휴일 행진곡 Holiday March

::미국 민요/성자의 행진

American Folk Song/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헨리 필모어/라수스 트롬본

Henry Fillmore/Lassus Trombone

::한 걸음 더 가까이

Just a Closer Walk

::해롤드 로렌스 월터스/인스턴트 콘서트

Harold Laurence Walters/Instant Concert

::멕시코 음악 메들리 Mexican Folk Medley

::어메이징 그레이스 Amazing Grace

::자크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중 '칸칸'

Jacques Offenbach/ 'Can-can' from 'Orphe aux enfers'

::존 캔더/뉴욕, 뉴욕

John Kander/New York, New York



관람료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일두 정여창 고택

2011년 5월 13일 금요일 함양 선비문화길

산성과 서원, 전통한옥, 정자, 누각 등이 산재해 있는 함양으로 떠나는 역사 기행.
지리산의 너른 품과 유교 및 선비문화를 체험하며 선조의 멋과 풍류를 느껴본다.

-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거연정 ⇨ 군자정 ⇨ 동호정 ⇨ 경모정
⇨ 농월정으로 이어진 선비문화길 답사
- ▷ 13:00 개평문화마을로 이동, 중식
- ▷ 14:00 개평문화마을 탐방,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30 부산으로 출발

2011년 6월 10일 금요일 하동 오감여행

지리산 국립공원과 맑고 푸른 섬진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청정 하동으로 떠나는 초여름
여행. 하동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차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차문화전시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인 평사리에서 오감이 즐거운 초여름을 만끽한다.

-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하동 도착, 화개장터, 차문화관 탐방-다도체험
- ▷ 12:30 중식
- ▷ 13:30 평사리문학관, 최참판댁 답사
- ▷ 15:30 매실따기 체험
- ▷ 16:30 부산으로 출발



최참판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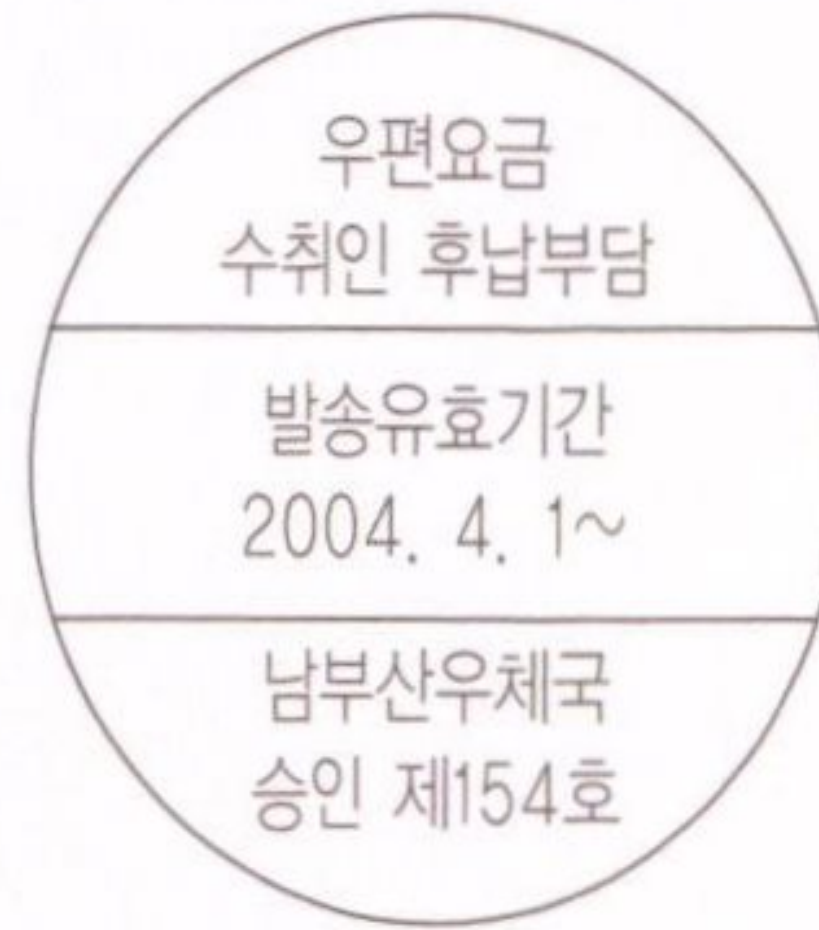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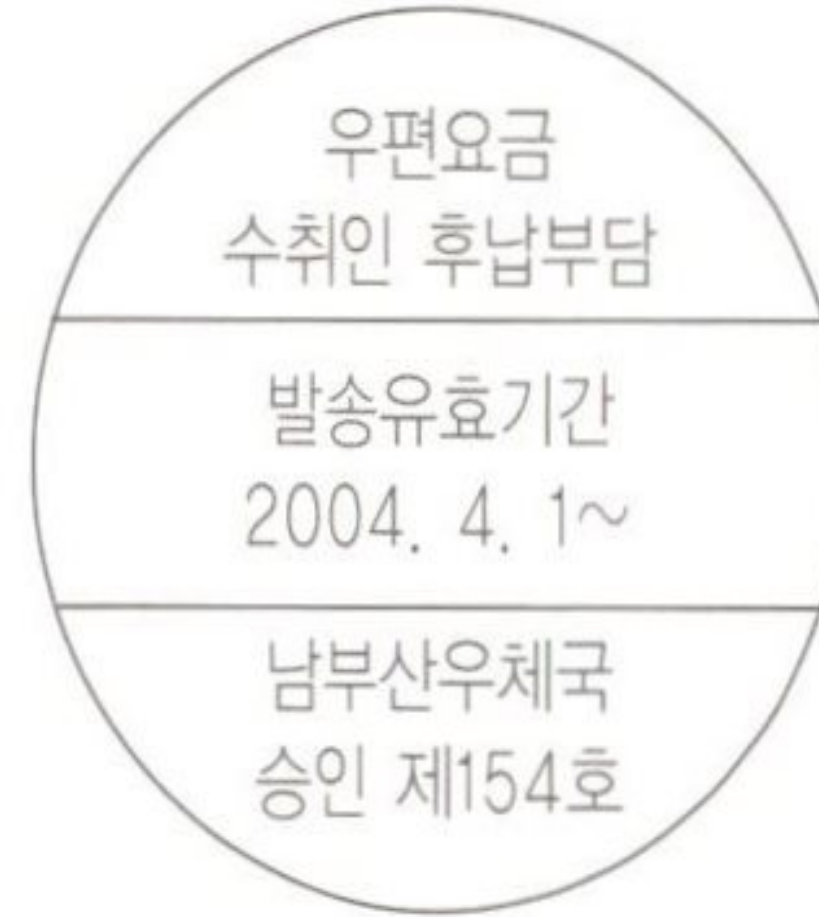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옥상 달빛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0'

2011. 5.27(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 문의 | 부산문화회관(051-607-6058)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싸이클럽 하늘아래 그 콘서트 club.cyworld.com//0911.concert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옆 기림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스킨리두 20% 할인



2011.4.1(금) ~ 5.1(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 4.3(일)공연없음

▶ 입장권: 균일 35,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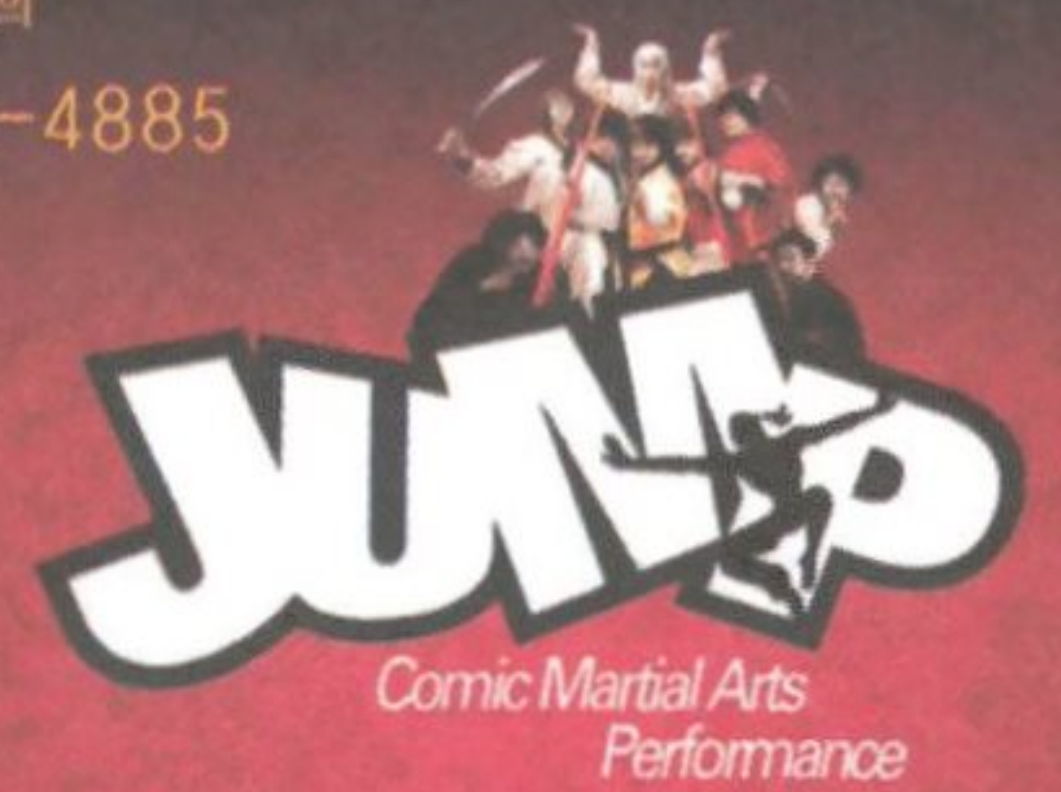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 날짜: 2011.1.1(토)~2011.12.31(토)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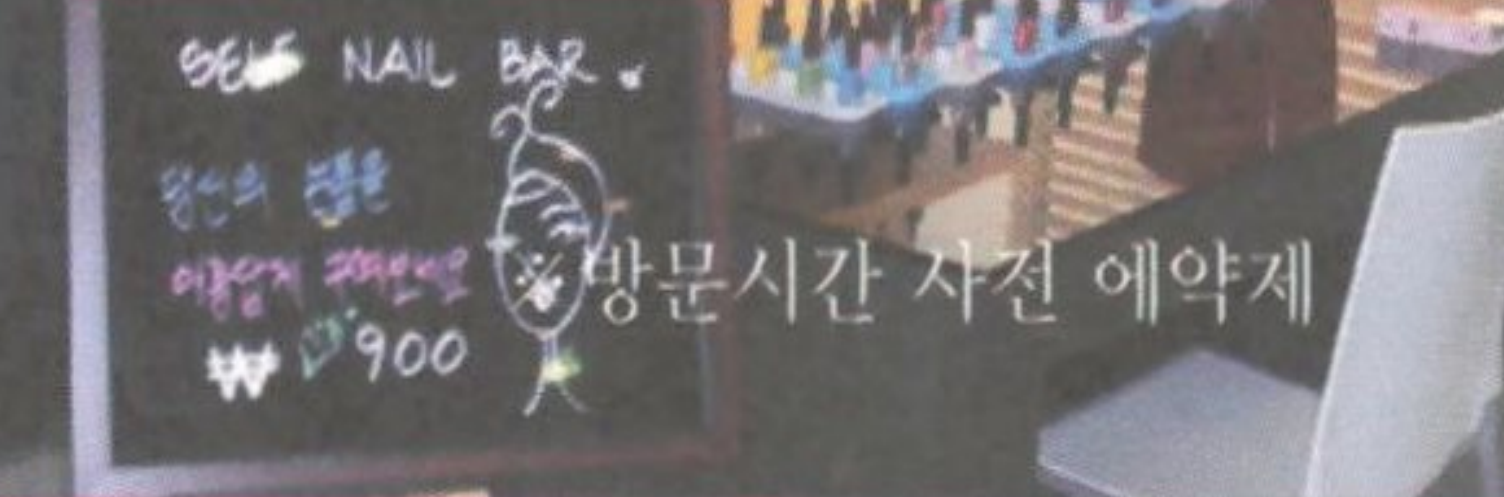
IBK 50,000원(R석) / 40,000원(S석)

*주문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금경 (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051-611-1960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Blank area for answer]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광고 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NO

YES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은 물론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예약과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회원 종류 및 가입회비 •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 이상 가입 10% 할인	

- :: 회원기간 _ 가입일로부터 1년
- :: 할 인 율 _ 기획공연 5~30%, 시립예술단공연 5~30%
- :: 좌석선택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 할인횟수 _ 제한없음
- :: 가입신청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가입비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 탈 퇴 _ 5일이후 탈퇴시는 일정액(수수료) 제외 후 환불
- :: 예약취소 _ 공연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 혜 택 _ 월간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조기예약 기획제공, 문화강좌 할인, 테마여행 부산시내주요 공연장 및 관람시설, 할인쿠폰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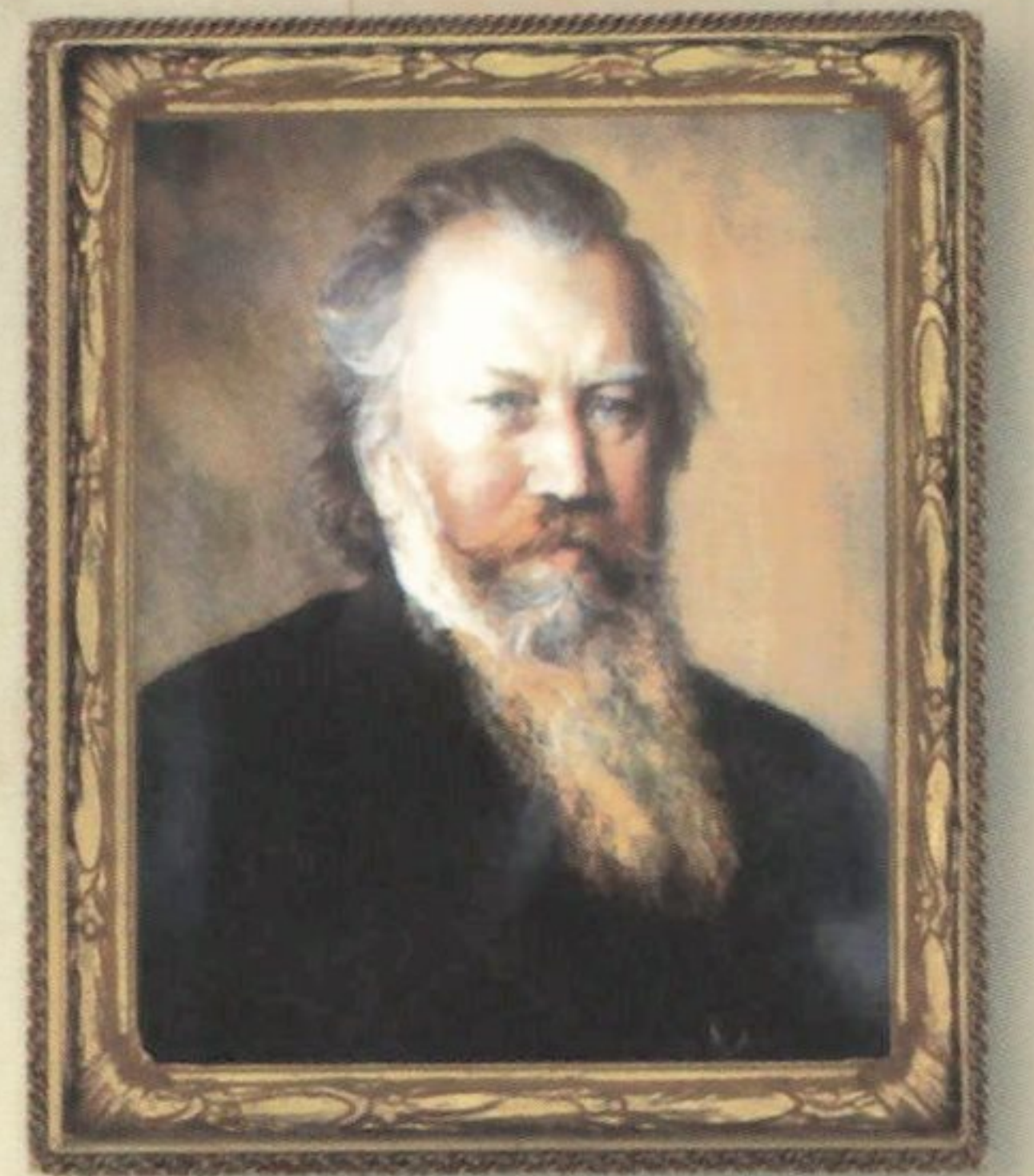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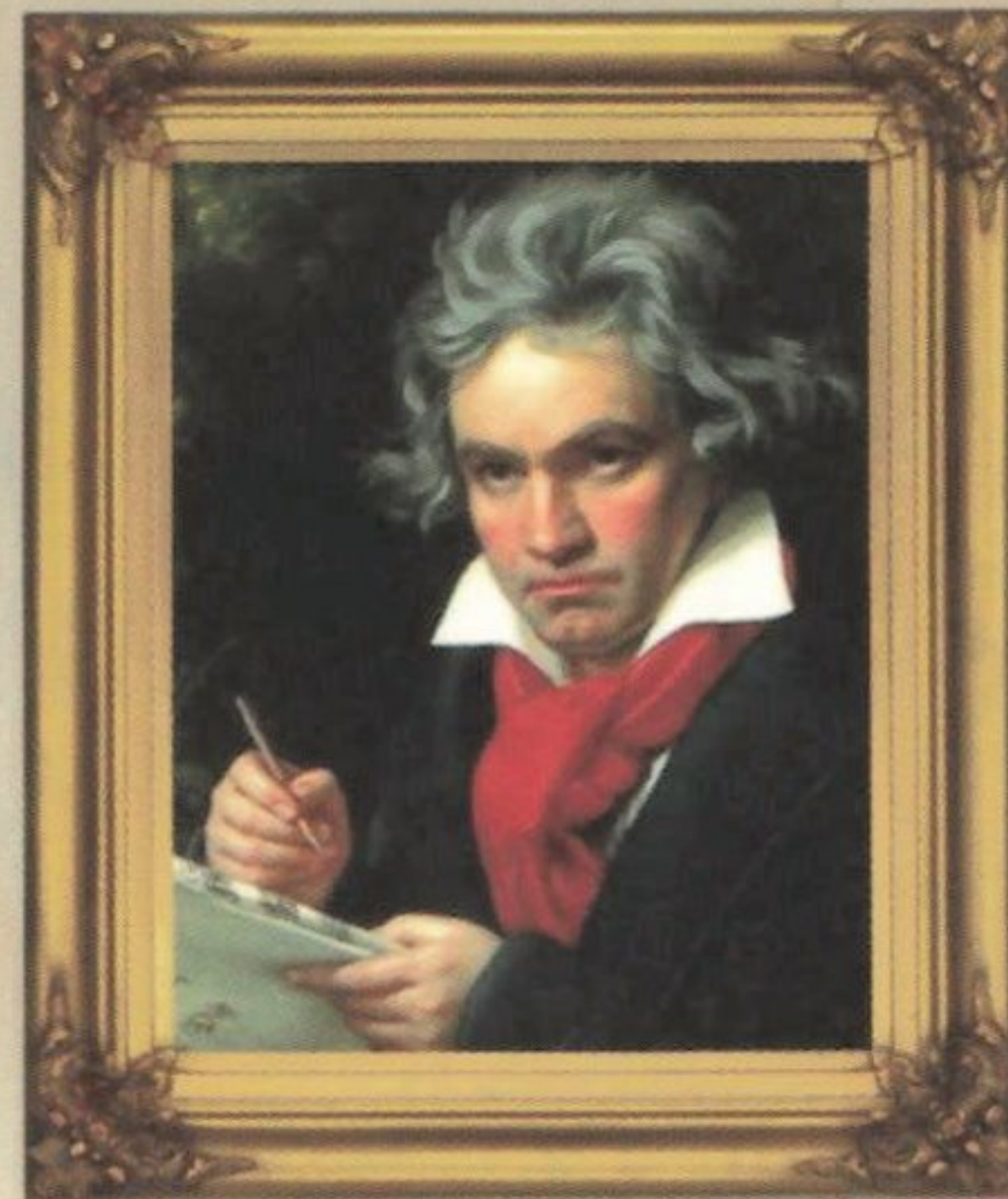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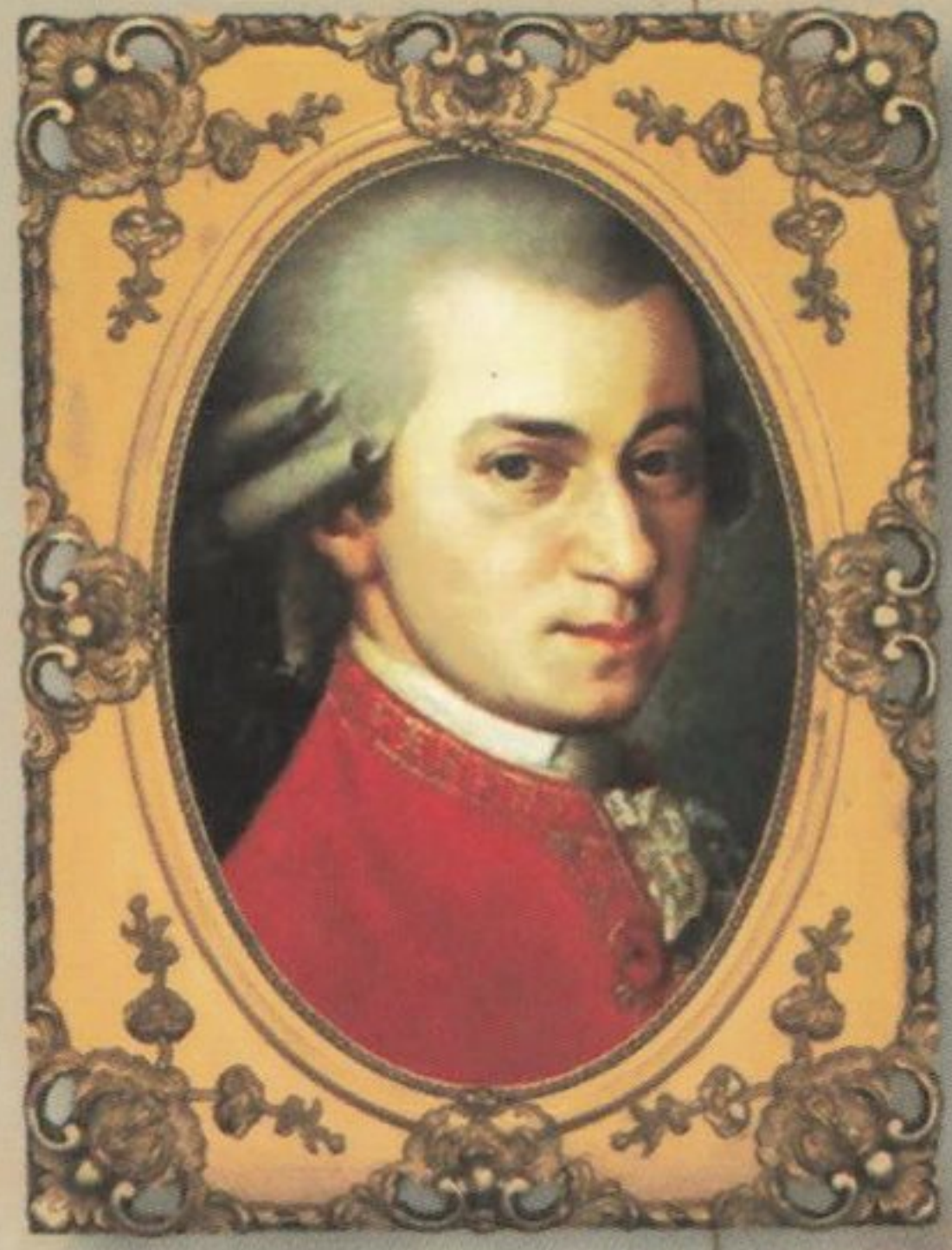
■ 정기회원 가입이벤트 ■

매달 2명 추천 ➡ 점프전용극장 공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Tel. 051)607-3100

Fax. 051)607-3109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1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클래식이 보인다 II

PROGRAM

샤르팡티에 _ '테 데움' 중 '전주곡'
헨델 _ '솔로몬' 중 '시바 여왕의 도착'
하이든 _ 교향곡 제49번 수난 중 제4악장
모차르트 _ 협주교향곡 중 제1악장
베토벤 _ 바이올린을 위한 로망스 제2번
브람스 _ 하이든 주제 변주곡 중 발췌

-그림 속의 클래식-

그림으로 보는 음악사,
음악으로 듣는 미술사 I

2011. 4. 28 목 오전 11시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지휘 - 이동신



진행·해설 - 정준호



바이올린 - 백재진



오보에 - 류재환



클라리넷 - 정우영



바순 - 윤태준



호른 - 막심 멜니코프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